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공동육아와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 동탄신도시의 사례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박 다 이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공동육아와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 동탄신도시의 사례

지도교수 이 현 정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박 다 이

박다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위 원 장 황 익 주

부위원장 이 현 정

위 원 이 승 철

이 논문은 2020년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내산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영유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도시에서 육아공동체가 형성되는 배경을 탐색하고 이들의 돌봄 실천들을 도시공동체적 맥락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경기도 오산시 품앗이공동육아공동체 '숲이랑놀자'와 동탄신도시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인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1970년대 후반, 공동체적 연대 위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하고 함께 극복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공동육아는 근대적·획일적 제도교육을 지양하는 독특한 교육실험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의 실천에 기반한 지역공동체들이 속속 등장하였고 이제는 도시공동체 형성의 기초 단위로써 잠재적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공동육아가 성장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물질적 자원들 역시 늘어났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물적 장치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육아공동체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리유치원 사태 및 그 결과로 만들어진 숲이랑놀자/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의 공동육아 실천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영유아 자녀들을 둔 동탄신도시 엄마들의 일상적 돌봄 양상을 살펴보고 비리유치원 사태를 통해 가시화된 도시적 양육의 문제를 탐색한다. 둘째, 품앗이공동육아의 실천은 도시적 양육의 문제에 어떠한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로 제도적·물적 자원은 이들의 실천을 어떻게 한계 짓게 되었는지 그 양상을 조명한다.

동탄은 이른바 '이상계획도시'로 설계된 건조환경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름나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독박육아의 일상이 있었다.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오롯이 핵가족 내에서 구해야만 했던 도시의 부모들은 친족이나 이웃, 마을공동체를 대신하여 사립유치원과 같은 교육·보육시설에 의존하여 왔는데, 비리유치원 사태는 이러한 피상적 관계에 기반한 돌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비리유치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사립유치원-학부모 간 자

본주의적 교환관계를 공고히 한 것일뿐 실제 도시적 양육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립유치원은 그들이 맡은 교육 및 보육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에 집중할 뿐 도시가족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는 없었다.

동탄을 떠나 숲이랑놀자를 만든 7가족의 실천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이질성과 익명성 등 도시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에서 아이 키우기'의 전형적인 양태를 벗어나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의 실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숲이랑놀자는 7가족에게 도시의 틈새에 존재하는 제3의 장소로 기능하였다. 터전에서 가족들은 '도시와 다르게' 행동할 것을 규칙으로 삼아 핵가족의 내밀한 영역이었던 부분들을 서로 끊임없이 '침범하고 침범 당하였다'. '위생적인 환경과 질서있는 생활' 역시 평소보다/도시에서보다 '느슨한 태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숲이랑놀자가 가진 독특한 공간문법이다. 또한 터전에서는 인간적 본능에의 스스럼 없는 표현과 그 표현의 공유가 허용되었다. 도시의 일시적·피상적 관계에서는 알아채지 못했던, 양육은 '완벽한 모성적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엄마들은 함께 목격하였다. 엄마들은 서로가 결국 '나와 같다'는 모습에 위안받았고, 이러한 동일성에의 인식이 숲이랑놀자 7가족 공동체 형성의 자양분이 되었다.

한편,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맞서고 사립유치원에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기획·설립한 조합유치원으로써 동탄 지역을 아우르는 공동육아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숲이랑놀자와 비교하였을 때 10배가 넘는 신규 가족들을 모집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던 7가족의 기대와 달리 규모의 확대는 공동체 내 친밀성의 확보를 어렵게 했다. 조합원들은 저마다 다른 '유치원에 기대하는 가치들'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구성원 간 갈등과 이탈이 반복되어 공동체의 위기가 발생하였다.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물적 자원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확보되어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여러 난관에 부

딪혔다. 조합원들의 자발성은 ‘공동체성의 발로’가 아닌 ‘조합원의 의무’에 기대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조합원의 의무’를 궁극적으로 공동육아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각자 ‘유치원에 기대하는 가치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아닌 ‘조직의 존속’이 우선시 됨으로써 개별 구성원들이 ‘봉사하도록 강요받는 주체’가 되어가는 상황은 큰 문제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숲이랑놀자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을 각기 다른 목표를 지닌 공동육아공동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비록 숲이랑놀자는 폐원하였으나 그 중 5가족은 여전히 일상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 이는 공동육아공동체가 ‘제도에 기반한 실체’가 아니더라도 ‘총체적 돌봄의 관계망’으로써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있어 ‘도시에서 아이 키우기’는 아이 뿐만 아니라 엄마 자신까지 ‘총체적 돌봄의 관계망’ 속에서 개별적 개인으로 주체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공동육아는 이러한 욕구의 실현과 같다. 반대로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접하고 경험하고 실천해 볼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지역공동체로써 의의가 있다. 부모들에게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돌봄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도시에서는 찾기 힘든 이러한 ‘돌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조합이라는 제도적 양식이 정착되지 않아 여러 자원들을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70가족이 기대하는 가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규합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가치들이 경합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익명성과 이질성을 극복하여 ‘친밀한 관계’를 이룩하려는 도시인들과 이와 동시에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가치와 개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도시 지역공동체의 다채로운 양상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도시, 도시 지역공동체, 양육, 공동육아, 사립유치원, 친밀성, 조합
학 번: 2018-28912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문제제기 ····· 1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6

1) 공동육아에 대한 연구 ····· 6

2) 도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 ····· 11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21

1) 연구대상 ····· 21

2) 연구방법 ····· 28

4. 논문의 구성 ····· 32

제2장 동탄신도시와 비리유치원 사태 ····· 34

1. 동탄신도시의 특징과 자녀양육환경 ····· 34

1) 동탄신도시의 특징-전원도시(garden city)의 꿈 ····· 34

2) 동탄의 자녀양육환경-독박육아의 일상 ····· 40

3) 사립유치원-의존과 경계의 사이 ····· 44

2. 비리유치원 사태 ····· 49

1)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분쟁의 시작 ····· 50

2) 유치원 3법 논쟁-규범과 사회적 힘 ····· 57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집단행동-실체가 없는 싸움 ····· 61

제3장 숲이랑놀자와 품앗이 공동육아 ····· 67

1. 숲이랑놀자의 설립이념과 특징 ····· 67

1) 참여한 부모들이 추구한 가치 ····· 68

2) 조직 및 운영 방식-'자질구레한 일들'의 잠식 ····· 72

2. 품앗이공동육아의 실천양상 ····· 76
1) 특화된 형태의 안전과 위생 ····· 76
2) 아이가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 ····· 85
3) 청소와 분업의 실패-내려놓기의 과정 ····· 93
3. 숲이랑놀자의 규칙과 공동체 결성 ····· 102
1) 아이들의 규칙과 평등한 어른-아이 관계 ····· 103
2) 모두의 규칙과 친밀감의 조성 ····· 109
가. 별명과 반말쓰기-복합적 관계의 해체와 우정의 네트워크 형성 ····· 109
나. 갈등 드러내기와 숲이랑 7가족 공동체의 결성 ··· 113

제4장 아이가행복한유치원과 사회적협동조합 ···· 119
1.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의 준비과정 ····· 119
1) 조합유치원의 설립목적-사립유치원과의 차별화 ····· 119
2)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의 운영방식 ····· 126
2.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친밀성 감소의 위기 ····· 133
1) 개원과 함께 닥친 위기-예산부족 문제와 코로나19 133
2) 무지개네 사건-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 141
3. 사회적협동조합과 친밀공동체의 분열 ····· 148
1) 친밀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 ····· 148
2) 5가족의 탈퇴 ····· 158

제 5 장 결론 ····· 166

참고문헌 ····· 173
Abstract ····· 181

표 목 차

[표 1]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운영체계 ····· 33,141
[표 2] 심층면담 피면담자 목록 ····· 34

그 림 목 차

[그림 1] 화성시 행정지도 ····· 29
[그림 2] 숲이랑놀자 전경 ····· 30
[그림 3] 동탄1신도시 공구별 위치도 ····· 45
[그림 4] 숲이랑놀자 모래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 80
[그림 5] 숲이랑놀자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 94
[그림 6] 숲이랑놀자 거실에서 바라본 바깥 전경 ····· 95
[그림 7] 숲이랑놀자 앞길에서 노는 모습 ····· 97
[그림 8] 숲이랑놀자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 104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 전국 비리 유치원들 실명과 사례들이 낱낱이 공개됐다.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자들은 외제차 리스비용부터 단란주점 비용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빼 쓰는 등,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 같은 비리 유치원은 지역별로는 부산이 281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0개, 인천 223개 순이었다. 비리는 모든 지역에서 만연했고 사례도 다양했다. 특히 회계 부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략]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과 사례를 확인한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인터넷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는 비리 유치원을 향한 비난과 성토가 잇달았다. 한 수도권 맘카페 회원들은 "아는 곳은 다 걸렀다. 믿고 보내야 할지" "이름 아는 곳은 (명단에) 다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지역 맘카페 회원은 "내년에 만 3세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켜야 하는데 비리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정보를 구하기도 했다[1].

2018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국감 후 각 시·도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은 235개(4.5%), 사립 유치원은 1,676개(39.1%)로 전국 총 1,911개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를 확인한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을 비롯해 지역에서 유명하고 인기가 높다고 소문난 유치원 대부분이 명단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리유치원 사태'로 명명된 본 사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은 동탄과 동탄의 사립유치원들이었다. 동탄에 소재한 대형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지역 내 학부모들에게 신임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환희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유

1) 매일경제, 2018.10.25., "유치원 돈으로 단란주점... 병원비 860만원·조의금 450만원 '펑펑'"

치원 명의의 체크카드로 숙박업소·성인용품점·노래방 등지에서 결제를 하고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와 명품 가방을 사는 데에 정부지원금을 쓴 것으로 밝혀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분노한 학부모들은 '동탄 비리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했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유치원 교비에 대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 설립자가 정부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2]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비대위는 시민단체

2)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법**은 원래 초·중·고등학교만을 규율하였는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현행법이 규정하는 시설 및 관리의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급식의 품질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유아교육법**(2020년 1월 29일에 개정되어 당해 3월 1일부터 시행)에서는 우선 1)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으로써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곤 했던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2) 시정·변경명령 또는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개하고 3) 유치원운영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학부모 감시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4)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가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시스템이 아닌 수기(手記) 등으로 관리되어 수입 및 지출에 있어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을 사용하게 했지만 사립유치원은 예외였다. 셋째, **사립학교법**에서는 유치원이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측 개

와 연대하여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비리유치원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약속하였지만, 학부모들의 바람과는 달리 유치원 3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고 개정안 통과만 기대하고 있었던 학부모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전과 같이 유치원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매일 같이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를 집에서만 두고 키울 수도 없었다. 당장 자녀를 보낼 곳이 없어진 부모들은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했는데, 일부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개별적인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를 포함하여 한 목소리로 비리유치원을 규탄하던 동탄의 학부모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다른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원래 유치원으로 다시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비리유치원 사태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무렵, 비대위 대표로 활동했던 최명진(가명) 前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대위 카페에 올렸다.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이란 말 그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부모들이 새롭게 뭉쳤고, 기존 사립유치원보다 훨씬 낮은 원비에 수준 높은 교육환경과 건강한 식단,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목표는 "기존의 관료화된 국공립 보육시설과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화된 민간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육아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보육시

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인(私人)인 원장이나 설립자의 각종 비위행태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여 징계권자와 징계대상이 동일한 문제로 비위가 적발되어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설”인 ‘공동육아 협동조합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었다[3].

문제는 유치원 건물이었다. 현행법상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설립자 소유의 시설이나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유치원 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서철모 화성시장이 교사(校舍)를 물색해 보겠다고 나섰고, 얼마 후 협동조합은 화성시 교육청으로부터 공공도서관 건물인 ‘목동이음터’ 1층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게 되었다. 당시 목동이음터는 한창 공사를 하는 중이었고 완공되기까지 1년 여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남은 9명이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고 남은 1년의 시간을 유치원 설립준비에 매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협동조합의 교육팀장을 맡고 있었던 한나가 준비기간 동안 함께 품앗이공동육아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공동육아유치원을 만들기 전에 실제로 공동육아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체득해보길 원했기 때문이다. 조합원 중 한나네와 북극성네, 꽃마리네가 함께 하기로 결정했고 지역 맘카페를 통해 이들과 함께 할 가족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이후 루피네와 종달새네, 아름네, 삐삐네, 써니네, 진주네 가족이 차례로 합류하였다.

이들이 공동육아 터전으로 자리잡은 곳은 주거지인 동탄과 멀지 않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단층 주택이었다. 작은 마당이 딸려 있고 터전 주위에는 등산로로 이어진 산책길이 있어서 공동육아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다(이부미 1999). ‘숲이랑놀자’라는 이름도 붙여주었다. 품앗이공동육아를 하기로 마음 먹은 가족들은 선생님이나 다른 외부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온전히 부모들, 특히 엄마들의 힘만으로 터전을 꾸려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초기 공동육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협의 하에 당번을 정하고 일을 분담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아이들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하루가 멀다하고 불편을 토로하거나 다툼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공동육아의 이상을 품고 모였던 가족들 사이에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

3) 본 내용은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네이버카페에 게시된 ‘협동조합유치원설명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였다.(https://cafe.naver.com/dongtanbidaewe)

작했다. 개원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름네와 삐삐네 가족이 숲이랑놀자를 떠났다. 남은 가족들은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제대로 봉합할 새도 없이 목표를 향해 지칠 틈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2019년 6월,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정식으로 조합원이 된 가족들은 원장 및 교사 채용, 신규조합원 모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조합 조직체계나 운영 방식, 공동육아 교육과정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도 참여하여 '사립유치원의 대안적 모델이 되는 유치원 만들기'를 실천하였다. 숲이랑놀자의 7가족은 평일 낮에는 품앗이공동육아를,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조합 업무(아이가행복한유치원 개원준비 등)를 병행하며 그야말로 쉴 틈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이상 서술한 내용은 비리유치원 사태 및 이후 동탄신도시에서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개괄한 것이다. 다소 길게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1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사태의 촉발과 관련법 개정, 새로운 유치원의 준비와 탄생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대기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구분하자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는 사태의 발발과 비대위의 결성 및 활동,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는 숲이랑놀자 품앗이공동육아, 2020년 3월부터 공동육아유치원이자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인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의 개원과 본격적인 시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리유치원 사태가 촉발되었을 무렵 연구자 역시 동탄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또래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왜 동탄이 비리유치원 사태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동탄의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유치원을 만들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가? 부모들이 만든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비리유치원 사태는 연구자가 우연히 지역 사회에서 접하게 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은 연구자가 동탄이라는 도시의 자녀 양육 환경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동탄 부모들의 실천적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2018년

10월 국회 현장에서부터 숲이랑놀자를 거쳐 아이가행복한유치원까지의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본 연구가 던지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세 가지이다. 첫째, 동탄신도시 '숲이랑놀자 품앗이공동육아' 및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들 터전 및 유치원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둘째, '숲이랑놀자'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과 돌봄 실천들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실천들은 도시의 육아공동체 형성과 어떻게 관련 맺고 있는가? 셋째, '숲이랑놀자'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동탄이라는 도시 지역공동체의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공동육아에 대한 연구

공동육아는 말 그대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뜻으로, 1970년대 말 저소득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던 대학생들의 봉사 집단인 '해송 어린이 걱정 모임'과 '공동육아연구회'를 모체로 한다.[4] 이들은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들도 공평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대적·획일적 제도교육 아래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하며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였다. 아이들의 교육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넘어 공동체적 연대 위에서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육실험들을 추진했다(정병호 1998). 1994년에는 최초의 조합형 어린이집인 '신촌 우리 어린이집'이 개원하였다. 1996년 6월에는 공동육아연구회가 사단법인 공동육아연구원(현재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으로 정식 발족하여 현재까

4) 본 내용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홈페이지(http://www.gongdong.or.kr/)에 소개된 '공동육아의 역사'를 참조하였다.

지도 공동육아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의 공동육아 터전들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이부미 2001).

공동육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현존하는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교육의 한 갈래로써, 혹은 선구적 교육 실험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 공동육아에 대한 연구들은 공동육아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독특한 교육방식들을 우선 소개하고, 이것이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각각 어떻게 의미화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한다.

예컨대 이부미(1999)는 교사와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 기록하고 주고 받는 일종의 연락장인 '날적이'와 아이들이 매일 일정 시간 바깥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나들이' 활동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천들이 어떠한 교육적 가치들을 지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날적이'는 아이의 하루 일과나 그날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적어서 부모와 교사가 주고 받으며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부미는 이러한 '아이에 대해 쓰는 행위'를 통해 부모가 '아이는 잘 커가고 있나?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반추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부단한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설명한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최철규(2012) 역시 '날적이를 쓴다'는 행위는 하나의 "반성적 글쓰기"로써 부모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한다. 부모는 날적이를 쓰면서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종합"하게 되는데 이는 곧 부모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날적이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과 아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날적이를 쓴다'는 것은 자신과 타자, 두 주체를 마주하는 것이며 그 간극 사이에서 자아성찰적이고 능동적인 '성인학습자'가 탄생하게 된다고 최철규는 설명하고 있다. '날적이를 쓴다'는 행위에 대한 이러한 분석들은 숲이랑 7가족이 함께 쓴 '숲이랑놀자 공동육아 기록'의 도구적 측면을 분석하는 틀이 된다.

품앗이공동육아의 특성상 숲이랑놀자 엄마들은 거의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상을 나누었고, 일과가 끝난 후에는 구성원 중

한 명의 집으로 ‘마실’을 가서 또 그곳에서 저녁 늦게까지 공동육아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에 대개 아빠들은 빠져있었다. 아빠들은 주말이나 평일 저녁 등 생업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함께하곤 했지만, 그러한 날은 ‘아빠데이’나 대청소 등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며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돌봄 노동에서는 사실상 제외되어 있었다. 그 결과 부부 사이에서도, 나아가 공동육아 테두리 안에서도 실제로 ‘공동육아를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숲이랑놀자 공동육아 기록’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쓴 날적이였다. 서로가 쓴 글을 읽는 행위를 통해 ‘공동육아를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숲이랑놀자 공동육아 기록’은 터전에서 일어난 구성원 개개인의 ‘성찰’과 ‘부단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김미란(2016)의 연구는 ‘나들이’와 공동체적 관계에 대한 주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최근 숲체험 활동을 비롯해 자연친화교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나들이’와 유사한 방식의 바깥놀이 활동이 공동육아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그 활동의 의미와 범위가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다. 김미란은 일반 어린이집에서의 야외 체험 활동은 일주일이나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벤트’인데 반해, 공동육아어린이집의 매일 오전 일과를 구성하는 ‘나들이’는 아이들의 일상이 “자연생태계 뿐 아니라 사회생태계의 차원으로 확장, 통합”되는 과정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어린이집 문을 나선 아이들이 자신이 속한 공간으로서의 자연과 이웃, 지역사회를 대면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유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에 나들이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나들이’의 시작과 끝, 시간의 구성은 교사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외적 존재와 끊임없는 조정과 협상을 거친다. 날씨가 좋으면 평소보다 더 멀리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이 원한다면 다른 길이나 목적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변을 탐색하면서도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김미란은 ‘나들이’에서 이루어

지는 이러한 상호작용, 공존과 공생의 실천이 생태주의 윤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적 관계 교육'과 맞닿아 있음을 주장한다. '나들이' 활동이 아이들을 사회생태계로 이끌고 더불어 공동체적 관계를 확장시킨다는 김미란의 주장은 도시에서 '익명의 타인(anonymous)'이나 '익숙한 타인(familiar stranger)'과 거리두기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가족 외의 사람들'과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는 숲이랑놀자의 공동육아 실천 양상과 유사하다(Fischer 1984; Milgram 1970).

공동육아의 정체성을 대안적인 교육체제의 한 분야에 남기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재정립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공동육아어린이집들의 고민과 혼란의 시기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초기 공동육아의 정체성이 기존의 제도적·영리적 교육방식과의 차별화를 통해 부각되고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면,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양적 확산은 '그들만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던 공동육아공동체에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터전공동체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육아 교육을 실천하는 것", 즉 마을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확장은 공동육아의 새로운 흐름이 되었으며 개별 구성원들의 운동적 실천(movement)에 영향을 주었다(오채선·이부미 2019).

공동육아어린이집이 마을공동체로 의미를 넓혀간다는 것은 동시에 개별 가족이 지역사회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이다. 공동육아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함께 잘 키워보자는 가족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일견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개별 가족이 '공동체적 가족'으로, '공동체적 가족'이 지역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분열의 양상은 공동육아적 실천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필요로 하였고, 이러한 양상을 분석한 아래의 논의들은 본 연구에서 숲이랑 7가족이 1년 여의 품앗이공동육아 생활 끝에 자신들을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같은 희한한 관계"라고 칭한 맥락을 분석하는데 좋은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였다.

류경희·김순옥(2001)은 공동육아 구성원들 간의 관계양상을 "情의 관계"로 지칭하며,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어떻게 핵가족화된 도시 사회에서

대안적 가족생활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적 가족’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속한 가족들이 ‘공동체적 가족’을 형성하는 데에는 “투자와 화합, 관계형성, 갈등과 극복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가족들은 불만을 갖고 탈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합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합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구성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개별 구성원들의 ‘양적 시간투자’는 공동육아 참여에의 의지이자 ‘공동체성의 잣대’로 해석되기도 한다. 조합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가족 간의 화합과 관계 형성에서 뒤처지게 되며 이는 “공동육아가 지향하고 있는 큰 틀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동체로부터 밀려나게 된다. 또한 조합원으로서 주어진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가족 간의 모임에 참여하고 교류하며 개별 가족들 간 “들여다보기”와 “개방하기”의 과정을 갖는 것 등도 친밀감을 증대시켜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는 조합원들을 기계적인 역할관계에서 “情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더 큰 집단에서의 “가족적 체험”을 가능하게 만들어 조직의 존속에 도움을 준다고 연구자는 설명하고 있다.

도시화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전통적 공동체가 사라진 한국사회에서 다시금 새로운 육아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와 시도는 많은 부모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지만,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전까지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다른 유아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도 못했다. 따라서 공동육아는 대중들에게 대안교육의 일종 혹은 ‘그들만의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고, 공동육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역시 공동육아가 자체적으로 발전시켜온 교육프로그램이나 공동육아활동에 따른 효과성 분석,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경험 및 실천사례 공유 등 공동육아공동체의 관계망 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집중되어 있었다(김미란 2016, 김주현 2000, 류경희·김순옥 2001, 오채선·이부미 2019, 이부미 2001, 정병호 2000, 정혜선 2010, 최철규 2012).

공동육아는 분명 한국 유아·아동교육 분야의 한 편에서 독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활동이 한국사회의 현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아니다. 공동육아를 대안적 사회운동의 한 갈래로 본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유아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보다 다양한 범주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제는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초석으로 정체성을 확장시키고 있는 공동육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속한 사람들의 실천 역시 도시라는 공간적 맥락에서 접근되어야만 그 행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유치원인 아이가행복한 유치원이 '동탄신도시'에서 탄생했다는 점과 '동탄신도시에 사는 가족들'이라는 연구대상자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들이 동탄의 다른 일반 유치원이 아닌 공동육아유치원을 찾아오게 된 배경과 공동육아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및 관계양상을 도시공동체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도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

공동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동체 개념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한편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도시민들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한다. 현대인의 생활 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지속적으로 옮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지역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김미영(2015)은 지역이라는 '실체'가 "사회적 관계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은 그 자체로 공동체의 관계적 요소인 "무언가의 공유"를 포괄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공동육아, 공동주거 운동, 공동 밥상 운동, 작은 도서관 만들기와 같은 마을 단위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생활 지원에 일조하는 실천 공동체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현상 역시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나이나 성별, 계급, 관심사나 취향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 자체로 개인-개인 간 교류 및 자원의 공유가 자연스레 생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공동체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어떠한가? 전통적 공동체에서 연결망 형성의 고리 역할을 하던 요소들 - 에컨대 지연, 학연, 혈연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거나(정형호 2011; 최경애 2016)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곳을 찾아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요인들을 분석하는 논의들이 중심을 이루는데(박병춘 2012), 특히 이들 성공 사례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어떠한 요소들이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는지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김경희 2013; 오윤경 외 2013; 정규호 2013). 그러나 마을기업/협동조합과 지역공동체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러한 논의들에 따를 때 공동체란 곧 서로가 가진 자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을 통해 그 개념이 결정되어버리고, 공동체에 투영된 각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그에 따라 변모해 나가는 공동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자원의 분배'가 아닌 개별적 개인들에 집중한다. 구성원들이 그들 스스로를 '공동체'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인-개인 사이의 상호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의 정의'를 다시금 환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지역공동체에 부착된 '제도적 양식'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기존 논의들과 반대로 그것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미시적으로 관찰하고자 아래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도시인들의 사회적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도시의 생태적 조건 및 그에 따른 도시적 특성에 주목하는 사회학 및 인류학의 논의들은 '도시에서 아이 키우기'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공동체가 생성되는 배경으로써 도시 공간의 주요 특질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어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한 내·외부적 조건들을 탐색한 한국 도시 지역공동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도적 양식이 도시 지역공동체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

는 본 연구의 논점을 도출한다.

루이스 워스(Louis Wirth 1938)는 도시를 익명성과 무질서가 가득한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은 낯선 사람들(strangers) 사이의 관계에 의해 특정된다고 주장했다. 도시에서도 촌락이나 기타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친밀한 사회적 유대(social ties)가 존재하지만, 특히 '이질적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도시생활의 본질적이고 문제가 되는 특질(quality)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워스는 도시생활에서 기존의 친족관계나 이웃관계의 중요성은 약화되는 반면 비인격적(impersonal)·도구적 관계가 우세해지며 그에 따라 개인들도 도덕규범이나 도덕적 합의에 대한 집단적 상실을 경험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착안하여 샐리 잉글 메리(Sally Engle Merry 2018)는 우범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며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다루고 나아가 익명성이 어떻게 범죄를 촉진시키는지를 민족지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메리가 연구한 곳은 중국계, 시리아-레바논계, 히스패닉계 및 흑인과 백인 뒤섞여 사는 지역이었는데, 거주지만 인접할 뿐 개별 인종 집단(ethnic group)으로만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집단 내 개인적 유대와 교우관계가 더 강할수록 '인종이 다른 가까이 사는 이웃'보다 '멀리 살더라도 같은 인종집단'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라 인종집단 간에 사회적 경계(social boundaries)가 지어짐으로써 익명성은 높아졌고, 결국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야할 집과 마을, 거리가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위험한' 공간이라고 주민들은 느끼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덕규범 혹은 도덕적 합의가 다른 외집단을 마주할 때 본능적인 경계심을 품기 때문이다. 범죄의 실제 빈도와 상관없이 일상의 익명성이 '위험을 인식'하는데 더 높은 영향을 준다는 메리의 주장은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동탄신도시'가 물리적·환경적으로 매우 안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역시 특수한 방식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며, 나아가 워스가 주장한 익명성·피상성·일시적 관계 등 도시적 생활양식의 맥락에서 본 논의가 이

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2010) 역시 '공포를 배태하는 공간'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우범지대나 빈민가뿐 아니라 '게토(ghetto)화된 주거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식되는 '이방인'들로부터의 물리적 분리는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도피'에 불과할 뿐 도리어 '타자성'을 강화시켜 도시인들의 "이질 공포증(mixophobia)"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바우만은 이러한 이질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동일성의 공동체(community of sameness) 속으로 숨어" 들게 되는 바, 이는 이방인을 "더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외계의 존재"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위험에의 인식'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도시라는 공간에서 나와 타인의 물리적·관념적 구분이 '공포를 유발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바우만의 주장은, '내 아이를 맡긴 유치원'이 '같은 공동체'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드는 부모의 행위가 실제 그들의 불안을 해소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오히려 '비리유치원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으로써 사립유치원-부모 간에 존재하는 '의존과 경계'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도시학자들이 도시를 '공포의 공간'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2010)는 혼란하고 불확실한 도시 공간 안에서도 분명 "복잡한 질서"가 내재하며 그것이 "특화된 형태의 안전"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제이콥스는 도시의 거리, 즉 '보도'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아이들이 집과 떨어져 깨끗하지만 조용한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노는 것보다 오히려 집 앞 보도에서 노는 것(제이콥스는 이를 '비공식적 공중의 보도생활'이라고 칭한다)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하였다. 왜냐면 보도에는 '공식적'인 공간인 공원과 놀이터에는 없는 '항시 거리를 돌보고 참견하는 인물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를 지나가는 이용객들과 보도를 바라보는 수많은 창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하는 '공적 인물'이 된다. 제이콥

스는 ‘공식적인 공간’을 지키기 위해 “돈 주고 산 대체물”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효과적이지도 않은지를 지적하며 “보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손수하기 식 감시(do-it-yourself surveillance)”가 “특화된 형태의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제이콥스의 개념을 빌어 숲이랑 7가족이 동탄신도시에서 벗어나 숲이랑놀자 터전에서 찾고자 한 ‘특화된 형태의 안전과 위생’에 주목한다.

공동육아에 관한 연구들에서 ‘터전’은 주로 자연친화적 학습환경 혹은 생태적 교육을 위해 ‘선택’된 공간으로 여겨지는데, 본 연구는 도시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특화된 형태의 안전과 위생’이나 “특화되지 않은 놀이(Jacobs 2010)”의 맥락에서 7가족의 독특한 실천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면담자들은 동탄신도시를 벗어나 여전히 ‘미개발 지역’의 모습을 띄고 있는 장소에서 공동육아 공간을 찾았고 이곳에서 ‘옛날의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길 원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실천한 공동육아는 일반적인 공동육아의 모습도 아니었고 ‘옛날 마을공동체’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들은 ‘숲이랑놀자’에서 자신들만의 공간문법을 창조하고 전유하였는데,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 맺음이 “물리적인 실현 매체”를 통해 구현된다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2011)의 관점에서 숲이랑놀자를 탐색하고자 한다. 르페브르는 ‘재현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규범화된 일상의 행위들을 하거나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생산에 기여하는 공간적 생산들과 구분하여 ‘처음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전유’될 수 있는 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르페브르의 관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항적 실천이자 대안적 실천으로써 일종의 ‘기획’된 공간인 ‘숲이랑놀자’에서 어떠한 공간문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숲이랑놀자’라는 재현공간을 통해 도시공동체를 만들려는 7가족의 시도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겪으며 기존의 혈연과 마을 중심의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된 후 새로운 관계와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공동체’를 만들어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한 역사적 맥락과 맞

닿아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경제적 계층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오로지 생존을 위해 모여 살던 한국의 도시에서는 일종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자연스레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도시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소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정규호 2012).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들도 공동체를 이루는 구심점, 즉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써 공동체 내·외부에 존재하는 요소들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이승수·이규빈(2012)은 '고향을 매개로 한 도시공동체 연구'라는 주제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경남 합천군 율곡면 출신 사람들의 모임인 '재경율곡면향우회'의 창립배경과 활동내용을 탐색하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결속의 기회"들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대관계를 지속·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재경율곡면향우회는 이름처럼 율곡면 출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회가 가능하고, 조직 내 상부상조로써 서로의 경조사에 참여하거나 체육회를 열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모임의 목적으로 '향토사업 발전'을 규정하여 합천군의 기관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고향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향우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연구자는 향우회가 단순히 "서울이라는 도시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 고독감, 열등의식 등으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심리적 탈출구의 필요성"에 의해 창립된 것만은 아니며,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상부상조"를 통해 새로운 집단이 창조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향우회'는 한국 도시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고향에서의 관계, 즉 동창이라는 이름의 횡적 관계와 선후배 사이라는 종적 관계가 공동체 내 친목과 유대를 지탱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관습적 결속관계가 없는 도시공동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향우회에는 후배는 선배에게 깍듯이 예의를 차리고 선배는 후배에게 말을 놓는 등의 "불문율"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고향에서 사람들 간 관계 맺던 방식과 동일하다. 이러한 소통방식에 사람들은 일종의 향수와 안정감을 느끼고 자연스레 모임에 스며

들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과거 고향에서 존재했던 관계들을 자양분 삼아 재집단화한 것으로써 '새로운 구심점'을 찾고자 하는 일반적인 도시공동체 논의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정헌목(2017)은 도시에서, 특히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주민들 간 반목과 분열의 사례들을 통해 공동체 형성의 조건들을 탐색하고 있다. 한국 도시의 경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단지 아파트들인데, 많게는 수천 세대 이상의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은 얼핏 보기에는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는 "무관심의 문화"가 통용되는 아파트 공간에서 단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성'의 존재만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사람들을 자극시켜 불편한 감정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가 되면서 아파트 내 주민들 간의 분열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공간은 결국 "삶의 공간"이며 따라서 여전히 "다양한 가치"들을 기반으로 삼아 공동체가 형성될 잠재성이 있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자본주의적 교환관계에 익숙한 도시의 환경에서도 새로운 매개체를 동반한 공동체적 관계형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정성훈(2011)의 연구는 새로운 매개체로써 '친밀성'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그는 도시공동체를 "익명적 관계가 지배적인 현대 도시의 조건에서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공동체"로 정의하고 도시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연결고리, 즉 개별적 개인들을 공동체로 묶어주는 동력으로써 '친밀성'을 강조한다. '친밀성'은 구성원들 간의 '개체성'과 "긴밀한 전인격적 관계"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형성되는 도구적 공동체와 차별화 된다. 정성훈은 도구적 공동체와 비교하여 이를 '친밀공동체'라고 부르며, '친밀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은 사회에서 주어지는 특정한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각자의 "개체적 인격"으로 관계를 맺으며 부부관계나 가족 관계를 넘어 "우정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은 앞서 공동육아협동조합 참여를 통

해 조합원들 간의 관계가 “情의 관계”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더 큰 집단에서의 “가족적 체험”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던 류경희·김순옥(2011)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정성훈(2013)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 마포구 성미산마을과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마을을 도구적 공동체에서 친밀공동체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성미산마을과 재미난마을은 모두 지역공동육아모임에서 시작하여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공동체로 자리잡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도구적 공동체, 즉 육아공동체나 교육공동체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결사체는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란다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연스레 해체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미산마을과 재미난마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을식당, 공동주택” 등 마을 단위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초보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며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보적 공론장”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잠재력은 실상 우리나라 도시공동체운동의 흐름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1960년대 한국의 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에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고 조직화된 단체의 힘을 빌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정규호(2012)는 이러한 도시공동체들의 조직과 활동을 ‘운동적 실천(movement)’으로 정의하면서 도시공동체운동을 “근대적 도시화 과정이 만들어 낸 부작용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도시화가 만들어낸 조건과 바탕 위에서 공동체적 삶의 원리를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하며 한국 사회 도시공동체 형성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규호는 한국의 도시공동체운동을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이 가진 시대적 조건 및 과제들과 연계하여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숲이랑놀자 7가족의 공동체 형성과정을 도시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좋은 관점을 제공하였다. 우선 1960-70년대는 달동네를 중심으로 도시 빈민들

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된 '적응형 도시공동체운동'이, 1980년대는 도시 공간의 개발과 확장으로 도시 바깥으로 밀려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삶터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저항형 도시공동체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1990-2000년대 초반에는 중산층의 등장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권을 지키고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방어형/창조형 도시공동체운동'이 생겨났고,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에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중심의 '협력형 도시공동체운동'이 대두되었다. '협력형 도시공동체운동'은 도시의 공간을 투자와 개발의 무대가 아닌 실제적 삶의 터전으로 바꾸려는 목표 아래,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되어왔던 각종 관 주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과 민간영역이 각자 구축해 온 경험과 자원들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정규호는 설명하고 있다. '운동'적 의미로서 도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는 정규호의 작업은 전통적 공동체 및 일차적(지역적·친족적) 관계를 기대하기 힘든 신도시적 조건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성격과 의의를 조망하는데 도움이 된다. 집단이 '운동'적 성격을 갖게 됨으로서 공동체는 기존의 주어진 내·외부적 조건들에 좌우되기보다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조직의 목표와 방향이 개개인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 전체 사회적 의제와 맞물리게 된다는 뜻이다. 이로써 개인은 집단으로, 집단은 지역공동체로, 지역공동체는 다시 공공으로 연결되고 포섭된다. 개인의 필요와 욕구가 곧 '공공영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이다.

이와는 반대로 '초보적 공론장'으로서의 잠재력이 '안에서 밖으로'가 아닌 '밖에서 안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 박주형(2013)은 '도시공동체'를 둘러싼 일련의 정치기획들이 '마을'이나 '공동체'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낭만화함으로써 '공동체를 통한 통치'를 작동시키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지적한다. 박주형은 최근 서울시를 비롯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국가의 방식이 영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새롭게 재배

치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하나의 통치도구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박주형에 따르면 공동체 안에서 '마을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도록 강요받는 주체(entrepreneurial subject)'이자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강요받는 주체(volunteering subject)'"로써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도록 기대되며, 그것은 다른 누구의 강요도 아닌 공동체 구성원 자신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조의 노력"을 통해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박주형은 이러한 '마을일꾼'의 모습을 김홍중(2009)의 묘사를 빌어 "성실하고, 실천적이며, 강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방종과 안일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자기규율적 존재로 스스로를 조련하며, 자신의 욕망과 육체와 감정과 단점을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기업가적 자아(entrepreneurial self)'"로 설명한다. 이로써 마을공동체는, 도시적 삶의 피폐함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의 "권력의 도구로서 전유하려는, 이른바 '공동체를 통한 통치(government through community)'"가 이루어지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박주형의 연구가 '공동체는 무엇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앞선 연구들과는 맥락을 달리하지만, 관 주도의 하향식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도시공동체의 현실에서 '민관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오히려 허울 뿐인 도시공동체가 생겨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요구되는 바, 이는 때때로 각 구성원들의 주체적 실천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다른 사립유치원들과 달리 조합원인 부모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초보적 공론장"으로써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품앗이육아공동체(숲이랑놀자)라는 '친밀공동체'으로부터 조합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분열은 '공동체는 무엇을 매개로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을 '구성원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합이라는 제도적 양식이 과연 도시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를 품앗이육아공동체인 숲이랑놀자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이러한 지원을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기능한다. 공동육아유치원의 입장에서도 ‘조합’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외부의 동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상 조합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상호 간의 관계 맺기 방식’은 기존의 도시적 교환관계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나아가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공동육아유치원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며,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제도적 지원이 도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탐색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오산시의 ‘숲이랑놀자’ 및 경기도 화성시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 활동한 7가족의 공동육아공동체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두 연구현장은 행정구역상 각기 다른 도시에 속해 있지만 차로 이동했을 경우 20분 내외가 소요되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두 도시가 경계를 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도시의 경관은 매우 달랐다. 숲이랑놀자가 있었던 오산시 세교동은 평탄한 지형에 농경지와 소규모 공장, 식당, 오래된 주택들이 혼재되어 분포하고 있었고,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자리한 화성시 목동은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학교, 근린공원이 조성된 신도시였다.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두 도시의 전경이 이렇듯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의 상이한 국토개발정책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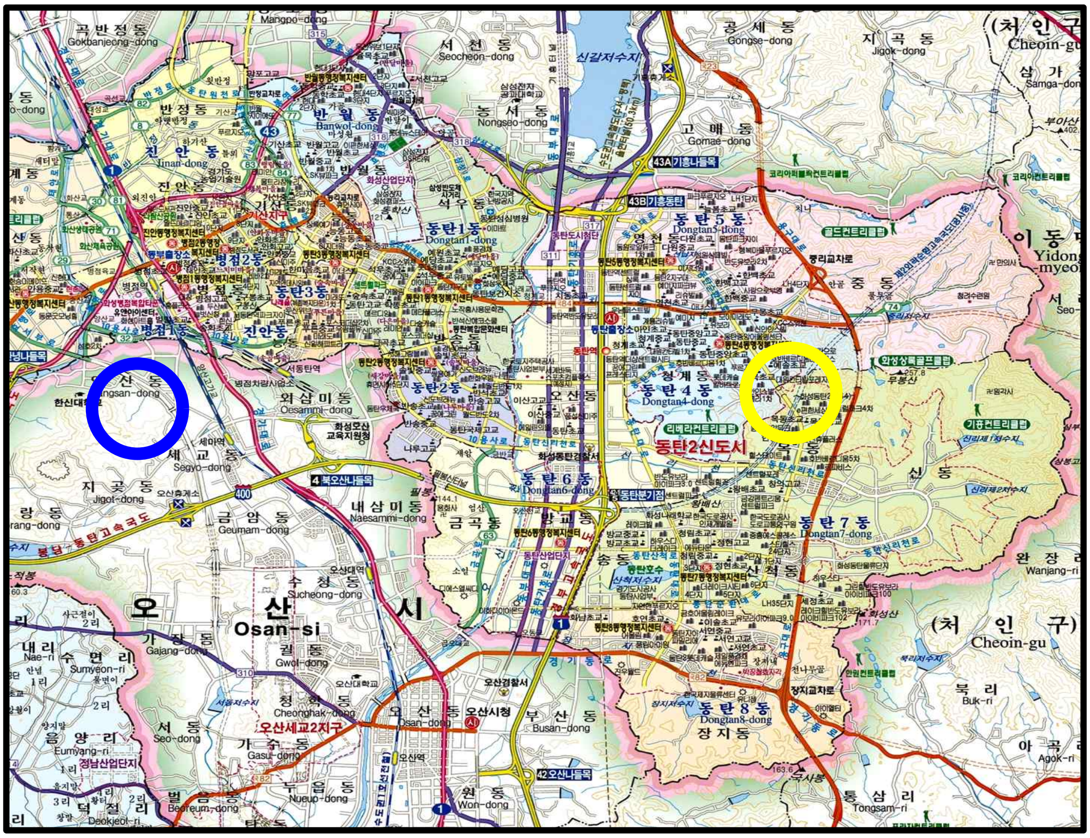

그림1. 화성시 행정지도 (화성시 홈페이지)

그림1에서 노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소재한 곳이고, 파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숲이랑놀자가 있었던 곳이다. 오산시는 과거 오산읍으로 화성군에 속해 있다가 1989년에 오산시로 분리·승격되었다. 오산시청이 자리한 중앙동은 과거 화성군청 소재지이자 읍소재지로 행정·문화·경제의 전통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며 지금은 오산우체국, 오산문화예술회관, 고용복지센터, 전통시장인 오색시장 등이 소재하고 있다. 또한 하천 유역에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논농사를 짓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전통적으로 논농사를 생업으로 하였다. 2000년대 들어 수도권의 팽창과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은 오산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인구의 수용을 위해 1호선 전철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

파트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오산 지역을 지나는 1호선은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서동탄역이 있다. 이들 전철역에 인접한 금암동, 수청동, 세교동 일대가 세교택지개발지구로 지정·개발되었고,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경제 중심지들이 형성되었다.[5] '숲이랑놀자'가 있었던 곳 역시 세교동이었지만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제외된 곳이었다. 세교동 인근은 지금도 여전히 논농사 지역으로 이용되거나 마을 뒤편에 위치한 등산로를 오가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이 성업 중으로 '미개발지역'의 경관을 갖고 있다.

그림2. 숲이랑놀자 전경(아이가행복한유치원 네이버카페)

동탄신도시는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역으로 화성시의 동쪽 끝에 위치한다. 과거 화성시가 화성군이었던 시절 동탄면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이 지금의 동탄신도시가 되었는데 오산천을 기준으로 서쪽은 동탄1신도시, 동쪽은 동탄2신도시로 구분한다. 동탄1신도시는 과거 동탄면 반송리·석우리·태안읍 능동(총 면적 9㎢) 일대를 포함한다. 2003년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2021년 1월 기준으로 약 13만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2008년부터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반

5) 세종대학교 박물관,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물』, 2005

송동·동탄면 일원(총 면적 24㎢)이 동탄2신도시 부지로 지정되어 건설이 시작되었고 현재 약 24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6]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동탄2신도시,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성시 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립 도서관인 목동이음터 1층에 입주해 있다. 주위에는 최근 2, 3년 사이에 완공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과 근린공원이 있다.

다른 도시에 속한 두 보육시설이 함께 연구대상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설립목적과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보육시설 사이에 동일성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보육시설의 전신(前身)은 비리유치원 사태 당시 사립유치원 및 한유총을 규탄하고자 동탄 소재 유치원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동탄 비리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다. 비대위는 완전히 해체되었지만 그 중 일부가 남아 '부모가 직접 만드는 유치원'을 기획하였는데, 이러한 기획 하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숲이랑놀자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다. 숲이랑놀자는 2019년 3월에 개원하여 2020년 2월에 폐원하였고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2020년 3월에 개원하였다. 숲이랑놀자의 7가족들은 모두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으며 숲이랑놀자가 문을 닫은 후 아이들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으로 입학하였다.

숲이랑놀자는 원래 단층 짜리 일반 주택이었는데,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름과 건물만 있을뿐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의 범주에 드는 정식 보육시설은 아니었으며 뜻을 함께하는 엄마들이 모여 서로의 육아를 도와주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육아'에 가까웠다.[7] 공동육아를 하는 공간은 '터전'으로 불리는데 이는 여타의 보육시설과 달리 어른과 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생활공간'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7가족 역시 자신들의 공간을

---

6) 인구 현황은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intro.jsp), 총 면적 및 개발 부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7) 정혜선(2010)은 품앗이육아공동체를 "전업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육아·놀이·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로 설명한다. 품앗이육아공동체는 공동육아의 이념과 맥을 같이하지만 장소 마련이나 출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공식기관에 취학할 나이가 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동육아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

‘터전’ 혹은 줄여서 ‘숲이랑’이라고 지칭했다.

터전에는 따로 선생님을 두지 않았다. 대신 엄마들이 당번을 정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돌아가며 출근하여 아이들과 생활하였다. 출근하지 않는 엄마는 터전에 아이를 맡기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등하원 시간은 없었는데 대체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터전으로 와서 간식과 점심을 먹고 4시쯤 각자의 집으로 가거나 한 명의 집을 정해 ‘마실’을 갔다. 아이들은 등원을 하면 각자 옷정리를 한 후 실내나 마당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놀이를 하면서 놀았고, 엄마들 역시 안전상의 위험이 없는 한 아이들의 놀이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근처 산이나 숲으로 나들이를 갔고, 한달에 한번씩 온가족데이나 엄마데이, 아빠데이를 열어서 평일에 참여가 어려운 아빠들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모여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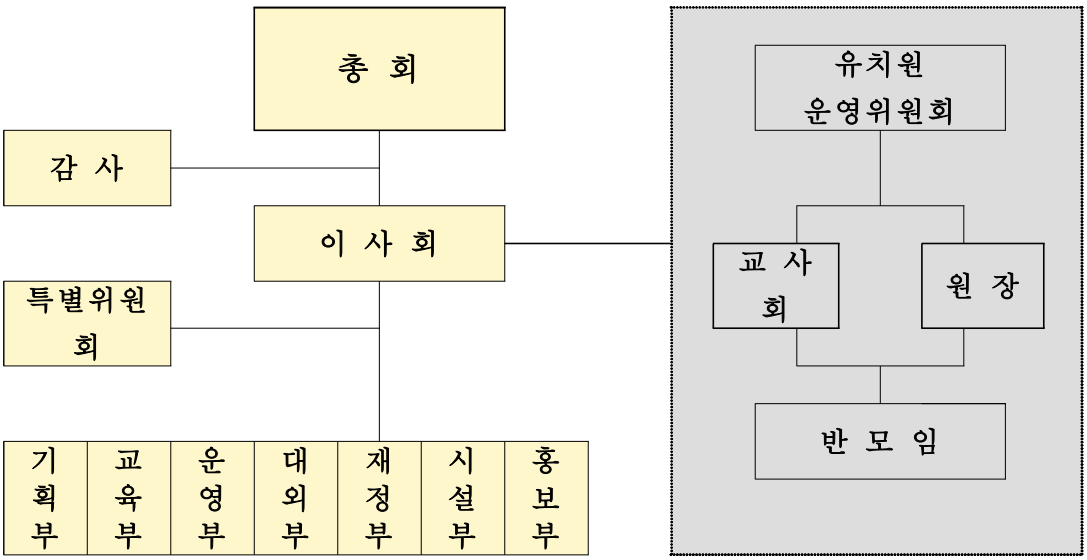

표1.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운영체계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길라잡이)

한편,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이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하

는데,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인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유치원)이 만든 협동조합유치원이다. 따라서 개인이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사업상의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의 일반 사립유치원들과는 차이가 있다.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으로 유치원을 만들고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한다.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사업 준비금, 사업 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유치원 계좌에 적립한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1 가구당 400만원의 출자금을 내야 하고 "유치원의 교육철학, 운영방식, 학부모 참여에 대한 동의, 참여의지를 확인하는 절차"[8]를 거쳐야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아이가행복한 유치원은 공동육아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모 참여활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기존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과 거의 동일한 내용 및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8시 30분부터 오전 일과를 시작하는데 주로 나들이 및 바깥놀이, 전통놀이와 공동체놀이로 진행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방과후 과정이 시작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일과 외 시간이라도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신청하여 아이를 맡길 수 있다. 5세에서 7세까지 총 5개 학급이 있고 최대 총 70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다. 조합의 운영체제는 위의 표1과 같다.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원장을 포함한 교사회가 주관하고, 그 외 유치원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들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모든 조합원들이 1개 이상의 소위원회에 속하여 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유치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써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숲이랑놀자의 7가족들 역시 부모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 및 유치원 운영 전반에 참여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조합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직원 조합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조합원 중 면담에 참여한 사람들은 위의 표2와 같다. 숲이랑놀자와 아

8) 기존 조합원들이 신규 조합원을 만나 조합의 운영원리 및 교육이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별명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들이 '별칭문화'를 쓰는 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쓰는 평어문화, 즉 반말을 쓰는 문화 역시 차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숲이랑놀자에서도 어른, 아이 구별없이 서로에게 모두 반말과 별명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도 숲이랑놀자의 일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별명과 반말을 썼고 심층면담 당시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반말을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를 위해 피면담자들 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이름/별명을 새로운 이름/별명으로 바꿔서 작성하였다. 새로운 별명 역시 기존 별명들처럼 애니메이션 캐릭터, 동화 주인공, 기타 자연물 등에서 임의로 가져온 것일 뿐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별명	성별	연령	자녀	지역	숲이랑 놀자 참여 여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의 역할
북극성	남	40대	새미(여/5살), 리오(남/3살)	동탄1	O	이사장
오로라	여	40대			O	직원조합원
한나	여	40대	볼트(남/6살), 통통이(남/2살)	동탄1	O	前 직원조합원
꽃마리	여	30대	맥스(남/5살)	동탄1	O	前 직원조합원
써니	여	30대	레오(남/5살)	동탄1	O	前 부모조합원
루피	여	40대	아리엘(여/5살)	동탄1	O	前 부모조합원
진주	여	40대	소피(여/5살), 루비(여/5살)	동탄1	O	前 직원조합원
종달새	여	30대	꽃님(여/4살), 별님(여/2살)	동탄2	O	부모조합원
깊은산	남	40대	밝히지 않음	동탄2	X	대외이사

표2. 심층면담 피면담자 목록

북극성은 비대위 대표이자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다. 북극성과 오로라는 부부이며 오로라는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깊은산의 가족은 숲이랑놀자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조합 결성 초기부터 대외이사의 직책으로 유치원의 교육과정 설계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였다. 나머지 6명의 엄마들은 모두 자녀들과 함께 숲이랑놀자에서 품앗이공동육아를 실천했다. 표2의 연령, 지역,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의 역할은 면담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2) 연구방법

2019년 9월, 연구자는 비리유치원 사태 당시 동탄비대위에서 활동했던 부모들 중 일부가 모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합의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북극성 이사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북극성 이사장은 비대위 당시 위원회 대표를 맡아서 사립유치원을 규탄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했으며 각종 언론 인터뷰에 나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에 비판을 쏟아낸 인물이다. 유치원3법 통과가 무산되자 '부모가 직접 만드는 유치원' 설립을 기획·제안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에 앞장섰다. 그는 뜻을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 '숲이랑놀자'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공동육아를 배우는 동시에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구자를 터전에 초대하였다. 공동육아와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직접 와서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에서였다.

북극성은 내게 한나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그가 자신 못지 않게 유치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는 숲이랑놀자에서 생활하던 7명의 엄마 중 한 명이자 아이들의 선생님, 교육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전화상으로 연구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더니 흔쾌히 방문을 허락하였다. 첫 방문일은 10월 24일이었다. 이미 여러 방송사 및 신문사에서 유치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녀갔기 때문에 엄마나 아이들 모두 낯선 사

람의 방문에 대해 크게 꺼려하지는 않았다. 다만 엄마들은 언론을 비롯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자신들의 신상이 부득이하게 노출되었다는 점, 이음터 건물을 쓰는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연구자에게 부탁했다.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서 연구가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본인 또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써 비리유치원 사태에 크게 공분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단순히 연구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동육아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 후 연구자는 두 번 더 숲이랑놀자를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한나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의를 구해야 했고 엄마들은 나를 '손님'으로 여기는 듯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라포를 형성하려면 이곳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엄마들과 상의 끝에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 방문하여 터전 일을 돕기로 하였다. 터전 일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무렵 유치원에 도착하여 간단하게 청소를 마치고 아이들이 오면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그림 그리기 놀이, 만들기 놀이를 하였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다함께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다. 간식과 점심을 먹는 시간에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했다.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식탁에 난입하는 돌쟁이 아이들을 제지하느라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 옆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엄마들의 일을 도우며 이들 일상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관찰에 집중하였다. 참여관찰 시에는 녹음 및 녹화를 하지 않았고 대신 일을 하는 틈틈이 메모장에 기록해야 할 사항들을 적어두고 귀가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장노트 및 현장일지를 작성하였다.

오후 일과 시간에는 비공식 면담을 주로 수행하였다. 대개 1시부터 엄마들의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부엌에 큰 밥상을 펴고 둥글게 모여 함께 밥을 먹었다.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의 방해가 적어서 엄마들끼리 일상적인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유치원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 연구자 역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에 참여하였는데 같은 '엄

마’라는 입장은 대화 주제를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 연구자의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들은 연구자를 ‘육아선배’로 생각하여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하였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8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점집단 면접의 형식으로 비공식 면담이 이루어졌다. 엄마들 중 누군가가 동탄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일들이나 공동육아를 실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엄마들이 “나도 그랬어” 혹은 “나는 조금 달랐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해가 넘어가고 개원일이 다가오면서 7가족은 숲이랑놀자보다 목동이음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되어 원에 들어갈 물품들을 정리해야 했고, 신규 조합원과의 면접이나 조합원회의도 새로운 유치원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구자도 이곳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엄마들과 함께 교구 정리를 도우며 참여관찰 및 비공식 면담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2월 중순에 이르러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숲이랑놀자는 문을 닫았고 공동육아 역시 중단되었다. 3월 2일, 예정대로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개원하였지만 일부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만 등원이 가능했다. 원내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었고 반모임 등 공식적인 행사들도 모두 취소되었다. 유치원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3월 한달 동안 연구자는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서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카페에 공시된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설명자료 및 교육자료들은 조합의 운영체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해당 사이트는 원래 ‘동탄 비리유치원 대책위원회’의 카페였기 때문에 비대위 시기부터 모아온 자료들이나 게시글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당시 사람들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동탄 맘카페’의 게시글이나 인터

넷 뉴스 및 신문 기사들을 참고하여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한유총의 상반된 주장들을 분석하였다. 유치원3법 논쟁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 기록된 회의록을 참고하였는데, 201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6회분의 회의록을 통해 각 정당의 의원들이 유치원 3법을 두고 어떠한 법적·정책적 논리를 주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4월에 이르러서는 7가족들과 심층면담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심층면담을 시작할 당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7가족 중 5가족이 4월을 기해 유치원을 그만둔 것이다. 북극성과 오로라네, 종달새네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동시에 조합을 탈퇴하였는데, 탈퇴의 첫 번째 원인은 북극성과의 갈등에 있었다. 탈퇴한 사람들이 면담을 거부할까봐 내심 걱정되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연구자와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다. 심층면담은 1:1로만 진행하였으며 대상자의 집이나 카페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1인당 1회씩, 짧게는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하였다. 당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영유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대상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면담은 유선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보다는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경험과 감정에 기초해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개방형의 심층 인터뷰(open in-depth interview)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에서의 질문은 우선 동탄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된 배경 및 첫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겪었던 양육의 경험 등에서 시작하였고 그 후 공동육아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으며 아이는 어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녔는지, 그곳에서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면담자들은 아이가 생기고 지금까지 약 5년에서 6년 남짓 가량의 이야기를 구술사적 방식으로 풀어놓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숲이랑 놀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육아를 실천하였는지, 아이가행복한유치원과 조합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특히 피면담자들은 터전 및 유치원에서의 경험을 복기하며 몇몇

특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연구자는 같은 사건을 두고 피면담자들이 어떻게 상반된 견해와 해석을 내놓는지에 집중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문의 본론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받는 동탄신도시의 위상이 어떠한 물리적·구조적 환경을 통해 구축되었는지를 조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이어 면담자들과의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실제 동탄의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해 탐색한다. 엄마들은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자녀양육'이라는 틀을 통해 인식하였다. 이상적이고 완벽한 도시라고 불리는 신도시의 환경은 아이 키우기에는 분명 더할 나위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기능했다. 그러나 정작 엄마 자신의 일상에서는 "뭔가를 나눌 사람이 없는" 독박육아의 짐을 지도록 만들었다. 신도시의 유익을 누리는 대신 엄마들은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독박육아를 받아들였고 사립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에 의존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이 비리유치원 사태로 인해 신뢰를 잃으며 공공의 적이 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항적/대안적 실천으로서의 숲이랑놀자 및 조합유치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제3장에서는 품앗이공동육아터전인 숲이랑놀자에서 7가족이 형성하는 관계와 이들의 실천양상을 논의한다. 숲이랑놀자의 안팎 환경 및 엄마들이 담당하는 일과 아이들의 놀이양식을 분석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7가족 만의 자녀양육을 위한 새로운 규칙과 의미들이 만들어졌는지를 탐색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규칙은 사립유치원과 달랐으며 기존의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실천하던 방식과도 달랐다. 또한 규칙은 실패를 거듭하였는데 이는 공동체의 균열이 아닌 오히려 '친밀성'의 높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친밀성'은 도시적 교환관계에 익숙해 있던 7가족

에게 중요하게 의미화되었다. 본 장에서는 1) 규칙 없음 혹은 느슨한 규칙이 어떻게 규칙이 되었고 2) 개인적인 치부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는 7가족의 실천이 숲이랑놀자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3) 숲이랑놀자의 공간이 7가족의 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7가족의 공동체가 분열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이사장인 북극성에게는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이었고 이사장을 제외한 6가족에게는 '숲이랑놀자의 확장된 모습'이었으며 신규 조합원이된 학부모들에게는 '사립유치원'으로 인식되었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기대와 실천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배경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유치원의 규모와 인원의 증가는 공동체 내 친밀성을 감소시켰고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가 가진 규칙을 공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본 장에서는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조합의 제도적 성격과 규모의 확장이 어떻게 공동체의 한계를 가져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먼저 본론에서의 논의를 요약한 뒤, 도시의 부모들이 "내 돈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사립유치원에 여전히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이러한 의존-경계의 전형적 양태를 벗어나 도시의 틈새에 제3의 공간인 숲이랑놀자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하였던 7가족의 공동육아 실천을 도시적 함의에서 재조망한다.

제2장 동탄신도시와 비리유치원 사태

이번 장에서는 동탄의 신도시적 특성과 더불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엄마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양육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자녀양육의 맥락에서 '신도시 공간'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동탄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평가와 인식은 동탄의 물리적·구조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전원도시(Garden City)'의 이상으로 구축된 동탄은 그러나 엄마들에게는 '완벽한 외딴 섬'이었으며 나아가 '독박육아'라는 짐을 지우는 공간이었다. 본장은 육아의 동반자였던 사립유치원이 비리유치원 사태로 인해 신뢰를 잃으면서 공공의 적이 되어 가는 과정과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항적 실천으로써 만들어진 동탄 비대위 활동에 주목하여 '도시에서 아이 키우기'의 구체적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1. 동탄신도시의 특징과 자녀양육환경

1) 동탄신도시의 특징 - 전원도시(garden city)의 꿈

동탄은 경기도 화성시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위로는 수원시와 용인시, 아래로는 오산시를 접하고 있는 신도시다. 화성시 전체 면적은 693.95km^{2}으로 경기도 시·군 중에서 4번째로 넓으며 이 중 약 20%에 달하는 총 33.07km의 지역이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지금의 동탄신도시가 되었다. 2007년부터 동탄1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동탄2신도시 부지 조성이 거의 완료되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총 약 35만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한국의 전통적인 도시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사람들을 모으고 역사를 축적하여 왔다면 동탄은 국가의 주도로 비교적 단기간에 인공적으로 건설된 도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대도시들과 달리 동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

이른바 '계획된 도시'로서 동탄은 인구의 대략적인 수와 세대의 구성,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위치, 녹지의 면적 등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도시가 만들어졌다. 개발 단계부터 계획 기준을 정하여 도시 내 인구가 중·저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수량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공급하였고(양병이 2005), 주거용지 가까이에 상업용지를 배치하여 편익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나 비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수준의 정주적 쾌적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자랑한다는 점은 입주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인근 지역에서 동탄으로 이사왔다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신도시라 없을 거 없고 다 있다", "길도 널찍하고 난개발도 없고 신도시라 더 좋다", "젊은 도시인데도 번잡하지 않아서 좋다" 라고 말하며 도시생활의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이처럼 거주민들이 느끼는 동탄에서의 생활만족도는 대부분 도시의 물리적·구조적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시가 붐비지 않고 구획이 잘 되어 있어서 교통이나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동탄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신도시가 전부 동탄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탄은 한국 신도시의 거듭된 실패의 역사 위에서 탄생하였다. 국가가 주도한 신도시 개발이 처음부터 도시 주민들의 삶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광주 대단지 사건이나 1기 신도시 실패 사례처럼 한국 신도시의 역사는 넘쳐나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실제 주민들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정헌목 2017).[9]

---

9) '신도시'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영국의 에버니저 하워드(Ebenezer Howard)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50년 경 런던에서 태어나 스물한 살에 미국의 시카고로 이주하였다. 당시 런던과 시카고는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로써 '사람과 물자'가 넘치는 곳이었다. 도시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젊은 뜨내기들로 가득했고 도심을 차지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오수, 오물로 최악의 위생상태에 놓여 있었다. 급진적 사회개혁운동에 천착하였던 Howard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먹고 자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양질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고 고도 성장기를 맞이 하면서 서울은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주거난을 겪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이 기획된 것이다. 1967년 서울시는 무허가 주택 양성화 사업, 시민 아파트 건립 및 대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집단 이주계획에 따라 도심의 인구를 비도심 구역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양성화 사업은 실상 무허가 주택들을 고스란히 시 외곽의 판자촌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불과했다(한상진 1992).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날림 공사 의혹을 받던 시민 아파트 '와우 아파트'가 붕괴하여 34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정부의 주택 보급사업은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했고(정헌목 2017), 서울 인근에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방식의 신도시 개발에 착수하였다.

1989년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라는 새로운 목표 아래 수도권 및 인근 5개 신도시에 9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성남의 분당, 고양의 일산, 안양의 평촌, 군포의 산본, 부천의 중동이 '택지 개발 예정 지

의 생활여건을 제공하고자 했고, 이는 '이상계획도시'의 구상으로 이어졌다(신동호 2013). Howard는 인간의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삶이 가능하려면 우선 대도시의 인구과밀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상율·채승희 2011), 대도시 외곽에 도시와 농촌의 환경이 적절하게 결합된 '전원도시(Garden city)'를 건설하여 인구를 이동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저서인 『Garden City of Tomorrow(1902)』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구상한 전원도시는 약 24km^2 면적에 도심과 녹지 지역을 구분하여 원 모양의 도심 안에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산책 도로 및 중앙 공원 등의 오픈 스페이스가, 도심 밖에는 농경지와 목장, 공업지가 자리한다. 도심 밖의 녹지 공간은 도시의 자족성을 보장하고 도심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맡는데 이는 현대 그린벨트 개념의 시초가 되었다. 도시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방사 형태의 도로는 도시 곳곳을 편리하게 연결해 주어 사람들의 생활 편의를 돕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한다. 또한 이러한 도로 형태는 도시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여 분류된 지역들이 각각의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주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구'로 지정되었고, 1989년 일제히 착공에 들어가 1992년 말에 입주가 완료되었다. 이들 5대 신도시를 1기 신도시로 부른다.[10] 그러나 1기 신도시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신도시가 되었다. 졸속행정에 따른 무계획적 도시개발이 주민들의 실주거생활에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도시 자체의 경제적 기반과 공익·편익·문화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일을 하거나 레저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을 이용해야 했다. 1기 신도시들은 서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잠만 자는 곳, 즉 '서울의 베드타운(bedtown)'으로 전락하였다.

신도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출퇴근 시간의 서울 외곽도로들은 엄청난 교통 체증에 시달렸고, 일부 지역들은 입주가 끝난 지 5년이 넘도록 동사무소·소방서·파출소와 같은 기본적인 공공시설들조차 갖추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11] 사람들이 쉬고 즐길만한 공원이나 극장 등의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빼곡이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들과 넓은 도로만 자리할 뿐 도시의 모습은 황량하고 산만했다.[12]

2000년대 들어 만들어진 2기 신도시는 이러한 뼈아픈 실패들을 반면교사 삼아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2기 신도시들은 '도시의 자족

---

10) 김형선(2008)은 신도시를 '주택공급 위주로 건설되는 대규모 도시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 주변에서 모도시의 과밀해소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로 정의하여 1기 신도시 이전에 건설된 과천(행정도시), 울산, 창원, 구미(산업도시) 등과 구별한다. 서구의 신도시 역시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건설되는 주택도시들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신도시 개념도 1기 및 2기 신도시에 한정한다.

11) 매일경제. 1995.4.19. "수도권 택지개발 이대로 좋은가 (5) 신도시 「서울 베드타운」 전락"

12) 조선일보. 1996.3.6. "문화시설 갖춘 베드타운 조성" 이처럼 도시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 것은 실상 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1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토지개발공사(지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홍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신도시의 공공시설 용지는 충분히 마련됐으나 교육부, 내무부 등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용지를 매입조차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수도권 신도시들은 도시생활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의 급조된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주거와 함께 경제적·문화적인 영역 모두를 도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기에 최초의 신도시적 구상이자 이상주의적 신도시 개발모델로 꼽히는 에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Garden city)' 모델이 2기 신도시의 청사진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2기 신도시들 중 가장 먼저 건설에 착수한 동탄신도시의 개발 목표와 개발 계획, 완성된 도시의 모습(아래 그림3)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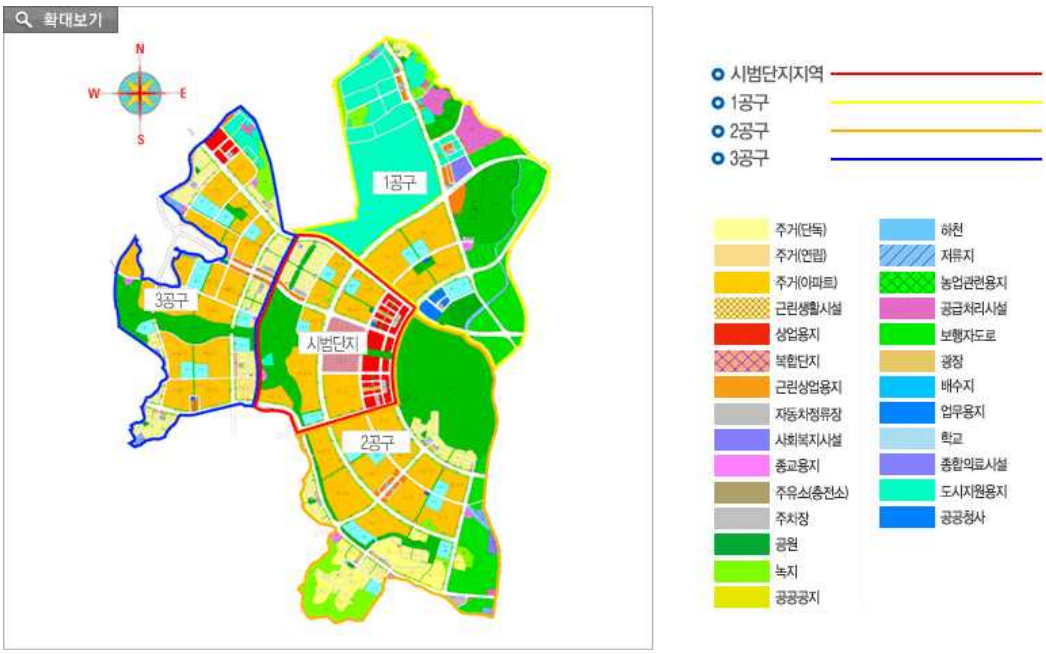

그림3. 동탄1신도시 공구별 위치도

(동탄1신도시 홈페이지 dongtan.lh.or.kr/dongtan_2/index.asp)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의 주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목표에서 '계획적 개발'을 강조하면서 도시 안에 '자연과 집, 일터, 문화·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13] 계획단계에서는 공공시설용지, 주택용지, 상업 및 업무용지, 도시지원용지, 농업관련용지를 구분하여 일정 비율에

13) 본 내용은 동탄신도시 홈페이지(http://dongtan.lh.or.kr/dongtan_2/index.asp)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따라 도시를 구획, 용도에 따라 필지를 배분하였다. 따라서 각 용지들은 다른 용지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신도시가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동일한 면적·동일한 용도를 유지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탄1신도시는 반원형태로서 가운데 반석산이 위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원이 퍼져나가면서 개별 지구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다.

도로는 방사 형태로 도시의 모든 지역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줄 뿐 아니라 내부가로망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지구를 블록처럼 구분하고 있다. 반석산 바로 옆은 상업지구로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쇼핑몰, 병원, 식당과 유흥시설, 입시학원 등이 몰려 있어 언제나 유동인구가 많다. 상업지구 옆에는 센트럴파크가 있는데 미니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놀이터과 인공하천이 조성되어 있어서 주말에 가족 단위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보낸다.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들이다. 대부분 10동 이상의 대단지 규모로 내부에는 놀이터 및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단지 밖으로 경계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고 아이들은 아파트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는 초·중·고등학교들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인접한 3, 4개의 아파트 단지들을 하나의 학군으로 형성하여 아파트에 사는 어린 아이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 앞 상가동에는 미용실, 마트, 학원,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어서 주민들은 차를 타고 나가지 않고도 근린주구 안에서 생활편의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도시 외곽의 '동탄산업단지'는 동탄의 경제적 기반을 이룬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동탄산업단지의 기업체들은 동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일터이며 또한 화성시의 주요 세원(稅源)이다.

건설이 완료되고 입주가 마무리될 즈음인 2009년에는 동탄1신도시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 동탄2신도시가 착공되었다. 면적(약 23.9㎢)과 계획인구(총 28만명), 사업비가 동탄1신도시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았고 사업기간 역시 길었지만 전체적인 결과물은 매우 유사하였다. 동탄1, 2신도시 모두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원도시의

건설'이라는 비슷한 개발목표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형태의 공간구조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도 1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면적의 주거지구와 상업지구, 문화공간, 자연녹지공원이 분리된 형태를 띄고 있다.

이처럼 동탄은 도시의 구조 자체가 경직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성격도 크게 변하지 않고 항상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도시란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나며 만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써 마치 유기체처럼 탄생과 성장, 후퇴를 반복하게 마련이지만, 동탄신도시는 그 안에 속한 사람들만 일부 '교체되듯'이 변화할 뿐 밖에서 보면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도시'임에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도시를 지배한다. 또 도시의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하고 정돈된 형태의 안전한 공간들이 자리하는데 이것은 도시가 가진 구조적 경직성, 즉 도시가 본래 계획한 것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물리적·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도시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고안한 장치로써 '경계 짓기'는 도시 내부의 물리적·구조적 변화와 인구밀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과 위험한 것(내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은 곧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을 통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정주의 쾌적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보장하여 동탄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동탄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삶은 어떠할까? '정주의 쾌적성과 편리성, 안전성'이 곧 그들이 생각하는 도시생활의 필요충분조건일까? '자연과 집, 일터, 문화·여가 생활공간'을 갖춘 이른바 이상적인 도시에서 사는 것은 곧 이상적인 도시생활로 연결되는 것일까? 이어지는 절에서는 피면담자들과의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동탄에서의 자녀양육환경을 탐색하였다.

2) 동탄의 자녀양육환경 - 독박육아의 일상

피면담자들은 모두 7세 이전 미취학 영유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가정 밖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여겼다. 특히 부모들은 '영유아 시기에 받는 외부 자극이 성인으로 자랐을 때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결정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둘러싼 양육환경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고민했고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사를 가기도 했다.

그들은 동탄이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 CCTV와 놀이터가 있는 근린공원, 안전한 보도 등 아이들이 자라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을 거 없고 다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 자신'에게 동탄은 "뭔가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숲이랑 7가족 중 한 명이자 레오(4살)의 엄마인 써니(30대, 女)는 동탄에서의 일상을 아래와 같이 회고했다.

> 연구자: 육아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곳이 근처에는 없었어?
>
> 써 니: 없어 없어, 전혀 없지. 그래서 약간 육아우울이 왔던 거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레오가 예민하기도 하지만 이게 뭔가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나는 레오랑 있으면, 계속 집에만 있으면 레오랑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처음이었던거 같아. 아이랑만 둘이 있는데 성인이 아니라 대화는 안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고 제한되어 있고 근데 뭔가를 자꾸 하고 싶고 그니까…. 그래서 약간 육아우울증이 같이 왔던 거 같아.

써니는 파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첫째인 레오를 낳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동탄으로 이사오면서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고향은 전라도 광주였고 대학도 다른 지역에서 다녔기 때문에 동탄이라는 지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친구나 친척이 없었고, 육아휴직 상태라 일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써니의 하루는 아들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과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움직였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 속에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 써니에게 동탄은 '가족'은 있지만 가족 밖에서 "뭔가를 나눌 사람"은 없는 곳이었다.

> 종달새: 나도 막 엄청 놀이 같은 거 이제, 엄마표 놀이 이런 거 막 찾아 보고 해가지고 사들이고 해서 해주고 이러는 데도 이게…. 내가 준비를 엄청 했는데 금방 싫증날 때 있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뭘 해야 되는데 안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나가면 얘는 얘대로 막 이거 해달라고 하고 별님이는 별님이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안되는거야 둘 데리고 나가면 진짜 내가… 너무 체력적으로 나도 힘들다보니까 나가는 것도 이제 매일은 못 나가고 막 한 일주일에 한 두번, 많이 나가야 한 두번. 근데 이제 나가보면 나도 체력이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종달새(30대, 女)는 꽃님(5살)과 별님(2살) 두 자매의 엄마다. 꽃님이는 낯을 많이 가리고 예민한 성격이라서 언제나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했다. 별님이도 겨우 돌을 넘긴터라 손이 많이 가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루 종일 엄마를 찾는 아이들 때문에 지칠 법도 했건만 종달새는 아이들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개원한 후에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개원일에 맞춰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갈 정도였다. 숲이랑놀자에서 공동육아를 시작하기 전에는 또래에 비해 언어표현이 수월하지 않은 꽃님이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집이라는 가시적인 거리 안에 아이를 두고 지켜보는 것은 분명 종달새의 불안을 덜어주었지만, 그렇다고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종달새 역시 가족 외에는 동탄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고 결국 보육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뭔가를 나눌 사람"이 없이 엄마 혼자 하루종일 돌봄노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밀하게 모여 살고 있는, 특히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산다는 동탄에서 "뭔가를 나눌 사람"이 없이 '독박육아'를 감당해야만 했

던 종달새와 써니의 현실은 도시가 가진 본래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워스(1938)는 도시를 '인종과 민족, 경제적 ·사회적 계층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모여 사는 곳'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도시의 조밀성(density)과 이질성(heterogeneity)이 친족관계와 이웃관계, 공동체성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과거 마을공동체나 친족공동체에서 아이들은 부모 뿐 아니라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들, 이웃의 어른들 사이에서 자랐다. 그리고 어른들은(때로는 서너살 터울의 오빠/형이나 언니/누나들이) 부모가 바쁠 때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폈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살펴주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며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행동양식을 습득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조부모를 예우하는 태도나 가족이 이웃들과 교류하고 마을의 일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라면서 성인의 규범과 공동체의 원리를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공동체와 친족공동체가 사라지고 핵가족화된 도시에서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과 책임이 오로지 부모에게 귀속된다. 특히 남성이 가장이 되어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 여성은 양육의 실질적 주체가 되고 보육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된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와 단 둘이 남겨지면 엄마는 일인 다역(一人多役)을 수행해야 하는데, 예컨대 조건 없이 손주를 사랑하는 조부모의 역할도 해야하고 동시에 잘못된 행동에는 따끔하게 훈육하는 부모의 역할도 해야 한다. 때로는 형제자매나 동네 친구들을 대신해서 함께 뛰고 구르고 역할놀이를 하는 또래의 흉내도 내야 한다. 도시가족 내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함과 동시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되고 "뭔가를 나눌 사람"이 없는 독박육아의 일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일상을 이상적인 도시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엄마들은 도시에서 사는 유익을 대신하여 독박육아를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운이 좋으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엄마들과 혹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모들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인연을 맺고 관계

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관심의 문화”가 통용되는 도시생활에서 새로운 친밀관계를 맺기란 매우 어렵다. 정헌목(2017)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하는 도시생활에서 사람들 간의 “적당한 거리두기”는 불필요한 감정적 교류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되며, 이는 곧 “무관심의 문화”로 발전되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예의로 하는 일련의 행동 및 사고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아파트나 거리에서, 마트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듯한 엄마들을 마주친다할지라도 일련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없는 이상 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독박육아’의 양상은 “무관심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도시적 양육의 한 형태인 것이다.

3) 사립유치원 - 의존과 경계의 사이

수원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 동탄2신도시로 이사 온 깊은산(40대, 男)은 동탄을 “외딴 섬”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역에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들을 키우는 또래의 젊은 엄마들이 많지만 이러한 환경이 자녀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어느 순간 동탄에 뚝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신도시의 특성상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돌봐 왔던 사회적 경험이나 어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양육에 애를 먹는다고 설명했다.

> 깊은산: **동탄이라는 도시, 되게 섬이에요,** 신도시들의 특징인거에요. 신도시라는 곳들이 되게 그 뭐 인터넷 속에서 우린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외딴 곳에 있는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모든 인간관계부터 저런 데서 내가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군대처럼 내 또래들만 다 있는…. 내 또래들만 다 있는…. 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힘들죠. [중략] 다른 데도 문제가 많긴 한데 동탄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 또래에요. 길 가다 보면 다 우리 또래에요. 왜냐면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돌봐 왔던 사회적 경험이나 어떤 지혜**라고 해야되나 그리고 어떤 힘들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동탄 사는 사람들의

한 팔구십프로는 어느 순간 동탄에 뚝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전통적인 공동체가 없고 또한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돌봐왔던 사회적 경험이나 어떤 지혜”도 없는 동탄에서 엄마들이 주로 양육의 도움을 받는 곳은 사립유치원과 같은 유아보육·교육시설이다. 과거 유치원은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수준이 되는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사교육기관으로 여겨졌지만,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후에는 계층에 상관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크게 늘어났다. 누리과정이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교육과 보육 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전국 어느 유치원을 다니든지 대한민국 아이들은 누리과정이라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정부가 유아학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부담금도 과거보다 훨씬 적어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래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초·중등교육처럼 유아교육도 ‘사실상 의무교육화’되었으며 유치원 또한 ‘사실상의 의무교육기관’이 되었음을 선언했다.[14] 이제 아이들은 5살이 되는 해부터 출근도장을 찍듯이 매일 아침 유치원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상의 규범과 공동체의 원리를 배운다. 다음은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동탄의 어느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벌어지는 풍경을 스케치한 글이다.

동탄신도시 어느 대단지 아파트의 정문 앞, 매일 아침 그곳에는 단정한 원복을 차

14) 교육부가 제공하는 2012년 누리과정 안내서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매달 정부가 정하는 교육 및 보육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의무교육이 12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의 교육내용이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main.do)

려입고 자기 몸의 절반쯤 되는 노란색 가방을 멘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를 기다린다. 무료한 시간에 지친 아이들은 보도블럭 사이를 무심히 지나가는 공벌레를 툭툭 건드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삼삼오오 모여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간혹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마중하는 때도 있지만 엄마들 무리와는 섞이지 못한 채 길 한편에 서서 무심히 버스를 기다린다. 곧이어 유치원 버스가 도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리에 앉은 것을 확인한 엄마들은 창문에 대고 아이들을 향해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든다. 차가 출발하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던 엄마들은 다시 각자의 집을 향해 종종 거리는 걸음으로 뛰어간다.

2019. 10. 15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에서

유치원 차량이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며 엄마들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긴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맡기는 행위'는 두 가지의 층위로 해석된다. 우선 '아이를 맡기는 행위'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립유치원은 아이를 공짜로 맡아주지 않는다. 국·공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비'를 내야 한다. 아이의 부모는 사립유치원에 '원비'를 내고 사립유치원은 부모-자녀에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둘 사이의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원비가 비쌀수록 유치원이 그만큼 "돈의 값어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한 요구한다. 깊은산이 지적하고 있듯이 부모가 유치원에 원비를 내고 '아이를 맡기는 행위'는 돈에 상응하는 선에 한해 부모-사립유치원의 대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깊은산: 근데 특히 동탄의 엄마아빠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게 이제 이 교사들에 대한 생각이 교사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에게 친절한 상담사이자 나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가 뭐 말을 친절하지 않게 한다 나한테, 그건 나쁜 교사. [중략] 이번에 비리유치원으로 주목했던 데들이 다 이번에도 애들 꽉꽉 채웠

> 어요, 꽉꽉 채우고 막 경쟁률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뭐 원장이 돈을 좀 남길 수도 있지. 내 애만 잘 봐주면 되고 내가 내는 돈만큼만 서비스만 받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칠십만원을 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칠십만원치 서비스를 해주고 자기는 돈을 좀 남겨가지고 자기가 좀 가지는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거에요.

그러나 아무 유치원에나 아이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믿음이 가지만, 사립유치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이를 맡겨도 될 유치원, 혹은 맡기면 안 될 유치원으로 구분하여야 할지 혼란스럽다. 원장도, 아이의 선생님이 될 사람도 일면식 하나 없이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안전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유치원)에서 의사표현도 명확하지 않은 5살 아이 혼자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부모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려면 이러한 불안을 상쇄시킬 만한 믿음, 즉 '아이를 내 자식처럼 돌보고 가르쳐 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서 '아이를 맡기는 행위'의 두 번째 층위가 발생하는데, 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도 가정 안에서와 마찬가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을 가족 혹은 공동체와 동일한 존재로 설정하고 유치원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관찰하려든다. 지그문트 바우만(Zigmunt Bauman)이 『모두스 비벤디』(2015)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는 공포를 배태하고 있는 공간이다. 낯선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헤매이는 공간에서 실존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염원한다.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이 자신들과 같은 '울타리', 즉 자신들과 '동일성의 공동체(community of sameness)'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려 드는데 그것은 유치원이 아이에게 가족 혹은 공동체와 '같은' 행동양식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아래 루피(40대, 女)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엄마들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쉽사리 믿지 못한다. '믿음'의 근거는 "내가 내는 돈만큼"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믿음’은 실상 진실한 믿음이 아니며 주위의 평판이나 소문, 아이가 밖에서 선생님을 만날 때 하는 행동 따위를 통해 쉽사리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 루 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불안하니까 옆에 좀 끼고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 [중략]
>
> 연구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야?
>
> 루 피: 어린이집 문제를 보고 선생님, 이제 길가에서 마주쳤어. 마주쳤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머 아리엘~ 이러는데, 아리엘이 그때 이제 삼십 몇 개월 때니까…. 막 걷다가 선생님 딱 마주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등을 딱 돌리면서 막 도망가는거야. 그래 그걸 보면서 그냥 그냥…. 유추하는거지만 그냥 주위에서도 별 평판이 안 좋은 어린이집이긴 했는데. 거기서 약간 처음에 한번 딱 이거는 아닌갑다 했는데 두 번째 어린이집…. 겨우 1년은 다녔는데 그 기간 동안도 좀 이렇게 선생님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 선생님은 계속 앉으라고 하고…. 아리엘은 자다가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이러면서 막 울었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지. 선생님은 ‘앉아 뭐 이렇게 해라’ 이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내가 내는 돈만큼”만 유치원을 믿지만 유치원에게는 그 이상으로 아이에게 대해줄 것을 요구한다. 가족이나 공동체처럼, 그러나 가족이나 공동체가 언제나 그래왔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는 ‘돌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돌봄이라는 행위는 돌봄주체와 객체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적 교류에 기반하여 관계가 형성되며 그에 따라 돌봄의 제공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감정노동이 발생한다(김유나 2013). ‘보육시설’이라는 이름처럼 유치원에서도 감정노동은 발생하며 또한 요구된다.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감정없는 로봇처럼 행동하지 않듯이 유치원도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담아 보살필 것으로 부모들은 기대한다.

유치원 역시 부모들의 이러한 믿음과 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유

치원을 가족이나 공동체와 같은 존재로 설정하는 행위는 유치원이 자신들을 홍보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에서 유치원은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 연구자 역시 동탄의 여러 유치원 입학설명회를 다녀보았는데, 단상에 오른 원장이 한결같이 반복하고 강조하였던 말은 “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다른 것은 차별화된 교육방법, 다양한 교과과정, 국공립유치원보다 긴 운영시간과 짧은 방학 등이다. 이러한 장점들은 ‘가시적’이기 때문에 굳이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지역사회에 번지게 된다. 이와 달리 비가시적인,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는 유치원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수많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제 자식처럼 돌보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곧 유치원에 대한 ‘믿음’, 즉 유치원의 평판과 소문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명은 가시적인 영역만큼이나 강조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지만 지역에서 인기있고 유명한 유치원이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것이다.

요컨대 유치원은 엄마들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도, 독박육아의 짐을 덜기 위해서도,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돌봐왔던 사회적 경험이나 어떤 지혜”가 없는 도시에서 양육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엄마들은 유치원에 의존한다. 그러나 유치원이 실제로 내 아이를 내 자식처럼 돌보고 가르쳐 주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의존과 경계’의 허약한 평화 위에 유치원-학부모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허약한 평화마저 ‘비리유치원 사태’로 인해 깨어지게 되는데,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사태의 개괄과 함께 이 사태가 어떻게 기존의 사립유치원-학부모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재정립시켰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비리유치원 사태

1)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분쟁의 시작

2018년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총 1878개에 달하며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적발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위 적발에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왔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 실명을 공개한다”고 밝혔고,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유되며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등 일명 “비리유치원 사태”는 연일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15].

특히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환희유치원은 적발된 사항의 내용과 규모의 수준이 남달라 가장 높은 논란을 일으키며 동탄 학부모들을 결집시켰고 나아가 ‘동탄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환희유치원은 원장과 가족이 그들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업소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증빙서에 첨부하여 유치원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874회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원장의 아들 두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데 계약과 달리 급여 및 각종 수당을 과다지급하였으며, 원장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단감 구입 등의 명목으로 증빙서류 없이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였다. 환희유치원의 원장은 2016년 회계감사 당시 이러한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교육청으로부터 파면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유치원 사태가 보도될 당시까지도 대표원장으로 활

15) 한겨레. 2018.10.12. “‘현금으로 가져오라더니…’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에 학부모 부글부글”,

동하였는데,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원장이 파면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이기적 행태에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며 분노를 표시했고, '우리는 왜 몰랐을까?'라는 자문(自問)에 답을 찾기 위해 애썼다.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돈이 왜 원장 일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왜 정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이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는지가 제일 큰 의문점이었다. 그들은 우선 첫째, 사립유치원이 감사 사실과 그 결과를 고의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둘째, 법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을 비롯하여 전국 사립유치원들을 대표하여 변호에 나선 한유총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비대위 대표로 활동하며 각종 인터뷰에 나서 유치원3법 개정을 촉구하였던 북극성(40대, 男) 역시 유치원 내부에 산적해 있던 문제들은 그들이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곪은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 북극성: 그 때 당시에 비대위할 때 상당한 제보가 많았어. 교사들하고 원장들하고 이제 그 반대 세력들이지. 블랙리스트 올라갔던 사람들하고 계속 컨택을 했고 박용진 의원이 계속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 보고서 올리고 하는거 볼 때 마다 그 특정항목들이 막 보이고 이제 교사 분들도 어디서 봐야된다 볼 때….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했던 거지. 이거 현장학습 안갔는데 현장학습 갔다고 했어요. 음악회 네 번했다고 하는데 올해 두 번 밖에 안했어요. 이런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비대위의 부모들도 이제 제보가 들어온거지. '어 작년에 음악회 2번 밖에 안했는데 왜 네 번 적혀 있지?' 그러면서 그런 걸 찾기 시작한거지.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과 한유총을 적폐 세력으로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과 함께 할 세력을 특정하여 포섭하고 있을 때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입장을 두둔하였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던 유은혜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은 진작

만들어 놓았으나 상대방인 한유총 측에서 타협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한유총/사립유치원과 선을 그었다.

에이블(Richard Abel 1973)에 따르면 분쟁(dispute)은 하나의 연대기적 과정을 따른다. 단순한 사실의 불일치(disagreement)가 있다고 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분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적 주장(public assertion)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따라서 분쟁이 가시화되기 전이라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에이블의 주장은 비리유치원 사태 역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몇 년 전부터 법학자들을 포함해 여러 학자들은 사립유치원을 규율하고 있는 체제에 문제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우선 경제학자인 김정호(2017)는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래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비리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 주목하여 비리 문제가 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전에는 합법적이었던 유치원의 지출행위들이 2012년 이후 사립유치원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을 '준용'하면서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회계규칙」은 본래 학교법인을 염두에 둔 규칙인데, 학교법인은 소유자와는 분리된 별개의 법인으로써 설립자의 시설에 대한 투자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법인은 비영리단체여야 하기 때문에 설립자라도 그 수입과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국가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정부는 학교법인에만 적용하던 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에도 준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인이 설립·소유한 사립유치원에 회계규칙을 일률적으로 준용한다면 소유자(또는 설립자)가 유치원을 위해 제공한 부지와 건물, 교구,

개인적 노력 등은 유치원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치원에서 나오는 재산과 수익을 한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신 소유자(또는 설립자)는 원장이나 교사 등의 직책을 갖고 급여를 받아가거나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는 이름의 비용항목을 만들어 개인 용도로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유치원)에 대한 수익·처분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립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회계규칙이 없기 때문에 사용해 왔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관리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은 '원천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김정호 2017).

이에 사립유치원과 전문가들, 전국의 교육감들까지 나서 비(非)법인 사립유치원을 위한 별도의 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하봉운(2020)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용'이 가능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수차례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이어왔었다.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면서 이에 대한 재정적 감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부가 제시한 안이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실제적인 회계 운용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거부했고, 결국 교육부는 기존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용하였다.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 회계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소득없이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양측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시도하여 왔다는 사실은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유치원3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리에서도 재차 언급되었다. 야당 소속이었던 전희경 위원과 김현아 위원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회계 비리문제를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은 것이 터져" 나올 때까지 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질책하였다.[16]

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이나 그 후나 사립유치원의 지출행위에 차이는 없었다. 예를 들어 병원에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면 의사는 그 돈을 자신의 수입으로 생각하듯, 사립유치원의 원장들도 사립유치원으로 들어오는 돈을 '재량에 따라' 지출하여 왔다. 들어온 돈이 교비계좌에 있든 개인 계좌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신 몫의 수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유치원 계좌에서 교사 및 직원의 월급,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정산하고 필요한 교구나 교재, 소모품, 식료품을 산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원장/소유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등 사업 수완이 좋을수록 원장/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원장/소유자에게 유치원은 교육을 수단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사업자/자영업자가 아닌 '공교육기관'이라는 지위를 갖게 된다. 공적 자금을 받는 것은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며 동시에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공공성은 매우 복합적인 개념으로써 적용 대상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논의들이 존재하는데(김수정·황정미 2019), 사립유치원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공공성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발현되었다. 시장경제에 맡겨져 왔던 유아교육을 어떻게 공교육의 범위로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었다.[17]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16) 국회회의록시스템 참고(https://likms.assembly.go.kr/record/)

17) 1970년 유네스코가 '세계교육의 해'를 선포하며 평생교육의 사조가 대두되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유치원의 위상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성격 형성이나 지능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 3, 4세를 교육권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선진 여러 나라들의 사례가 앞다투어 소개되었다.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반공의식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에 따라 1982년에 '유아교육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1983년 기준 24.2%였던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을 단 3년만인 1986년에 43%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수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61개원에서 3,420개원으로 약 4배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이들 중 다수는 유아교육진흥정책상 사립유치원의 수를 확대시키기 위해 유치원 설립조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되는 ‘학교’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유아교육법 제2조 2항) 유치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공교육기관을 규율하는 법령을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위치하게 된다.

물론 권리 없이 의무만을 부과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무상성이라는 공교육의 원리에 따라 유치원에 유아학비와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였고(이정욱 2017)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문턱은 많이 낮아지게 되었다. 유치원은 취학 전 어린이들의 필수코스가 되었다. 원장을 포함한 배우자, 자식들이 유치원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한 명의 소유주가 여러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업형 사립유치원들이 생겨나게 된 현상도 이러한 공교육화 정책 기조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유치원이 완전히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원장/소유자들의 사업 방식, 즉 효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극성: 그니까 그 돈을 몇 천만원, 몇 억씩 아껴서 자기네들 사리사욕 채우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는거지. 월급하고는 별개로. 교구교재도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그 교구교재를 왜 굳이 자기네들이 그걸 사

학원이나 새마을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기관의 수를 늘려 전국 각지에 보급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사립유치원의 양적 성장을 가져왔다. 전액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설립자 개인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적당한 수준의 지도·감독과 재정적 지원만으로도 충분한 자립성을 보였다. 1978년 기준 공립유치원은 8개소에 원아수는 498명에 불과하다가 1984년 3,114개소로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원아수는 117,301명으로, 같은 시기 사립유치원이 2,069개소에 137,137명의 원아를 수용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유아교육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교부는 사립유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지원키 위한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예체능 학원이나 보습학원, 선교원, 유아교실 등을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인가 조건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였고, 대학·기업체·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였다(심은희 2012).

> 리사욕을 채워서 리베이트를 받고 몇 년, 몇 억씩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거지. 내가 이거 투자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겠다면 니 월급을 정당하게 갖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애들한텐 장난치지 마라는거지 나는.

이상적 행위규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충돌은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을 분쟁의 양당사자로 분열시켰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정책을 이어나갔던 교육당국은 비리유치원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난받기 보다 오히려 학부모 측의 대변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교육부는 '그간 여러 차례 시스템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로 협의가 무산되었다'는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립유치원/한유총에 대해 선을 그었고, 동시에 자신들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한 후 며칠이 지난 뒤인 10월 25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25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1)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하고 2)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며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회계투명성을 보장하며 3) '처음학교로'에 전체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여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을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18] 이는 집회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전달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11월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19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 확충하고 1천 개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는 더불어민주당/학부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뿐 진

18)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자료에는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하거나 집단휴업으로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학습권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외부인의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일보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야당 및 한유총과 대립각을 세웠다.

2) 유치원 3법 논쟁 - 규범과 사회적 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가 곧 '비리유치원 사태'라고 명명됨으로써 사건은 공식적으로 '분쟁'이 되었다. 분쟁의 양식에 따라 양당사자가 성립하게 되었는데(황승흠 2001) 학부모와 정부, 여당이 진영의 한 편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쪽에는 사립유치원과 한유총, 야당이 있었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던 사립유치원 및 한유총과 달리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로부터는 '한 패거리'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당시 이른바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전 정권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이 대중들에게 '보수 적폐'의 잔재로 여겨지던 정치적 상황이 존재한다. 학부모들은 한유총이라는 이익집단이 그들에게 불리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측에 로비를 시도했으며 둘 사이의 은밀한 거래의 결과로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한유총/자유한국당을 '거대 세력'으로 규정했고 이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학부모/교육부/여당이 더욱 합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리유치원/한유총/자유한국당이 수적으로 보나 여론의 분위기로 보나 오히려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거대 세력'이라고 지목 당한 것은 이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돈은 분쟁의 처리에서 결과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사회적 힘(Gulliver 1963)'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아래 북극성의 면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유총이라는 조직의 실체는 모호하지만 그들이 가진 자금력은 곧 사립유치원/한유총/여당을 묶어 '거대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고 학부모들은 생각했다.

북극성: 걔들이[한유총이] 점조직이라서 걔들 참 파악하기가 힘들어. 대표는 있더

라도 대표가 그 점조직의 대표인지도 몰라 아무도. 대단한 조직인거 같아.

연구자: 그래서 한유총을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나?

북극성: 그렇지, 정식단체로 인정되는게 아니라는거지. 그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도 쉬운게 아니더라고. 고유번호증 우리 인가 받았던거 고유번호증하고 그 등기사항, 말소사항 포함하고 대표자 신분 명확해야 하고, 그걸 다 줘야되는데 그렇게 해야 단체번호를 받는데 찾아봤을 때 안나오는데 단체번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때 막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한유총 단체 불법이라고 막 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연구자: 그럴 수도 있겠네. 뭔가 교섭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대표가 있어야되는데, 공식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북극성: 되도 안한 이상한 조직인데 힘은 되게 쎄. 돈이 많아서 그럴거야. 돈이 진짜 많아.

연구자: 돈이 많아?

북극성: 돈 진짜 많아.

연구자: 어떻게?

북극성: 사립유치원 회비가 따로 있어. 그 예결산서에는 안나오는데 거기 예결산서에서 자기네들이 이윤을 창출한 금액에서 얼마만큼 이 한유총에 회비처럼 내게 되있어. 한유총이 힘이 어마어마하지.

황승흠(2001)은 분쟁당사자는 분쟁처리 과정에서 자신을 ‘정당화’시켜 줄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며 여기에는 규범, 즉 법규범을 포함한 종교규범, 사회규범, 도덕규범 등의 “넓은 의미의 당위체계”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규범에 의한 정당화”는 분쟁당사자를 지지해 줄 ‘지지자(suppoter)’들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리유치원 사태에서 ‘유치원3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표명이 필요한 분쟁의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처음 ‘유치원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2018년 11월 9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조직으로, 그 중 8명의 교육위원이 속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축조심의[19]한 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이곳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 간에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박용진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4명과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교육위원이 소속되어 있었다.[20]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은 박용진 위원이었고, 그가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학부모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바라는 바였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청 감사자료를 공개한 후 처음으로 열린 2018년 11월 9일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유치원3법 기본 개정안의 골자에 대해 대략적으로 확인한 후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3일 후인 11월 12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당론 취합 및 자체적인 개정안을 상정하여 병합심사를 하자고 주장하였다. 3차까지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유치원 3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충돌했다. 4차에 이르러서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부 측이 따로 제시한 개정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사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있었으

---

19) 축조심의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방법으로 의안 심사방법의 한 형태다. 국회법상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회법 제57조제7항), 축조심사 후 찬반토른을 거쳐 표결한다(국회법 제58조제1항).

20) 출처: 국회회의록 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record/)

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양측이 공히 합의하고 있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21]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쟁점이 되는 각 법률규정들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구도에서 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기 보다는 '적대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향'(이향우 2016)이 강하기 때문에 TV방송에서 생중계로 송출되었던 법안소위의 자리에서도 이들의 힘겨루기는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이 지닌 '사회적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다.[22]

이처럼 법과 판례가 비리유치원 사태의 해결을 돕는 공식적 권위로서의 규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여야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비공식적 관계를 동원하여야 했다. 다음 장은 분쟁당사자 자신이자 동시에 지지자로 결집된 비대위가 '분쟁의 무대(an arena)' 위에서 어떠한 방식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

21) 에듀파인(EduFine)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들이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입력하도록 만들어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비리유치원 사태 당시 국공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사립유치원은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의무화하여 회계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유치원의 회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대표적으로는 자원(resource)으로써 판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래 판례는 판사가 개별 사안을 판단하는데 이용하는 선례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규범이자 분쟁처리의 준거가 된다. 2018년에는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가 보관되어 있는 어린이집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장이 어린이집을 위해 일한 사실이 없는 남편에게 월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데 대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측은 '현행법상으로는 지원금을 함부로 갖다 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바꿔 회계 감시를 강화하자고 밝히며 동일한 판례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자원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집단행동 - 실체가 없는 싸움

비리유치원 사태가 연일 뉴스와 신문지상의 1면을 차지하면서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곳은 동탄의 환희유치원이었다. 유치원 명의의 카드로 아들의 성인용품과 원장의 명품백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분노와 비난은 극에 달했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치원간담회 자리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단상에 서서 용서를 구하던 원장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장면이 방송에 담겨 나왔고[23], 동탄 맘카페에는 원장이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미리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았을 거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동탄에 위치한 다른 대형유치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명단에 올라온 유치원마다 학부모간담회가 열렸고 원장의 공개사과가 이어졌다. 명단에 오르지 않은 유치원들도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었을 뿐 아마 비슷하게 돈을 빼돌리고 조용히 "몸 사리고" 있을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동탄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존과 경계 사이의 모호한 협약을 맺고 있었던 사립유치원과의 관계는 완전한 재정립을 필요로 했다. 다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사립유치원이 완전히 정상화가 될 때까지 학부모들은 그들이 주도하는 일종의 감시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국적 이목을 끌며 가장 논란이 되었던 환희유치원을 필두로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된 '유치원 정상화위원회'가 꾸려졌고, 에듀파인 도입, 가족경영 금지, 협력업체 선정시 공개입찰 진행 등의 세부 실천 사항들에 대한 유치원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상화위원회 역시 맘카페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자신들이 앞장서서 감시자 및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다.

물론 여전히 불만이 많고 믿기도 어렵지만 유치원 아니면 보낼 곳이 없

23) JTBC News, 2018.10.18. "'7억 횡령' 환희유치원 원장, '눈물'의 사과... "아이들에게 미안""

어서, 혹은 어딜가든 '거기서 거기'일 거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기존 유치원으로 다시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깊은산은 기존 유치원으로 다시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진정한 고민없이 '시장가치의 논리'에 따라 선택을 내렸을거라고 판단하였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러한 논리에 따라 유치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비리유치원으로 주목되었던 곳들 역시 여전히 인기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 깊은산: 그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에 비리유치원으로 주목했던 데들이 다 이번에도 애들 꽉꽉 채웠어요, 꽉꽉 채우고 막 경쟁률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뭐 원장이 돈을 좀 남길 수도 있지, 내 애만 잘 봐주면 되고 내가 내는 돈만큼만 서비스만 받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70만원을 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70만원치 서비스를 해주고 자기는 돈을 좀 남겨가지고 자기가 좀 가지는거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거에요.

아이들이 속속 유치원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 속 맘카페에서도 "사회정의를 위해 더 싸우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글들이 등장했고 이에 반박해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유치원 재원생 엄마들의 글도 여러 차례 올라왔다. 비리유치원으로 낙인 찍힌 곳에 다시 아이들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엄마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사립유치원-학부모 간의 상호이익 유지를 위한 선택이자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합의(a mutually acceptable, workable settlent)"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Gulliver(1973)는 재판정, 판사, 권위의 자원(resources)이 없는 사례의 분쟁 처리에서는 '무대(an arena), 합의를 위한 욕구, 분쟁의 성격에 대한 합의 된 정의, 적절한 규범 및 규칙의 식별, 협상 과정, 합의 된 합의, 합의의 공식 승인 및 실행'이 관찰된다고 보았다. 물론 일부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로가 결국 필요한 존재일 때, 즉 대체 가능한 자원이 없을 때 두 당사자는 상호 유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한다는 것이 Gulliver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비리유치원 사태에서도 사립유치원-학

부모 간 서로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협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유치원으로부터 어떤 보상(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하였고, 유치원 역시 최후의 카드였던 폐원도 불가능하게 된 마당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였다.[24] 이러한 상호 이익에 대한 암묵적 합의 위에서 사립유치원-학부모는 새로운 협력과 상호의존의 관계를 생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대위 측에서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될 때까지 사립유치원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동탄 거리집회와 국회 밖 시위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비대위는 10월 15일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각 유치원별로 마련된 정상화위원회와는 다르게 비리유치원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교육부, 화성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동탄 학부모들로 구성되었다. 맘카페 오픈채팅방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진 50여명의 비대위 사람들은 10월 21일 동탄 센트럴파크(중앙공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도둑질은 이제 그만!", "앞에서는 교육기관 뒤에서는 자영업자", "국민의 세금 사립원장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서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이루어내자"와 같은 현수막 및 피켓들이 등장했다. 비대위는 조직 당시부터 개별 유치원의 정상운영에 대한 촉구나 원장의 공개사과가 아닌 '유아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삼아 대응에 나선 단체였기 때문에 주로 '교육 당국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에 집중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28일에 열린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비대위는 동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합 및 정리하여 전달하면서 시립어린이집의 확충 등 공공보육시설의 확대나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문제들도 논의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

2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28일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업, 집단 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업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비대위의 요구는 사립유치원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뿐더러 교육당국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가능한 일들도 아니었다. 비대위의 싸움이 길어질 거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지난한 싸움의 첫 시작은 한유총에 대한 투쟁이었다. 비리유치원 사태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적(敵)이었던 한유총을 해산시키는 것에 1차적인 목표를 두었던 비대위는 라디오 방송과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유총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갔다. 비대위 대표로 활동했던 북극성은 활동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한유총이라는 '실체 없는 조직'과 싸우는 일이 가장 지치고 힘들었다고 회고하였다.

> 북극성: 그러니까 싸워도 우리가 실체가 없는 사람하고 싸우니까 지칠 수 밖에 없는거야. 해봐야 맨날 ○○○ 밖에 안나오고, 그 △△△ 유치원 대표. 그런 사람 밖에 안나오는거야. 분명히 실체는 어딘가 분명히 높은 사람이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한유총이 비대위 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이나 신문사로부터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호응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비대위와 함께 협상의 무대/경기장에 선다고 해도 달리 얻을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동탄 내 개별 사립유치원-학부모의 관계와 달리 비대위-한유총은 협상을 통한 상호유익이 전혀 없는 관계였다. 비대위는 한유총의 완전한 해산만을 주장하였고 한유총은 비대위의 존재에 대해 무척이나 견제하면서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상호 관계를 지속하려는 소망이 없는 한 두 당사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으며 더욱이 존재에 대한 부정은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무엇을 합의할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협상은 시작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Gulliver 1973).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 비대위-한유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려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급기야 두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북극성은 연구자와의 첫 만남(비공식 면담) 당시 자신이 한유총의 블랙리스트에 올

랐으며 자녀의 얼굴마저 노출되었기 때문에 동탄의 어느 유치원도 자신의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비대위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 한유총에서 바로 다음 입장을 내놓곤 하는데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느냐고 주장하였다.

한유총과의 싸움이 불가능해지자 비대위는 다른 곳에서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집중하였다. 센트럴파크 집회 및 서철모 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11월 8일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학교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같은 달 11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학부모들의 지지 서명서를 전달하였다. 12월 4일에는 비대위 및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한 총 24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대응계획에 관한 비대위 측의 질문에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비리 결과가 중할 경우 행정 및 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회에서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릴 동안에는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무실이나 개인휴대폰으로 박용진3법 개정 통과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돌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른바 '전화행동'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내 "한유총 편드는 국회의원"도 '전화행동'의 대상이 되었다.[25]

그러나 이러한 열정적 활동이 무색하게도 박용진 3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12월 27일, 유치원 3법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상정되어 최대 330일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었다.[26]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정해진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다.[27] 불행 중 다행으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지만

---

25) 비대위 활동에 대한 내용은 피면담자들과의 비공식적 면담 내용과 아이가 행복한유치원 네이버카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6) 매일경제, 2018.12.27., "'유치원3법' 합의 불발...패스트트랙 지정"

27)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신속처리) 제3항,6항,7항. 패스트트랙 제도는 정당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임위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패스

비대위는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마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한유총과의 투쟁은 시작조차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유아교육 정상화'라는 원대한 목표 역시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더 내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싸워야 할 상대와 이뤄야 할 목표가 없어진 비대위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12월에 이르러 비대위 구성원들의 활동은 점차 뜸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12월 말에 이르러 비대위에는 북극성 가족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비대위 대표였던 북극성 '유아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비리유치원 사태는 '분쟁'으로 번지지 않고도 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것이 '분쟁'이 되고만 이유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던 때에 정작 이 사안의 주체로써 함께 참여했어야 할 학부모들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용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결코 사립유치원과 정부 둘만의 합의체에서 결정하여서는 안될 성질의 문제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후 관련법 상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학부모들도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하였더라면 적어도 학부모들이 '우리는 왜 몰랐을까'라고 자문하며 분노의 수위를 높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서로를 견제하고 불신하며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기의 발달이나 보편적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차치하고서라도 도시의 부모들에게 중요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한편으론 경계하였으나 그렇다고 단순히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자에 머무르지는 않는다. 아이를 맡기는 행위에는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성질의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려는, 즉 '부모들이 만드는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다.

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숲이랑놀자와 품앗이 공동육아

북극성의 기획을 통해 만나게 된 한나와 꽃마리의 가족들은 동탄에 인접한 미개발 지역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품앗이공동육아를 시작하게 된다. '숲이랑놀자'라고 이름 붙인 공동육아 터전의 식구들은 점차 늘어나 9가족이 되었다. 처음에는 '공동체적/대안적 교육'을 꿈꾸며 공동육아를 시작하였지만 곧 다양한 '실패'의 상황과 구성원 이탈의 위기를 겪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실패와 위기의 반복을 통해 서로의 '유일무이한 세계'를 바라보게 된 숲이랑놀자 가족들이 종국에는 친밀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친다.

1. 숲이랑놀자의 설립 이념과 특징

그림4. 숲이랑놀자 모래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1) 참여한 부모들이 추구한 가치

숲이랑놀자에는 7가족이 있었다. 오로라와 북극성네의 새미(5살)와 리오(4살), 한나와 작은샘네의 볼트(6살)와 통통이(2살), 루피와 에디네의 아리엘(5살), 써니와 봉반장네의 레오(4살), 꽃마리와 소나무네의 맥스(5살), 종달새와 산까치네의 꽃님(4살)과 별님(2살), 진주네의 쌍둥이자매 소피와 루비(4살)였다.[28] 동탄에 거주하고 있다는 공통점 외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이들이 숲이랑놀자유치원에 모이게 된 까닭을 찾자면 시간을 거슬러 비대위가 한창 활동하던 때로 되돌아 가게 된다.

비대위 대표였던 북극성은 활동 당시를 회고하며 “유치원은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만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너무 순수했구나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바뀌는 모습이 빨리 보이지도 않으니까”라고 말하며 사립유치원과 기존 유아교육체제에 대한 강한 회의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북극성은 원래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고 ‘아이들 교육은 아내가, 기관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치원이 아이들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기사를 읽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첫 비대위 모임에 찾아가게 되었고 “어쩌다보니 내가 대표가 되어 얼굴을 팔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처음 비대위는 순수한 학부모들만 있었고 정치적 색깔도 없었는데 정치적인 집단들이 서로 데려가서 이슈화를 하려는 행태에 진절머리를 느꼈으며, 결국 정치인이나 사립유치원, 정부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들의 영향력과도 상관없는 “부모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유치원”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민을 거듭하는 와중에 “공동육아와 사회적협동조합이 필터링”되기 시작했고 비대위 카페에 협동조합유치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올려 조합원이 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북극성은 회고했다.

그러나 유치원을 지으려면 설립주체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해도 조합 소유의 교사(校舍) 및

28) 구성원들의 명칭은 모두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별명이며, 아이들의 나이는 참여관찰 당시인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교지가 없으면 설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때마침 법이 개정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시설·건축물을 유치원 교사(校舍)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29], 화성시 교육청과의 협의 끝에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목동이음터 건물에 입주하기로 결정하였다. 목동이음터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당장 입주를 하기는 어려웠고 유치원은 물론 조합도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공사가 끝나는 2021년 초에 맞춰 협동조합유치원을 개원하기로 계획하였다. 유치원 교사를 확보한 북극성은 비대위 카페에 공고를 올려 조합 발기인을 모집하였고, 1월에 열린 조합 설명회에서 한나네와 꽃마리네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다. 그 중 북극성네와 한나네, 꽃마리네 세 가족이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따로 터전을 마련하여 직접 공동육아를 해보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한나(女, 40대)의 영향이 가장 컸다. 예전부터 공동육아에 뜻이 있었던 한나가 1년의 기간 동안 함께 공동육아를 해보자고 나머지 두 가족을 설득했던 것이다. 한나가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최초의 계기는 아이가 가진 희귀질환과 관련이 있었다.

연구자 : 처음에 조합에는 어떤 경로로 가입하게 된거야?

한 나 : 나는 조합… 조합에는[조합이] 그때는 있는 줄 몰랐고, 그냥 공동육아를 해보고 싶어서 맘카페에 공동육아 검색을 했더니 인제 조합설명회, 1차 설명회가 있다는 공고문을 보고 참여하게 됐지.

연구자 : 그러면 비리유치원 사태랑은 상관없이 원래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한 나 :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어서…. 공동육아에는 관심이 쭉 있었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관심만 있다가 음 참여를 해야지 했던 계기가 있어. 아이[볼트]가 다섯 살땐가 2018년? 그때 11월쯤에 인제 희귀질환 판정을 받고 12월에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더 이 아이가 살면서 여러 스트레스 상황을 겪잖아.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하면서

2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

살아갈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아이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를 좀 형성을 해야겠다는….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월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알아봤지.

한나는 볼트가 다녔던 유치원이 비리유치원 사태 당시 "안 걸린" 유치원이었고 원장님도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리유치원 사태로 인해 유치원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볼트가 갑작스레 희귀질환을 판정 받아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기존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트가 가진 질환은 스트레스 상황에 매우 취약한 병이었다. 한나는 아이가 살면서 겪게 될 스트레스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는 "힘", 그리고 아이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곧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공동육아를 함께 할 사람을 찾다가 우연히 조합설명회 공고를 보고 설명회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5살의 활달하고 명랑한 남자아이인 맥스의 엄마 꽃마리(女, 30대)는 '아이가 크는 환경'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공동육아를 시작하였다. 맥스는 병원의 의료과실이 원인이 되어 아토피를 앓고 있었는데 음식이나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지만 맥스의 아토피에 맞는 유기농 식단을 차려주는 유치원이 없어 고민하던 꽃마리는 남편인 소나무의 비대위 출신 직장 동료로부터 북극성이 준비하고 있던 조합유치원을 소개받았다. 조합설명회에서 만난 한나의 공동육아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된 것도 맥스의 건강에 좋은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꽃마리: 그 전에 이제 [맥스한테] 폐렴이 왔는데 거기 경기도의료원에서 이제 그 항생제가 과다복용이 된거야. 그러면서 장이 완전 무너지면서. 처음에 이렇게 그 발목에 이렇게 어 막 긁네? 이 정도였다가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아토피가] 다 퍼진거야. 농가진이 오면서. 그러면서 뭐 어린이집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이사왔어, 목조주택으로 알아보다가. 그리고 내가 동

탄 가고 싶어했고.

2월 마지막 주, 터전을 구하고 청소를 마친 세 가족은 공동육아 모집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렸고 이를 보고 찾아온 종달새네, 루피네와 삐삐네가 합류하게 되었다. 루피(女, 40대)는 비리유치원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여러 유치원설명회를 다녀봤는데, 매번 원장의 “돈 얘기”에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비가 “비싼 데”면 “커리큘럼”도 좋고 아이도 많이 배우고 좋은 유치원일 것 같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으로 숲이랑놀자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 루 피: 하기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으려면 이렇게 키워야되는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좀 걸렸지. 뭔가 잘못됐는데, 돈으로 키우는 거는 아닌거 같은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걸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보니까 뭐 비싼 데가 좋은데구나. 뭐 이렇게 뭐 많이하고 커리큘럼이 좋고 뭐 시간적으로 뭐 많이 소요하고 이런데가 좋은갑다 생각을 했던거지. [중략] 오빠[루피의 남편]도 그 얘기를 하더라. [숲이랑놀자가] 너무 괜찮다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거라고. 돈으로 키우는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아이를 키우니까.

루피에게 있어 ‘돈과 진심’은 자본주의적 교환가치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그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표현된 그 무언가는 유아교육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교환가치인 “커리큘럼” 등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낳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늘상 고민했던 루피에게 ‘숲이랑놀자 공동육아’와 루피네 부부를 맞이해준 한나, 꽃마리는 그 “진심”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보였다.

요컨대 이들이 처음 숲이랑놀자를 기획했을 때는 공동육아를 하며 대안

적/공동체적 교육을 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만들기 위한' 실천들을 이어나갔다. 획일적 커리큘럼보다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놀이를, 어른이나 교사의 개입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하루생활을 엮어나가려고 했던 이들의 '숲이랑놀자 규칙'은 이러한 대안적/공동체적 공간 만들기의 실천과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아름네, 써니네가 이들과 뜻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며 합류하였고, 3월 중순에 이르러 총 8가족으로 숲이랑놀자 품앗이공동육아가 시작되었다.

2) 조직 및 운영 방식 - '자질구레한 일들'의 잠식

8가족은 어른 16명과 아이들 14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8쌍의 부부는 30대에서 40대 초반의 비슷한 연령대였고 부부 중 남편은 직장인/개인사업자, 아내는 전업주부거나 잠깐 육아휴직 중인 관계로 공동육아와 관련한 일은 평일 낮시간을 낼 수 있는 엄마들이 주로 주도하였다. 아이들은 6살 1명, 5살 4명, 4살 4명, 2살과 3살 5명이었는데, 6살이나 5살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먹는 것을 비롯해 온종일 어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아직은 앳된 어린이들이었다. 품앗이공동육아에 상주하는 어른은 많아야 8명이었고 아이들은 14명이었는데, 엄마들은 온전히 공동육아를 경험해보겠다는 일념 하에 외부 인력의 도움 없이 야심차게 공동육아 생활을 시작하였다. "공동육아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기대"만 있을 뿐 실제로 공동육아어린이집을 경험했거나 공동육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었던 엄마들은 평소와 같은 '일과'에 아이들과의 '자유놀이'만을 더한 총합에서 개별 역할을 나누어 분배하였고, 각자가 할당된 몫의 일만 하면 품앗이 공동육아는 무리없이 굴러갈거라고 생각했다.

우선 아이들의 선생님 역할은 한나와 오로라가 담당하였다. 과학교육과 심리학을 전공한 한나가 아이들과의 놀이를 주도했고 오로라는 보조 역할을 하였다. 한나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주도 하에 "자유롭게 노는" 것

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한나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는 시간과 공간에도 제약받지 않는 개념이었다. 간식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놀이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하면서 놀았다. 가령 아이들이 휴지에 대해 궁금해하면 한나는 휴지를 끝없이 풀어내거나 조각조각 찢어가면서 방에 뿌렸고, 물감놀이를 하는 날에는 모든 벽과 바닥을 가리지 않고 색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수습하는 것은 모두 엄마들의 몫이었다.

꽃마리의 말을 빌면 그러한 '결과물'들은 "자질구레한 일들"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난장을 치고 난 다음의 현장을 수습하는 것은 주로 보조 선생님인 오로라나 당번 엄마의 역할이었다. 당번제는 숲이랑놀자 초반에 잠깐 사용했던 방법인데, 엄마들이 당번을 정해서 이틀은 쉬고 사흘은 나오는 체제였다. 3일 나오는 중에 조리를 도와주는 엄마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가 있고 나머지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산에 가는 방식이었다. 자연환경을 탐색한다는 취지로 산에 가는 활동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에서 거의 매일 같이 이루어졌다. 걷지 못하는 아기들은 엄마가 아기띠로 업고 올라갔다. 이때 한 두시간 정도의 조용한 틈을 타서 식사 담당 엄마들은 간식과 점심을 만들고 청소를 했다. 요리솜씨가 좋았던 루피가 주로 주방을 총괄했지만 스무명에 가까운 인원의 음식준비는 한 두명의 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양이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다. 수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물과 모래를 쓸고 닦아내야 했고, 바닥에 어지러이 펼쳐진 책과 장난감들을 수습하느라 엄마들은 한시도 편하게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장의 후반부에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엄마들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점차 공동육아를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숲이랑놀자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2019년 초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유치원이 개원하고 운영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깊은산은 이러한 문제상황을 미리 예견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동탄으로 이사오

기 전에 수원에 있는 공동육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품앗이공동육아의'의 특성을 지적하였다.

연구자: 숲이랑에서도 공동육아를 했는데 왜 참여를 안하셨어요?

깊은산: 안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동육아는 일단은 품앗이공동육아라고 따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맞벌이하느라 여력도 안됐고 품앗이공동육아가 가지는 한계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공동육아라고 하는게 엄마아빠들이 모여서 애를 단순히 보는게 아니라 이게 그냥 대안이 되어야 되는거거든요. 보육,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동육아는 유아와 보육을 시장질서에 지금까지 편입되어 있었던 거를 시장질서의 외적으로 사회적 경제 운영에서 보육을 좀 해결해보자라고 하는건데 품앗이공동육아 [잡음]…. 그리고 엄마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 노력을 폄하하는건 아닌데 잘 되거나 지속할 수 있거나 버텨낼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별 엄마아빠들의 능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너무나 많이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든거 같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외람되지만 그 멤버가 준비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그래서 나는 좀 참여를 안했어, 참여를 안했는데 되게 응원은 많이 했죠. 결국 그 좀 잘 안 돌아갔어요, 숲이랑도 나중에… 처음에는 으쌰으쌰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철저한 규칙과 원칙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동육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상호호혜적이고 이게 좀 품앗이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규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이게…** 어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미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서 그 지금 나갔잖아요. 나가고 힘들어하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가, 경계에서 자기 어디에 서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혼란스러웠던거 같기도 하고.

깊은산이 판단하기에 공동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는 단순히 교사와 같은 외부 인력이 있고 없고에 있어서의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한 규칙과 원칙”이 공동육아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했다. 공동육아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의 방식은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깊은산에게 호혜적 방식이란 공동의 규칙에 입각한 개별 구성원들의 “경계”가 있을 때에만, 즉 각자의 책임과 역할 분배가 이루어질 때에만 실현가능한 것이었다. 숲이랑놀자에 들어온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유치원을 그만둔 삐삐네와 아름네를 예로 들며 깊은산은 “철저한 규칙과 원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그러나 언젠가는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일로 해석했다.

깊은산이 말한 “철저한 규칙과 원칙”은 단순히 엄마들이 역할분배를 철저하게 나누었어야 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역할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삐삐네와 아름네가 중도하차하지 않고 남은 엄마들도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도 아니다. 깊은산은 숲이랑 가족들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노동을 처음부터 “자질구레한 일들”로 여겨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던 사실에 우려를 표했던 것이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나름의 체계와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동육아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철저한 규칙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숲이랑놀자에서 아이들의 활동은 일종의 ‘결과물’로서 존중되었다. 아이들의 모든 자유로운 놀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공동육아가 추구하는 대안적 실천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돌봄노동들은 결코 “자질구레한 일들”이 아니다. 윤자영(2018)은 돌봄노동이 과소평가될 때 “여성과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자의 경제적 기여와 그에 기반한 여러 의사결정에 왜곡된 정보와 함의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초기 숲이랑놀자에서 일어난 일부 엄마들에게만 일이 쏠리는 문제와 당번제 운영의 혼란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숲이랑놀자 개원 후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엄마들도 “자질구레한 일들”을 점차 돌봄노동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인력을 고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숲이랑놀자에 외부 인력을 고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실제 문제상황에 처한 엄마들 뿐만 아니

라 8가족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북극성은 외부인력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연구자와의 면담 당시에도 북극성은 외부 인력 고용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3월말에 이르러 조리사 선생님(들꽃 선생님)이 오시게 되었지만,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굳이 '비용'을 들이지 말자는 북극성의 태도는 앞으로 펼쳐질 숲이랑놀자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개원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서 엄마들과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었다.

2. 품앗이공동육아의 실천양상

1) 특화된 형태의 안전과 위생

숲이랑놀자의 행정상 주소지는 오산시 세교동이었다. 동탄에 살고 있었던 숲이랑놀자 가족들의 집과는 차로 10분에서 20분 남짓한 거리였다. 동탄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등·하원하기에 편하다는 부분이 이곳을 선택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공간 자체의 속성이 '동탄의 반대편'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크게 매료시켰다. Lefebvre(2011)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간이 내포한 '관계적 요소'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공간은 공간을 점유하는 "사물들(대상들과 생산물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총체"로 이해되어야만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숲이랑놀자의 공간 역시 가족들에 의해 선택된 순간부터 '사물들'의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아래 숲이랑놀자 가족들이 전유하였던 유치원 공간에 대한 서술은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물들'이 숲이랑놀자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숲이랑놀자가 지닌 '동탄의 반대편'을 상징하는 요소는 크게 1) 숲이랑놀자 건물과 2) 숲이랑놀자 바깥을 둘러싼 '길과 숲' 두 가지였다. 숲이랑놀자 건물은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남루할 정도로 투박했던 1층

짜리 목조주택이었는데 처음 3가족이 이 건물을 발견했을 때 그야말로 딱 맞는 공간을 찾았다고 기뻐했다고 한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공동육아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는데 그들의 상상 속에서 이러한 공간은 도시보다 시골의 이미지에 닿아있었기 때문이다. 아래는 오로라네, 한나네, 꽃마리네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처음 유치원 건물을 소개받게 된 당시를 기록한 꽃마리의 이야기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세교동 545-1.

주택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부동산 업자가 있어서 좋아도 너무 티 내지 말라고 우리네 아빠가 그렇게 일렀거늘 다들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와 좋다 좋다!'를 남발했다. 어른 수십 명이 앉아도 충분한 널따란 거실에 사방이 확 트인 커다란 창으로 따스한 볕이 집안 곳곳을 비추고 있었고, 주방 창밖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는 자연의 모습을 아이들과 관찰할 수 있을 터였다. 그뿐일까. 주택 주위로 울타리가 둘러져 있어 아이들이 집 밖에서 뛰어다녀도 안전해 보였고 건너편 텃밭을 마음껏 이용하라는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느니라. 집이 조금 오래돼서 구석구석 손봐야 할 부분은 많았지만 아이들이 신나게 생활할 모습을 생각하면 이쯤의 수고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집이 아무리 좋다 한들 공동육아의 일과 중 절반을 차지할 숲, 산으로 가는 길이 가장 중요했다. 함께 집을 구경 온 맥스, 새미, 리오, 통통이를 앞장 세워 아이들의 걸음에 맞춰 산을 오르기로 했다. 가는 길은 비교적 수월했으나 산에서 나뭇가지나 솔방울을 주워 놀잇감을 만들어내는 장난꾸러기들 덕분에 순식간에 2시간이 훌쩍 흘렀다.

출처: '꽃마리의 숲이랑놀자 기록' 중에서

만약 세 가족들이 실제로 '살 집'을 구하려고 했다면 이 건물에 크게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물은 낡았고 주변에는 논과 밭만 있고 마트나 학교도 없을 뿐더러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러한 환경을 조합하여 공동육아에 걸맞은 '공간문법'을 창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들떴다. 이들이 실천하고자 했던 공간문법은 아래 종달새의 이야기 속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연구자 : 터전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거야?

종달새 : 그 산도 바로, 어쨌든 바로 산이지만 갈 수 있고. 내가 딱 원하는, 앞에 모래놀이도 할 수 있고. 그냥 옆에 주변에 어쨌든 나는 약간 좀 그런 맨날 아파트만 살다보니까. 나도 이제 그런 앞에서 뭐 애들이 좀 모래놀이도 하고 좀 자유롭게 좀 컸으면 좋겠어 가지고. 집에서는 못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해봐야 되겠다, 또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애들 키우는게 나도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 예전부터.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었잖아 솔직히. 예전에는 막 주택 많이 살고 이랬으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많이 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막 같이… 요새는 다 아파트다 보니까 솔직히 앞집 옆집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 뭔가 좀 비슷한 또래 애들끼리 같이 좀 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육아?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나의 약간 로망이었나(웃음). '딱 이거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게 된거지.

종달새는 주택과 시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공간적 특성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종달새는 어렸을 때 주택이나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달새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로망"일지언정 터전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가족처럼 잘 지내는 옛날'을 구현하고 싶어했다. 과거의 마을공동체에서는 독박육아도 없었을 거고 또 아이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자랐을 거라는 종달새의 막연한 상상은 사실 숲이랑놀자 가족 모두가 꿈꿨던 상상이었다. 유치원의 낡은 외관은 그들의 눈에 지저분해 보이거나 부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의 마을공동체'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옛날의 마을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당에 2톤 가량의 모래를 부어 모래놀이터를 만들고, 아이들이 담벼락에 기어오르거나 철조망을 철봉처럼 이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숲이랑놀자의 공간문법은 동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확실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첫 번째는 숲이랑놀자에서만큼은 부모들이 위험 혹은 위

생에 대해 한결 ‘느슨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위생과 청결은 부모들이 양육환경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일뿐만 아니라 현대인이 갖춰야할 덕목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근대에 이르러 위생의 개념은 사람들을 강박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의학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몸과 주변 환경 곳곳에 세균 및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존재들이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 또한 알려지면서 위생의 불완전함은 곧 위험과 직결되게 되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강하게 근대인들을 위협했다(강성우 2015). 특히 아이들은 성인보다 면역력이 부족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청결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위험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다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마을공동체와 같은 보호막이 없는 현대 도시의 공간은 부모들의 눈에 몹시도 위험해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모들의 불안과 공포를 상쇄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가들은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왔다. 대표적으로 근린공원에 자리한 놀이터와 같은 곳은 도시의 위험천만한 환경 속 아이들이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으며 놀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다. 동탄신도시의 놀이터들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안전함을 인증한 공간이며 도시의 가족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동탄의 놀이터는 근린공원에 있는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가 있다. 아파트 놀이터는 이른바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포함된 공간으로 외부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그 자체로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를 낸다. 근린공원의 놀이터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익명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대신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하거나 사각지대 없이 완전히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식이다.

놀이터 이용규칙인 ‘놀이수칙’ 역시 위험 예방 효과가 있다. 도시 놀이터의 한 쪽에는 ‘놀이터 이용 및 안전수칙’이 적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

는데 거기에는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적혀 있다.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서는 안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야 하며 놀이대 위에서 장난을 치거나 뛰어내리면 안된다. 지붕에 올라가거나 매달리지도 않아야 한다. 흔들말은 두 명 이상 타지 않아야 하고 너무 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도 안된다. 정자세로 앉아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타는 것이 흔들말을 이용해 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림5. 숲이랑놀자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이러한 '놀이수칙'의 경계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거의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안전이 본연의 목적이 될 때 놀이터는 재미없는 곳이 될 수 밖에 없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그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2019;1961)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지어진 획일적인 놀이터들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죽은 공간'일 뿐인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입증한다. "인정받은 놀이(누구한테 인정받았다는 말인가?)"만이 가능한 놀이터들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모험

심을 제거해 버린다. 제이콥스는 집과 멀리 떨어져 외톨이 섬처럼 존재하는 놀이터보다 오히려 집앞에 자리한 '보도'가 아이들의 도시생활에 놀라우리만치 큰 효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의 원래 목적은 차도와 경계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지만, 일부 도시의 활기차고 다양한 보도들을 관찰하다보면 그곳이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공간을 자신들의 놀이에 맞게 변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보도에 자리한 모든 사물들은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넘쳐나는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줄 지어선 가로수는 전쟁놀이에 필요한 엄폐물이 되기도 하고 바닥에 깔린 정사각형 보도블럭들은 땅따먹기 놀이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제이콥스는 보도가 제공하는 갖가지 '특화되지 않은 놀이'들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연구자가 숲이랑에서 관찰한 아이들의 놀이 역시 공간의 사물을 다각도로 이용한 '특화되지 않은 놀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5의 사진처럼 아이들은 철조망과 연결된 철근 구조물에 올라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철근 구조물은 건물지붕에서 철조망을 따라 길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원래 목적과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집주인이 등나무를 키워서 덮으려고 만든 듯했다. 아이들은 이 철근 구조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는데, 구조물을 계단 삼아 올라간 후 담에 걸터앉아 수다를 떨기도 하고 철봉처럼 매달리기도 했다. 또 그 모습을 본 몇몇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달려와서 호스로 물을 뿌리는 흉내를 내며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철조망에 걸터앉은 아이들은 불난 집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호스를 든 친구들은 소방관이 된다. 친구들을 무사히 구조하고 아이들은 의기양양하게 현관문으로 입장하여 자신들의 무용담을 엄마들에게 알린다. 그 사이에 옷과 몸에 묻은 밖의 먼지와 모래들이 현관을 지나 거실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지만 엄마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에만 집중할 뿐 철조망에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모래가 떨어졌다고

잔소리하지 않았다.

참여관찰을 막 시작했을 때 연구자는 숲이랑놀자가 위생과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들이 안전과 위생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외려 숲이랑 고유의 '특화된 형태의 안전과 위생'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Jacobs 2019). 제이콥스가 어린이들의 일상적 놀이터로 '보도'를 이야기했을 때의 '보도'는 다양한 놀이재료를 제공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특화된 형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왜냐면 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 보도에 면하여 보도를 바라보고 있는 집들의 수 십개가 넘는 창문들은 아이들이 혹시나 다치거나 싸우거나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시선들'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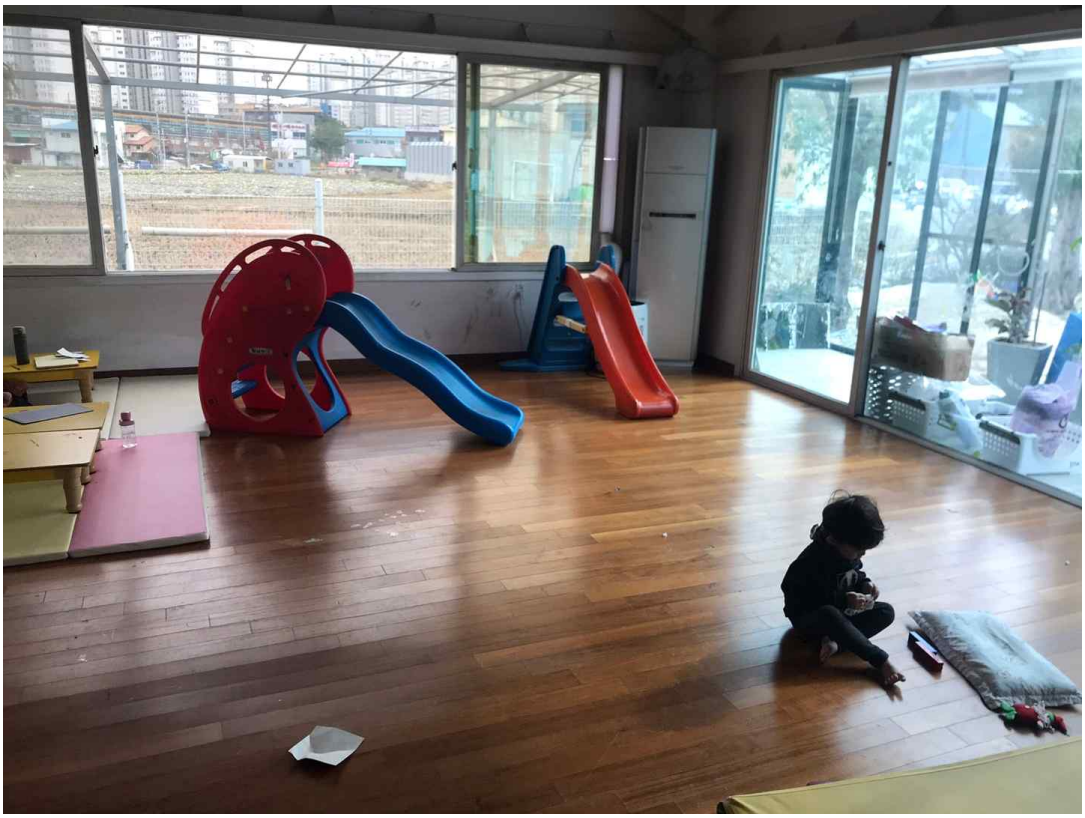

그림 6. 숲이랑놀자 거실에서 바라본 바깥 전경

숲이랑놀자의 공간은 이러한 '시선들'이 담보되어 있는 곳이었다. 유치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당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잘 보였는데,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남쪽으로 난 통창과 서쪽 방향의 베란다 덕분이었다. 엄마들은 실내에 있으면서도 통창과 베란다를 통해 마당의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훤히 알 수 있었다. 윤자영(2018)은 '간접 돌봄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상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호, 감독, 대기 등 대상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역시 돌봄노동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숲이랑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안전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7. 숲이랑놀자 앞 길에서 노는 모습

위생 또한 마찬가지다. 숲이랑 엄마들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보다는 도시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화된 형태의 '건강'을 추구했다. 특히

맥스의 엄마 꽃마리는 일과 중 숲에 가는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맥스의 아토피 때문이었다. 도시와 아파트의 콘크리트 환경보다는 숲과 산의 자연환경이 맥스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거라는 믿음에 꽃마리를 비롯한 엄마들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같이 바깥 활동을 나갔다. 그들은 이러한 활동이 '공동육아적 실천'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김미란(2016)은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주요 일과를 구성하는 바깥활동, 즉 '나들이'는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사회생태계의 차원으로 확장, 통합'되는 과정으로서 '아이들의 삶을 제약하는 구획된 시공간을 벗어나는데'에 일차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숲이랑놀자 엄마와 아이들 역시 유치원 건물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외부, 즉 '길과 숲'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얻고자 했다. 아래는 연구자의 현장노트에서 발췌한 글로써 숲이랑 가족들이 유치원 외부 공간을 전유하는 방식에 집중하여 서술한 것이다.

> 아이들은 멀리 가지도 않고 추수가 끝난 논에 돌을 던지면서 논다.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곳에 돌을 던지니까 재밌나보다. 작은 돌로 시작한 돌 던지기는 큰 돌 던지기로 변해갔다. 아이들은 돌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진지한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 그렇지만 논과 길 사이에는 따로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아이들이 돌을 던지다가 발을 헛디딜까봐 몹시 걱정되기도 했다. 한나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설명해주었다. 가장자리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숲이랑놀자 소속이 아닌, 뒤따라온 이곳 동네에 사는 듯한 어떤 여자아이를 제외한 세 명의 아이들은 모두 규칙을 잘 지켜주었다. 여자아이의 할머니에게 아이랑 같이 산책해도 좋겠냐고 물어보니 할머니는 '그래 주면 고맙죠~'하신다.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가진 못했다. 돌 던지기 놀이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얼마나 더 큰 돌을 찾아서 던지느냐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안전규칙만 지켜준다면 다른 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았다. 큰 돌을 옮긴다고 손과 옷에 진흙이 묻어도 특별히 제재하지 않았다. 나 혼자만 아이들이 혹시나 큰 돌에 발이 다치지나 않을까 마음 속으로 전전긍긍했다. 좀 더 멀리 가보려고 했으나 여전히 제자리다. 출발한 지 한 시간이 훌쩍 지난 거 같은데 유치원에서 50미터도 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엄마들은 아이들을 재촉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아이들은 돌 던지기 놀이에서 큰 돌과 작은 돌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하는 것으로 놀

이의 종류를 바꿨다. 작은 돌은 동생이고 큰 돌은 형과 누나란다. 큰 돌을 가진 맥스와 작은 돌을 가진 아리엘은 서로의 돌에게 인사를 했다. 논 옆에 있던 억새를 꺾어 꼬리 만들기 놀이도 했다. 한나가 볼트의 엉덩이에 억새를 붙이고 '꼬리가 달렸네~'하면서 장난친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자연에 호기심을 갖도록 중간중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듯 '이 풀은 이름이 뭘까?'라며 질문을 던졌고, 아이들은 엄마들이 가리킨 것들을 소재로 놀이를 계속 바꾸어 나갔다.

2019. 11. 21.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에서

숲이랑놀자 가족들에게 '길과 숲'은 동탄에서는 할 수 없는 놀이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이었다. 가족들이 거주하는 동탄에서는 '돌 던지기 놀이'와 같이 '다소 위험하지만 신나는 놀이'가 허가되는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본 논의가 신도시의 놀이터보다 '보도'나 '길과 숲'이 아이들이 놀기에 더 좋다는 획일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신도시의 놀이터는 아파트와 상가, 도로의 빼곡한 틈 사이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려고 확보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신도시에서 놀이터의 구획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잠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놀이터는 그 공간을 '쓸모있게'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운 땅이겠지만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도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숲이랑놀자 가족들이 유치원 공간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도시에서 통용되는 '안전과 위생'이 아니라 숲이랑놀자에서만 전유할 수 있는 '특화된 형태의 안전과 위생'이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그들이 꿈꾸었던 '옛날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실천과 맞닿아 있고 이러한 실천은 이어지는 논의에서 서술할 숲이랑놀자만의 독특한 공간문법들을 생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아이가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

'특화된 형태의 안전과 위생'이라는 첫 번째 공간문법이 확실한 의도나

계획에 따라 실천된 것은 아니었던 것과 달리 두 번째 숲이랑놀자 공간 문법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었다.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이었다. 숲이랑놀자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들이 강구되었는데, 특히 한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나는 처음부터 나름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공동육아를 시작하였고 엄마들에게도 자신의 교육관과 교육방식을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가 말하는 공동육아는 '자유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한 '자유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은 아이들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숲이랑놀자에서는 아이들끼리 놀거나 싸우거나 할 때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고 일단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 이는 아이들이 여러 상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직시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그런 감정을 계속 끌어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하였다. 한나가 이러한 교육방식을 추구하게 된 것은 한때 청소년 기관과 대학 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했던 경험 덕분이었다.

연구자: 그럼 한나는 처음부터 공동육아 육아관, 가치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거야?

한 나: 내가 시작하게 된거는 남편하고도 교육관이 되게 잘 맞아. 그래서 얘길 되게 많이 하고. 어, 그래서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또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 그냥 대학때 내가 교육쪽 관련된 일을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만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대학원에서 심리공부하면서 또 청소년 기관에서 이제 아이들 만나면서 대학센터에서도 이제 인턴했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인지와 감정은 전혀 다르고 아무리 인지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게 인지가 뛰어난 이유가 생각보다 마음이 허해서 그걸 채우느라 머리를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어떻게 하면은 진짜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아프면서 아 이게 좀더 내가 적극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겠구나, 내 아이만 어떤 식으로 케어하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변에 아이들에게 힘이 될 또 다른 아이와 어른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공동육아를 찾기 시작했지.

인지가 뛰어난 아이들이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는 지식이 마음의 건강을 대신해 주진 못함을 깨달았다. 한나가 생각하기에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주변에 아이에게 힘이 될 또 다른 아이와 어른들”이 필요했다. 따라서 숲이랑놀자에서 실천되었던 ‘자유놀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들은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서 교육방식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나무에서 나오는 특수한 성분으로 인해 맥스의 알러지가 심해진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부터는 맥스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 모두 숲활동을 되도록 삼갔는데, 숲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 않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엄마들은 숲활동이 곧 숲이랑놀자의 정체성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요컨대, 숲이랑놀자는 숲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간이 아니었으며 아이와 어른들이 “또 다른 아이와 어른들”과 “관계 맺기”의 훈련을 하는 것이 목적인 공간이었다. 한나는 방법이 목적을 주도하지 않도록, 즉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을 자주 강조하였다.

한 나: 우선은 내가 많이 배웠던 부분은… 막연하게 이제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나는 이제 주 내 관심사였고, 어떻게 그럼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울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조합활동을 하면서 공동육아 교육철학을 공부하게 됐고…. 약간 예전에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감정도 중요하고, 서로의 욕구가 중요하니까 그걸 잘 타협해서 절충하는 방안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더 나아가서 공동육아 교육철학에서 가장 많이 느낀게 이제 **관계 맺기**, 관계 서로 결국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하는 세상이니까 관계 맺기에서 실제 실전을 많이 한 것 같아. 부딪히면서 배운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소통할 것이냐…. 진짜 많이,

정말 책으로 못 배운…(웃음).

아이들에게 있어 '관계 맺기'의 출발은 나의 감정과 친구의 감정을 먼저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자유놀이'는 서로의 감정을 바라보기 위한 방법으로써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사실 처음 '자유놀이'를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끼리 한창 재밌게 놀다가도 금세 토라지고 싸우고 울기 바빴다. 삐삐네와 아름네가 탈퇴하기 전까지 숲이랑놀자의 아이들은 모두 합쳐 14명에 달했는데, 바닥을 기어다니는 돌쟁이 아기들부터 뛰어다니는 대여섯살 아이들이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마들의 혼을 쏙 빼놓는 일이었다. 장난감 하나를 두고 서로가 갖겠다고 싸우거나, 잡기놀이를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부딪혀 넘어지고 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시끄러운 소리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돌쟁이 아기들을 재우려고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아기띠를 메고 있어야 했다.

특히 엄마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다투는 아이들을 다루는 문제였다. 다툼의 발단은 수십, 수백 가지였고(완성한 레고블럭을 망가뜨렸다던가 소방관옷을 서로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등) 대부분 극히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아이가 싸우는 상황은 양쪽의 엄마들까지 엮여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싸움 자체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 아이들 노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다보니 상대 아이에게 먼저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내 아이 편만 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무조건 화해하라고 강요하면 잘못한 것도 없는 아이가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엄마들이 선택한 대처 방법은 일단 기다리는 것이었다. 아이들끼리 큰 소리가 나도 엄마들은 바로 끼어들어 중재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툼이 있고 난 후 '해결의 과정'은 모두 아이들의 몫이었다. 다툼을 해결하려면 우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거나 누군가의 양보 혹은 희생이 필요한데 숲이랑놀자에서는 그러한 과정 모두를 아이들에게 일임하였다. 이것은 꽤나 높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다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다툼이 끝나고 난 후에도 서로 화해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툼의 해결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엄마들은 과정 그 자체를 아이들이 경험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 왜냐면 다툼과 해결의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도 다툼이 반복되는 상황을 좋아하거나 결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친구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숲이랑놀자만의 독특한 자유놀이'가 된 것이다. 아래 글은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아이들의 자유놀이를 관찰하여 서술한 내용이다.

그림8. 숲이랑놀자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옷을 벗어 정리한 아이들은 곧 블록이 많이 있는 큰방으로 들어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놀고 있었다. 물론 방 안은 창으로 들어온 햇빛으로 환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이 방까지 보일러가 가동되는 것은 아닌지 바닥이 썰렁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물감으로 그린 작품(?)들이 가득했다. 얼마 전에는 유화물감으로 그림그리기 체험을 했는데 유화물감이 아직도 마르지 않아서 벽을 지나다닐 때 옷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단다. 아이들은 잭슨 폴락(?)의 그림을 연상케하는 낙서천지의 벽, 찢어진 매트와 수 백개(수천 개의?)의 블록들이 깔린 방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다. 아이들이 노는 방식을 관찰하고 싶어서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아이들은 굳이 선생님/어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 자신들끼리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놀이의 서사'에 기승전결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아이들 역시 이런가? 내가 유독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보니 그런 특이성이 보이는건가? 아니면 여기 숲이랑놀자 아이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가? 관찰을 하면서 메모를 해보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녹취, 아니 녹화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놀이패턴은 파악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블랙홀 같았다. 양자역학 같기도 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놀이의 주제라고나 할까? 예를 들어서 맥스가 곰 블록과 사람 블록을 양 손에 쥐고 '곰이랑 사람이랑 친구라고 하자'라며 새로운 '놀이의 시작'을 알렸는데 볼트는 '싫어'라고 거절했다. 맥스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왜?'라고 말한다. 이쯤되면 그 다음에는 볼트가 맥스가 제안한 놀이를 왜 하기 싫은지 설명하거나 혹은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맥스는 '왜?'라고 묻고는 '그럼 꼬꼬댁이랑 할래'라면서 스스로에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말을 들은 볼트가 갑자기 누워버리면 맥스는 옆에서 '꼬꼬댁~일어나세요~'라고 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서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창의적이고 기발한 연결을 통해 상황을 계속 이어나갔다. 도대체 내 머리로는 예측할 수 없는 놀이의 장면들이 계속되다보니 메모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아이들이 노는 양을 물끄러미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무작위로 노는 와중에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라고 하자'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놀고 있던 장난감이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공주님이 다쳐서 소방관이 구해주러 간다고 하자~'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장난감이나 상황을 새롭게 정의 내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 상황에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표현인 것 같다. 그러한 표현이 거듭되면서 놀이 역시 지속적으로 변주된다. 공주님은 다치기도 하고 마녀가 되기도 하고 소방관이 구해주러 가는데 갑자기 로봇을 타기도 하고 로봇이 부숴지면 소나 말을 타고 가기도 한다.

2019.11.28.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에서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하면서 가장 놀라고 흥미로웠던 지점은 바로 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부분이었다. 연구자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관찰하여 왔는데 대여섯살 된 아이들의 놀이는 대체로 가시화된 패턴이 존재한다. 비록 놀이의 목적이나 의도를 분명히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숨바꼭질, 술래잡기, 역할놀이 등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분배되거나 팀을 이루는 순간부터 놀이가 시작된다. 아이들은 그 주제의 경계 안에서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데 만약 그 주제를 벗어나게 되면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어 놀이에서 배제되거나 다음 놀이를 기다려야 된다. 혹은 그 놀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리에서 나와 혼자 놀거나 다른 놀이를 하는 무리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주제에 따른 놀이'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주로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며 하나의 교수방법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3월 한달을 '봄'을 주제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한달 동안 음악 시간에는 봄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미술시간에는 봄꽃을 그리는 식이다. 하지만 숲이랑에서는 이러한 중심적인 주제가 없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주제 없는' 놀이를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냈다. 위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숲이랑에서 놀이의 서사는 언제나 기승전결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놀이는 '끝없는 이야기'처럼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특정되지 않은 놀이를 반복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특정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연쇄와 변주'였다. 서사와 공간에서의 끝없는 '연쇄와 변주'가 실제로 '자유놀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처음 숲이랑놀자를 꾸밀 때 거실과 방들과 마당은 각각의 용도가 분리되어 있었다. 주방 옆에 있던 큰 방은 돌쟁이 아가들이 낮잠을 자거나 엄마들이 휴식하는 공간이었고 작은방이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무의미해졌는데, 아이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마당과 실내를 자유롭게 오갔으며 작은 방에 있던 장난감과 매트들

은 점차 거실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제 용도를 지키고 있는 공간은 주방과 화장실뿐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숲이랑 전체가 놀이를 위한 하나의 무대였다. '연쇄와 변주'의 과정에서 큰방과 작은방, 거실, 마당과 모래놀이터의 분리 및 경계는 장애물 밖에 되지 않았다. 소방관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철조망 위에 있는 친구들을 구조하여 거실로 부축해 들어간다면 거실에서도 소방관 역을 맡은 아이는 소방관이고 철조망 위에 있던 아이들은 구조된 친구가 된다. 놀이의 주제는 끝없이 단절되었지만 하루의 긴 흐름 속에서 본다면 놀이 자체는 끊김이 없었다.

이러한 자유놀이가 정착되고 난 후 엄마들은 많은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놀이의 주제를 정해주거나 놀이에 같이 참여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계속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내느라 지루하거나 심심할 틈이 없었다. 또한 자유놀이의 방식을 익힌 후에는 다툼의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아이들끼리 친밀도도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스스로 '놀이와 감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고, 엄마들은 이것이 숲이랑놀자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요컨대 숲이랑놀자에서 연구자가 관찰한 자유놀이는 일과 중 남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었다. 자유놀이 자체가 숲이랑놀자에서 행하는 교육활동의 중심이었으며 공동육아적 실천이었다.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 2008)는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 청소년들을 관찰하여 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처럼 특별히 어려운 사춘기를 겪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데, 미드는 단순하고 동질적인 사모아의 문화와 삶에 대한 가볍고 태평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보다 훨씬 덜 스트레스 받고 덜 반항하는 사모아의 청소년들을 키워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미드의 사례분석은 숲이랑놀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엄마들은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일관된 방식을 통해 최소한의 규칙만을 전달하였고, 규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도 오로지 친구들과 재밌게 잘 놀기 위해서임을 일관되게 상기시

켰다. 기준의 다양성이 두드러질수록 개인의 선택에 부과되는 무게와 감정적 고통이 늘어난다는 미드의 분석에 따를 때 '한 가지 행동패턴 안에서 구체적인 선택'만을 요구하는 숲이랑놀자의 공동육아 실천방식은 아이들이 규칙을 따르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자유놀이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은 한나의 처음 기획대로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일관된 규칙으로 아이들의 혼란을 덜어내고 규칙이 없는 여백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규칙의 여백과 그에 따른 결과물로써 숲이랑만의 독특한 공간문법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도 계속된다.

3) 청소와 분업의 실패 - 내려놓기의 과정

처음에는 각 공간이 용도에 맞게 분리되어 있었고 얼마 간은 입주 당시 깨끗하게 청소했던 모습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원 공간은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만큼 그야말로 혼돈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아이들은 모든 벽에 물감과 크레파스로 자유롭게 칠한 나름의 작품을 만들어 놓았고, 책장의 책들을 바닥에 쏟아 징검다리처럼 밟고 다녔다. 처음 공동육아를 시작할 당시 100일 전후의 갓난아기였던 통통이와 별님이를 위해 가져왔던 유모차는 큰 아이들의 수레가 되었다. 아이들은 놀이방에 있었던 의자들을 거실로 끌고와 일렬로 만든 후 기차놀이를 하기도 했고, 요리 재료가 들어있었던 택배 박스를 쌓아서 아지트를 만들기도 했다. 간식과 점심을 먹을 때 쓰는 밥상을 뒤집으면 전쟁놀이를 하기 위한 참호가 되기도 했다.

한나의 제안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공간과 물건은 아이들의 놀이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되었고 청소와 정리정돈하기는 점차 어려워졌다. 바닥에 널린 장난감을 치워도 아이들이 금세 또 새로운 장난감을 꺼내고, 맨발로 마당의 모래놀이터를 수시로 드나드는 바람에 청소기를 돌려도 금방 더러워졌다. 청결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다른 보육시설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숲이랑놀자는 무법지대처

럼 보였다. 마치 “바다 위에서 물걸레질 하듯”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였고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것도 문제였지만, 엄마들이 가장 위기의식을 느꼈던 부분은 유치원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갖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공동육아활동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대안적/공동체적 가치를 누리기 위해 찾아왔는데 정작 터전에서 하는 일은 집에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바닥을 쓸고 닦는 사이 정작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은 공동육아를 시작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엄마들을 통해 제기되었다.

> 공동육아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기대가 컸던 걸까.
>
> 고백컨대 체력이 작은 나는, 일주일도 안 되어 ‘아이고 힘들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바다 위에서 물걸레질 하는 듯한 터전 청소와 부모회의가 정신없이 오고 가며 재하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과연 ‘공동육아는 무엇일까’ 하는 자못 심각한 고민도 했더랬다.
>
> 서로 도우며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것이 공동육아의 큰 그림이라면, 모든 엄마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을 분배하는 것은 과연 공동육아인가. 그것은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고 셀 수도 없는 잡다한 일들이 특정 몇몇 엄마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은 과연 괜찮은 걸까. 나는 항상 계산하지 않고 공동육아에 몸담을 수 있는가하는 이런저런 고민들.
>
> 출처: ‘꽃마리의 숲이랑놀자 기록’ 중에서

터전에서의 일상적 업무로 인해 정작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다른 공동육아 터전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공동육아 터전은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조리와 청소를 비롯한 일상적 업무를 맡아주는 전담 인력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숲이랑놀자에서도 조리사 선생님과 같은 전담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

에 대해 3월 한달 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다. 일상적 업무에 대한 엄마들의 체력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서로 도우며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육아의 관념적 이상 앞에서 본격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잡다한 일들이 특정 몇몇 엄마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그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가는 게 보일 즈음에야 그들의 에너지 고갈은 ‘문제로 인식’되었고 조리사 선생님 고용 문제가 숲이랑 전체의 협의 사안으로 올라왔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조리사선생님을 고용하는 선택에 주저했던 이유는 숲이랑이 처음부터 양육자보다는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현옥·박주희(2019)는 부모로서의 성장, 즉 ‘부모됨’의 시작은 아이뿐만 아니라 양육자 자신의 재생산노동에 대해 올바른 가치를 매길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돌봄노동은 화수분처럼 계속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배려하고 양육자에 대한 ‘정서적 돌봄’이 이루어져야만 공동육아공동체의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도우며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육아의 가치는 먼저 ‘양육자를 도울 때’ 비로소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 아빠들이 터전 청소 및 수리를 하는 동안 엄마들은 회의를 거쳐 조리사선생님을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나와 오로라는 각각 담임선생님과 보조 선생님으로 아이들한테만 집중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숲이랑놀자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목록을 만들어” 분업화했다. 3월 22일부터 조리사선생님이 오셔서 간식과 음식준비를 전담하게 되면서 비로소 엄마들도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엄마들은 조리사선생님 덕분에 **남게 된 체력이 다시 아이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10시쯤 출근하는 조리사선생님이 음식 준비를 하실 동안 당번으로 나오는 엄마들은 아이들과 근처 산으로 숲활동을 갔다. 아이들의 안전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숲활동을 다녀온 후에는 아이들 점심을 먹이고 청소와 빨래를 했다. 업무를 세분화했다고는 하지

만 청소는 여전히 난제였다.

우선 아이돌봄의 특성상 분업화한 역할만 담당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청소당번을 맡은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다가도 자신의 아이가 울면 뛰어가서 달래거나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는데 이는 다른 엄마가 대신하기에 어려운 일이었다. 어린 아기일수록 낯을 가리고 엄마만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기 때문이다. 아이를 달래느라 기약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으레 다른 엄마들이 눈치껏 청소기를 잡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3, 4세 이상인 아이들의 엄마가 갓난 아이의 엄마들보다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곤 했다. “잡다한 일들이 특정 몇몇 엄마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분업을 시작했지만 악순환은 계속 되었고 이는 모든 엄마들의 마음의 짐이 되기 시작했다. 종달새와 아름과 같이 갓난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자신의 일이 다른 엄마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미안해했고 반대로 다른 엄마들은 미안해하는 엄마들의 모습에 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역할과 당번에 대한 규칙이 계속 부침을 겪고 있었던 4월 한달 동안 엄마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미안한 감정’만 내비치고 있을 뿐 이들의 관계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 종달새: 내가 둘째도 있고 꽃님이도 챙겨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다른 엄마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지, 근데 둘째 별님이가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 터전에서는 잘 안 자다가 공동육아 끝나고 차에 태우면 꽃님이 별님이 둘 다 곯아떨어지거든. 그럼 집에 가면 나는 주차장에서 애들 깰 때까지 몇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럼 또 밤늦게까지 안 자고 그럼 나는 또 너무 힘들고 (울컥) 그래서 그래서 내가...(눈물)
>
> 출처: ‘꽃마리의 숲이랑놀자 기록’ 중에서

서로 도우며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공동육아가 도리어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종달새 뿐만이 아니었다. 꽃마리는 심한 아토피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불편을 호소하

는 맥스가 혹시나 자신의 몸을 긁어 상처를 내지는 않을지 계속 주시하여야 했는데, 자신이 당번이 아닌 날에는 다른 엄마들이 맥스 때문에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터전으로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미안한 마음에 맥스도 보내지 않았다. 써니 또한 자신과 떨어지는 것을 몹시 어려워하는 레오 때문에 다른 엄마들만큼 터전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없어서 고민스러워 했다.

사실 공동육아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일의 분배 문제는 집단 내 갈등의 요인으로 빈번히 등장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 형성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육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각 구성원들의 균형 잡힌 참여가 부족하면 공동체 형성의 필수 조건인 '신뢰 기반의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오하나·배정환 2013).

류경희·김순옥(2001)은 공동육아에의 참여는 곧 "공동체적/대안적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써 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집단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개인적인 회의를 느끼거나 구성원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집단적 활동에 소홀한 구성원이 있을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일이 전가되어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혹은 그냥 묵인하고 삭히며 불만을 쌓다가 결국 공동체가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숲이랑놀자 엄마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꽃마리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과거 아름의 이기적인 태도가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었던 일을 지적했다.

> 꽃마리: 응 아름네, 맞아. 되게 뭐지 아… 나도 옛날에 그런 면이 있었어. 되게 자기꺼 되게 잘챙기고 딱….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시에 끝난다고 해. 그러면 칼같이 4시에 애만 쏙 데려가. 근데 우리는 다른 가족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눈에 튀었던거 같아. 우리는 와서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좀 도와줄 거 좀 도와주고…. 길게는 아니더라도. 오늘 어떻게 보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이제 아름네는 되게 이제 뭔가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고 데리고 오는 느낌…. 딱 데려오고 딱 왔다가 딱딱….

유치원 등 일반 보육시설에서 하듯 “4시에 애만 쏙 데려가”는 아름의 행동은 숲이랑놀자에서는 다른 엄마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아름은 분업에 따라 주어진 역할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했지만 문제는 그러한 행동이 공동육아에서 필요한 ‘신뢰기반의 관계 맺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꽃마리를 비롯한 숲이랑놀자 엄마들은 아름의 다소 계산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할 의지가 있는건가?’ 또는 ‘우리를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는건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엄마들이 느끼기에 아름은 그들의 희생을 일종의 서비스처럼 이용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업’은 단지 공동육아의 피상적인 표면일 뿐이다. 엄마들은 ‘분업’의 성공적 실행보다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동체에 헌신하는 태도’는 그것이 설령 공동육아를 실천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자원’이 되진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숲이랑놀자 공동체’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3월에 숲이랑놀자를 찾아왔던 아름네는 결국 5월을 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유치원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엄마들은 공동육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며 공동육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그에 수반되는 엄마들의 체력적 한계는 분업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분업 자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엄마들은 **일상적 업무를 모두 끌어안고 가기보다 서서히 내려놓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자신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이 곧 아이를 돌보는 길임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나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온가족데이’에서 숲이랑놀자의 공간이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닌, 부모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른 가족들을 격려하였다.

한 나: 우리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었잖아. 아이들 적응하느라 신경 쓸 부분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공간이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닌, 부모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희생' 때문에 한다면 이 공간이 즐겁지 않고 힘들기만 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른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출처: '꽃마리의 숲이랑놀자 기록' 중에서

"어른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강조하는 한나의 말은 '친밀성'의 획득이 곧 공동체 형성을 좌우한다는 정성훈(2011)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정성훈은 도구적 공동체와 친밀공동체를 구분하여 '육아'와 같은 일종의 특수 목적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느슨한 관계'로만 이어질 뿐, 공동체의 깊이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개체성'을 기반으로 한 '긴밀한 전인격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밀한 전인격적 관계', 즉 '친밀관계(intimate relations)'는 "커뮤니케이션 불가능한 내밀한 것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 친한 친구나 연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여도 상대방이 이해해 주고 받아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밀관계에서 개인은 각자의 '역할'로만 평가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즉 약점은 있지만 여전히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용된다. 정성훈은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확인"해주는 관계가 곧 친밀관계이며, 도구적 공동체에서 친밀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의 진전은 결국 '친밀성'의 획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공동체에서 출발한 숲이랑놀자 가족들이 점차 '친밀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내려놓기'에서 시작되었다. 공간이 다소 지저분하고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엄마들은 더는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애쓰려 하기 보다 주어진 결과 자체를 '받아들

이기'로 선택했다. 청소와 분업의 '실패'는 포기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었다. 가족들은 '서로 도우며 아이를 함께 키우자'는 공동육아의 이념이 청소와 분업과 같은 기술적 장치들로 달성되는 것이 아님을 차츰 이해해 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들은 '청결하고 인내심 있고 아이들을 다루는데 능숙하다'고 일반화되는 완벽한/조작적인 모성의 모습을 내려놓았다. 울고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 등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산하였고, 이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엄마들의 격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받았다. 아래 루피의 사례를 비롯해 참여관찰의 시간동안 연구자는 엄마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려놓기'의 모습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별님이를 안고 거실창 밖을 내다보는데 아리엘이 마당 텃밭에 바지를 내리고 쉬를 하고 있었다. 마당의 담장은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면 아리엘의 행동이 고스란히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황스런 장면이긴 했지만 크게 놀라진 않았다. 내 생각에 그런 행동은 아이들의 발달과정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어정쩡하게 앉아서 쉬를 하는 바람에 소변이 바지에 다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루피는 당장 아리엘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밖에서 바지를 내리면 안된다면서 혼을 내었다. 루피는 무척 당황하고 속상한 모습이었다. 루피는 아리엘의 젖은 바지를 보면서 바지가 없어서 산책을 못 갈거라고 엄하게 말했다. 아리엘은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눈물을 보였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챘다기 보다는 엄마가 화가 났고 또 산책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는 것 같았다. 결국 아리엘은 마당에서 아랫도리를 완전히 벗은 채로 울면서 들어와 꽃마리에게 안겼다. 꽃마리는 아리엘을 꼭 안아주면서 달랬다. '엄마가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워해서 그런게 아니다'고 말하면서. 아리엘이 밖에서 바지를 벗고 쉬를 해서 엄마가 속상한거라고 다독였다. 그 사이에 루피는 거실로 돌아와 바지를 빨래통에 넣고 있었다. 나는 종달새가 별님이를 업으려고 하는 걸 도와주고 짐을 챙겨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에서 루피와 꽃마리, 종달새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리엘은 언제 혼이 났냐는 듯 모래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루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리엘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몹시 속상한 것 같았다. 루피는 자신이 여러 번 타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리엘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과 밖에서 아

무렇지도 않게 바지를 벗고 쉬를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꽃마리는 루피를 달래며 그럴 때는 아리엘에게 엄마의 감정을 풀어서 제대로 설명해줘야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 꽃마리의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조언을 할 때만큼은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 조언했다. 루피는 아리엘이 바지를 벗고 쉬를 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나 화가 났고 아이의 바지를 벗기면서 엉덩이를 때릴 뻔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아이의 특정행동에 화가 나는 자신이 이해가 안되면서도, 하지 말랬는데도 특정행동을 반복하는 아리엘의 모습을 보면 더 화가 난다고 얘기했다. 이성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아이를 때릴 것 같다고. 꽃마리도 맥스가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다리를 긁으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맥스는 다리를 긁으면 엄마가 속상해하니까 더 눈치를 본다고 했다. 루피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고 나와 꽃마리, 종달새가 공감하며 함께 한숨을 쉬었다.

2019년 12월 4일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에서

'내려놓기'는 외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내밀한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써니는 레오의 느린 발달이 행여나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숲이랑놀자에서만큼은 이러한 고민과 불안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써 니: 사실 레오가 말이 느려서 내가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 진짜 많이 했거든. 진짜 걱정 많이 해서 내가 막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센터도 데리고 다니고 지금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린이집 엄마들이랑은 할 수 없을거라는 생각을 사실 선입견처럼 갖고 있었어. 내가 학교에 있다보니까 학부모들끼리의 이런 단점? 학부모들끼리 종종 있어. 애들싸움이 학부모 싸움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막 중재하고 아 예, 예, 이렇게 중재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약점이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무기처럼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반 애가 ADHD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걔 약 먹고 있는 애니까 저희 애한테 이런 식으로 하죠' 약간 이렇게 말을 하신 학부모들이 계셨어. 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니까 우리 애의 느림이 꼭 약점같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 공유가 좀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말하는거 이런거. 느린 거는 사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엄마들 봐도 그냥 알잖아. 그냥 알고 느

끼는건데 자기들끼리 알고 느끼는거랑 내가 말해서 우리 상태를 공유하는 거랑은 좀 다른거고 내가 이 말을 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거는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다는거잖아.

초등학교 선생님인 써니는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숲이랑놀자에서만큼은 레오의 "느림"이 "약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다. 레오의 "느림"은 그가 가진 '유일무이한 세계'의 일부로써 숲이랑놀자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레오의 "느림"이 숲이랑놀자 가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어 가는 과정은 써니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숲이랑놀자 가족들을 자신과 같은 '공동체'로 느끼게 만들었다. 엄마들 사이에서 나타난 '친밀성'이 단순히 '감정'으로서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써니가 숲이랑놀자 가족들을 "믿음"의 관계로 언급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숲이랑놀자 엄마들 사이의 '친밀성'은 동탄에서 독박육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내려놓기'의 구체적인 경험과 실천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육아'라는 공통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해체하지 않은 것도 여기에 있다. '육아'라는 목적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다면 친밀공동체가 된 이상 목적은 중요성을 잃는다. 친밀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로서가 아닌 전체로서의 '나 자신'이 다른 '나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엄마들은 이러한 관계 맺기가 가족 외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는데, 이들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공동체성'의 자양분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이 공동체에서 계속 함께 하고 싶다는 '영속성에의 의지'를 북돋았다고 볼 수 있다.

3. 숲이랑놀자의 규칙과 공동체 결성

1) 아이들의 규칙과 평등한 어른-아이 관계

개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들은 터전에서 아이들이 지켜야 할 규칙인 '숲이랑 규칙'을 작성했다. '숲이랑 규칙'은 아래와 같다.

1. 모래놀이

- 사람에게 모래 던지지 않기
- 차나 길가에 모래 던지지 않기
-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래털기(엉덩이, 다리, 팔, 머리)
- 안에 들어오면 손과 발 씻기
- 안에는 모래를 갖고 오지 않기

2. 식사시간

- 밥 먹기 전에 손씻기
- 밥 다 먹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 다 먹은 식판은 싱크대에 갖다 놓기
- 골고루 맛있게 다 먹기
- 책상에 올라가지 않기

3. 숲놀이

- 어른들이 보이는 곳에 있기
- 내리막길에서 뛰지 않기
- 모자, 장갑, 물총 등 물건 잘 챙기기

4. 놀 때

- 물건을 빼앗지 않기
- 때리지 않기
- 친구들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기
- 양말, 크레파스, 옷, 책 등은 정리하기

5. 숲이랑에는

- 장난감을 가져오지 않아요
- 주방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 똥이 마려우면 한나샘이나 오로라에게 말해요

‘숲이랑 규칙’은 행동의 틀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문제에 ‘일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루종일 밀착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다툼은 엄마들 간의 관계에도 긴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와 상대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숲이랑 규칙’은 유치원 아이들 모두에게 적절한 훈육과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과 위생, 식사예절 및 친구에게 피해주는 행동하지 않기와 같이 최소한의 규칙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으며 나아가 이 규칙이 ‘아이들 행동의 틀’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유치원과 차별화되는 숲이랑놀자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했고 공동육아의 본질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규칙이 숲이랑놀자 공동육아에 ‘걸맞은 것’이라고

생각된 것은 아니었다. ‘숲이랑 규칙’이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서 정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 부침의 시간을 견뎌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엄마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나에 따르면 가을이 다가올 즈음 유치원을 그만둔 삐삐의 경우 규칙 자체가 하나의 “질서”가 되기를 원했는데, 삐삐는 ‘숲이랑놀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엄마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그에 따라 중도하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나: 이게 공동육아를 시작하는 뜻이 다 같진 않잖아. 이제 나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된거고, 또 어떤 가족은 아이를 좀 더 옆에서 내가 더 잘 관찰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모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모는 뭐 좋은 먹거리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니까 하는 부모도 있을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한 가족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위생이 되게 철저했어. 그래서 그 엄마 있을 때는 우리가 막 개인 수건도 써보고, 이렇게 개인수건 걸어서 써보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유치원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그거는 되게 아이들에게 되게 많은 교육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 질서가 딱 잡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이거를 만약에 해야된다라고 하면 왜 해야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돕고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삐삐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인수건을 쓴다고 하지만 또 애들이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웃음) 막 그러기도 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엔 안 보이잖아 눈에. 그냥 얘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나는 내가 개인수건 보내면 끝인데, 이제 여기서는 내 아이와 다른 아이, 그리고 엄마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그게 되게 눈에 많이 띄는 거지 그런 상황들이. 그러다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삐삐가] 조금 힘들어하더라고.**

숲이랑놀자에서는 규칙과 “질서”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었다. 규칙은 아

이들 행동 중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율이지만 “질서”는 그 자체가 아이들 행동의 준거점이 되는 규율이다. “질서”가 일방적이라면 규칙은 상호적이다. 따라서 “질서”가 어른-아이 혹은 부모-자녀의 위계를 만든다면 규칙은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속성으로 인해 엄마와 아이를 ‘수평적 관계’로 만든다. 숲이랑놀자에서는 아이들에게 “질서”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가르치기 보다는 대신 규칙을 어겼을 때 그럴만한 이유나 사정이 있었는지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럴만하다’고 여겨지면 규칙에 따르지 않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고, 나아가 아이들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라 규칙은 수정되기도 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의 시간 동안 상황에 따라 엄마-아이 간 협의를 통해 규칙이 수정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화장실에 가서 먼저 손을 씻고 오라고 말했다. 먹기 전에 손씻기는 이 유치원의 몇 안되는 규칙 중 하나다. 아이들은 손을 씻고 온 후 각자의 식판이 있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챙겼다. 식사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날그날 아이들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기 시작한 아이들은 음식이 맛있는지 들꽃샘[조리사선생님]이 최고란다. 그러나 밥을 먹는 와중에 또 아이들은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 **식사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질 타이밍에 한나가 각자 언제까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물어봤다.** “긴바늘이 5까지? 6까지? 7까지?”[12시 25분, 30분, 35분을 뜻함] 식사를 마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한나는 너무 늦지 않도록 6까지는[12시 30분까지는] 모두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2019년 11월 7일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에서

진주와 꽃마리는 회계프로그램 설명을 듣기 위해 교무실로 들어갔고 나머지 아이들은 5세반 교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엔 장난감이 있었고 유치원이 개원하면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것이라서 아이들이 만지면 안되는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아이들은 장난감에 흥미를 보였고 꽃님이는 장난감상자를 들고와서 열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오로라는 꽃님이를 설득하면서 장난감을 열어보는 것은 안된

다고 했지만 꽃님이는 상자를 꼭 열어보고 싶어했다. 오로라는 꽃님이에게 지금 장난감을 열게 되면 앞으로 유치원에 와서 놀지 못한다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정리해놓은 장난감을 만져서는 안된다고 말했지만 꽃님이는 고집을 꺾으려하지 않았다. 맥스와 리오 역시 마찬가지였다. 블록과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하는 맥스와 리오에게 한나는 그럼 **장난감을 한번씩 꺼내보고 놀아보는 대신 정리를 하기로,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꺼내지 못하는 걸로 약속했다.**

2020년 2월 12일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에서

하지만 '숲이랑 규칙'은 "질서"를 담보하지 않았고 또한 그 규칙마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막상 규칙 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엄마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순식간에 간식을 다 먹은 아이들은 거실 책장 앞에서 놀기 시작했는데 아리엘이 책장의 책을 모조리 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루피는 '아리엘이 어질렀으면 나중에 아리엘이 다 치워야해. 약속해'라고 말했고 아리엘은 그러겠다고 말하면서 책을 계속 빼기 시작했다. 꽃님이는 간식을 매우 천천히 먹었다. 꽃님이가 요거트를 계속 흘리고 옷에 묻히고 있는 모습을 본 종달새는 꽃님이의 행동이 못마땅한 듯 보였다. 종달새는 별님이를 재우기 위해 아기띠로 업었고 루피와 오로라는 오늘은 유치원을 일찍 끝내고 가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이들 옷도 입히고 어질러진 책도 정리해야해서 나갈 때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렸다. 루피는 아리엘에게 책을 치우라고 말했지만 아리엘은 힘들다며 정리를 거부했다. 루피는 아리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유치원에 올 수 없다고 말했다.** 아리엘은 마지못해 책정리를 했는데 많이 어질러진 책을 보고 엄두가 나지 않는지 책이 무겁고 정리가 힘들다며 투덜거렸다. 볼트와 리오는 책 치우는데 열심이었다. 새미는 책 정리를 하다 말고 책을 펼쳐 읽고 있었다. 책정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리엘이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루피는 아리엘에게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책 정리를 함께 해서 고맙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6일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에서

엄마들끼리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새미가 사고를 쳤다. 교실 한쪽에

비치되어있던 투척용 소화기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린 것이다. 오로라는 한숨을 쉬면서 새미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서 그러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 써니와 나, 한나는 소화기에서 흘러나온 액체를 닦았다. 오로라는 또 한숨을 쉬면서 요즘 새미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31일 연구자의 현장노트 중에서

요컨대 '숲이랑 규칙'은 공동육아 생활을 더 수월하게 만드는데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규칙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수단인 '대화'는 여러 가지 협상의 통로를 만들었고 각 협상들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컨대 지시적 방식의 말하기가 '대화'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했겠지만, 다소 비효율적인 '대화'의 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수평적 관계'를 **생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숲이랑놀자 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이러한 아이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공동육아 이전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확고한 가치와 신념'을 깨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꽃마리는 이를 '약속의 융통성'으로 설명했다.

꽃마리: 근데 한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을 다닐 때. 한 달 다녔잖아. 내가 일할 때. 간식에 맥스 먹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었어. 한달 동안. 그러니까 맥스가 계란 알러지가 있는데 보통 빵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보면은. 거의 없었거든,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맥스 먹을 수 있는 거를 항상 싸갔어. 근데 뭐 가끔은 인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후에 고구마가 나온대. 그러면 너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 간식 안 싸갈게 이러는데 얘는 빵을 가져가고 싶은거야 집에 있는거를 지가 먹을 수 있는 거를.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맥스야 이거 가방에 넣을테니까 너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한거야. 내가 맨날 약속 중요하다고 이래가지고 약속을 했어. 근데 유치원에 갔는데 오후에 고구마가 아니었던거야. 계란빵이었던거야. 근데 선생님은 가방 안에 간식 있으니까 '아 꽃마리가 이거 맥스

> 먹으라고 이걸 싸왔구나' 꺼낸거지.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난거야. 엄마랑 약속했다고. 인제 끝나고 먹기로 했다구. 그래가지고 그냥 그땐 웃으면서 '아 애가 날 진짜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그만큼 내가 이 약속을… 되게 애가 날 겁내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느꼈거든. 근데 얼마 전에 한나랑 무슨 애길하다가 약속, **우리가 아이들이랑 지켜야 할 규칙과 약속에는 좀 유연함과 융통성이 있어야된다는 뭐 이런 얘길 했었어. 매순간 같이 합의할 수 있고 아이랑, 달라 질 수…. 큰 위험하고 이런거 아니면은 뭔가 그런 융통성, 유연함이 있어야된다.**

맥스의 간식과 관련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엄마와 아이 사이에 '겁내하고 무서워하는' 위계적 질서가 존재한다면 그들 사이의 "약속"은 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매순간 합의"가 가능한 "융통성과 유연함"이 있는 "규칙과 약속"은 이행의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나아가 엄마 자신이 갖고 있던 사고/행동의 "틀"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꽃마리는 설명한다. 기존의 육아관이나 가치관이 행동의 준거를 넘어 일종의 강박적 "틀"이 될 때 부모와 자녀 모두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아진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 안돼"만을 말해야 하는 "틀"이 존재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며, 선택과 합의가 줄어드는 상황은 곧 갈등을 유발시킨다. 꽃마리는 과거에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엄마라는 위계적 지위를 이용해 맥스의 불만을 억눌렀지만 공동육아 과정 속 '수평적 관계'의 경험을 통해 맥스와의 갈등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다시 말해 "틀" 밖의 "다른 방법"도 충분히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2) 모두의 규칙과 친밀감의 조성

가. 별명과 반말쓰기 - 복합적 관계의 해체와 우정의 네트워크 형성

"매순간 합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체 간 '수평적 관계'가 기반

되어야 하므로 숲이랑에서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수평적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숲이랑은 기존 공동육아 문화 중 일부를 이 장치로 차용하였는데, 그 장치 중 하나가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 즉 '별명문화'였다. 이름 대신 각자의 별명을 지어 부르는 것은 공동육아 고유의 문화로써 이부미(2016)는 서로 별명 부르기가 아이와 어른들 간의 밝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부미(2016)는 '별명 짓는 일'을 하나의 "의미 작업"으로 해석하는데, 외부인에게 별명을 부여함으로써 아이들은 그를 "의미있는 타인"으로 만들고 자신의 세계에 '들여놓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세계에 속하게 되는 순간 타인은 곧 그 세계의 일원이 되고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한다. 연구자 역시 '토스'라는 별명을 지은 후에 비로소 숲이랑놀자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했는데, 친근감을 높여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장점 외에도 별명은 '개체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기존의 '개체성'을 확장시키는 데에 높은 효과를 발휘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자신의 별명을 직접 짓고 또 엄마나 아빠의 별명도 직접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로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이름을 가져온다. 좋아하는 만화와 주인공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의 별명도 바뀌는 경우가 흔했다. 새미는 원래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였는데 이후 '미니특공대'의 주인공들 중 하나인 새미가 되었고, 아리엘의 원래 별명은 만화 '뽀로로와 친구들'의 주인공인 '페티'였다. 아리엘은 엄마의 별명을 '루피'로 지어주었다. '페티'와 '루피'는 만화 속에서 친구이며 우정의 관계에 있다. 써니 역시 아들인 레오가 정해준 별명인데 써니와 레오 둘 다 레오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별명을 지으며 자신의 상(像)을 기획하여 개체성을 확장시킨다면, 엄마들에게는 친숙한 캐릭터를 별명으로 지어줌으로써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를 다르게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개체성의 확장은 공동육아의 또다른 문화인 '반말문화'의 차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숲이랑놀자에서는 누군가 단체 메시지창에서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들처럼 숲이랑 가족들끼리도 서로 반말을 써보면 어떻겠냐

는 제안을 했던 것을 시작으로 모두가 반말을 쓰기 시작했다. 꽃마리는 반말 사용이 처음엔 썩 내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반말이 어른-아이 사이에는 무례함을, 친밀하지 않은 성인 사이에는 어색함/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부모들 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많은 편인 루피와 에디 부부는 같은 부모의 입장이지만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다른 부부들이 자신들에게 말을 놓았을 때 처음엔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말쓰기는 예상보다 빨리 익숙해졌는데 루피는 반말을 쓰면서 동생들과 "급속도로 친해"졌으며 "나이를 잊고 그냥 친구가 된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루 피: 처음에는 난 되게 싫었다니까. 왜냐면 내가 꽃마리랑 10살차이 나고 써니랑 12살 차이나거든. 그니까 이 띠동갑이야. 띠동갑 엄마들이 나한테 언니 동생 이게 아니라 뭐 '루피, 이거 해줄래?' 이런 식으로 얘길하는데 우리 때는 한 살차이도 되게 막 격하게 선후배를 막 따지던 어 그랬는데. [중략] 어차피 우리가 자식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했는데 너무 괜찮은거야. 너무 급속도로 친해지고 작은샘이 그날 이제 '안녕하세요' 하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이제 막 모래 나르면서 '엄마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다음날 만나서 '어 누나!' 이렇게 얘길하는데 '어 루피!' 이러는데 나도 그냥 '아 안녕'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반나절 있었는데도 편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점차점차 이제…. [중략] 처음엔 좀 억울했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편해. 그런게 없지, 나이에 대한 그런 게 없다보니까 되게 편해, 되게 오래 알던 친구들 같고. 서로서로 이제 말을 듣고 이렇게하니까 되게 편해지고 거리감이 좀 없어지긴 했어.**

'나이를 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에 따라 기대되는 고정적인 역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개 나이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는데,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나이는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기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에게 그에 걸맞는 표준적 행동양식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나이 순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진다거나 책임을 지니는 위치에 있으며, 반대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결정에 암묵적으로

따르고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하는 등의 집단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존댓말은 이러한 행동양식을 상징하며 또 견고하게 만들어주는데, 루피는 반말쓰기가 안면을 튼지 얼마 되지도 않은 “띠동갑” 동생들까지 “오래 알던 친구”로 만들어주었다고 설명했다. “오래 알던 친구”와 같은 관계에서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 즉 나이에 따른 역할과 행동양식을 탈피하여 개개인의 ‘개체성’을 다시금 획득하게 되고 ‘우정의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정성훈 2011).

숲이랑놀자에서 반말쓰기의 규칙은 어른-아이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써니는 반말쓰기가 어른-아이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해체시켰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을 설명했다.

> 써 니: 그니까 나랑 꽃마리랑 친구, 우리가 친군데 친구의 자식이 아니고 그냥 레오랑 꽃마리랑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레오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어라고 했을 때 레오도 뭐 한나도 루피도 ‘아 그래, 근데 그건 나도 느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더라’ 라는 피드백이 가능했던거 같아. 만약 레오가 엄마친구아들이었으면 그런 말 안했겠지. 뭐 맥스가 피부로 좀 힘들어해 라고 했을 때 나도 꽃마리라고 아들이라고 안보고 그냥 맥스라고 보니까 그래, 좀 맥스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꽃마리가 안보이고 맥스랑 둘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공동육아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건 **엄마친구아들 이런거, 내 친구아들 이런 게 아니고 아이랑 그냥 관계하는 법을 내가 제일 많이 느꼈던거 같아.**

써니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숲이랑놀자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써니와 맥스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엄마친구아들”이나 “내 친구아들”과 같은 복합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써니와 맥스가 서로 별명과 반말을 사용하면서 이들은 개별적 개체성을 가진 주체로써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꽃마리가 안 보이고 맥스랑 둘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마련되면서 써니와 맥스는 서로의 ‘유일무이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 두 개의 ‘유일무이한 세계’끼리 온전히 “관계하는 법”을 알아

가게 되는 것이다. 루피는 공동육아를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관계하는 법”을 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반말과 별명을 쓰기 시작하면서 대하는게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다.

> 루 피: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내가 또 좀 놀랬던 거는 아이들이 나한테 ‘루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내가 생각하던 ‘아이들은 내 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내가 이 아이들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는거야. 난 애들을 안 좋아하거든. 아 진짜 안좋아하거든(웃음). [중략] 근데 점점 편해지고 아이들한테 대하는거 나도 좀 편해지게 되고. 어려운게 좀 없어지게 되고. 그랬던거 같아.

루피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내 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를 다뤄본 경험이 부족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 몰랐었다고 말했다. 어른은 아이의 보호자 혹은 훈육자로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루피도 숲이랑놀자에서 아이들과 별명과 반말을 쓰면서 그러한 역할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같은 ‘우정의 네트워크’ 울타리 안에 아이들을 들여놓게 되었다.

나. 갈등 드러내기와 숲이랑 7가족 공동체의 결성

기존의 공동육아 문화 외에 ‘관계 맺기’를 위한 장치로써 숲이랑놀자 가족들이 만든 규칙은 ‘갈등 드러내기’의 규칙이었다. 이것은 ‘숲이랑 규칙’처럼 명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온가족데이나 엄마데이, 아빠데이와 같이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숲이랑의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나는 공동육아를 하며 육체적으로 힘든 건 참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공동체를 더 힘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드러내게 되었고, 엄마들끼리 정말 작은거라도 최대한 꺼내자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싸우고 토라졌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듯

화해하고 외려 이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맺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족들도 ‘갈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친밀한 관계 맺기’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한 나: 우리가 처음에 숲이랑 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온가족데이를 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말고도 엄마들은 거의 매일 보잖아. 되게… 만났던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되게 성숙한 사람들이었던거 같아. 이것도 뭐 내 개인적으로 그들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하긴 좀 뭐하지만… 그냥 스스로를 성찰하려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이었던거 같아. 그러다보니까 이제 같이 만나서 뭔가의 불편함이 생기잖아 이렇게 관계를 하다보면? 그럴 때 서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소화할 것인가를 계속 의논할 수 있었고 **표면에 이렇게 올릴 수 있었어 불편함을**. 그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는 불편해도 조금… 그냥 아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주 불편하면 관계를 끊는다던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일정 거리를 둔 약간의 내가 느끼기에는 어른이 돼서 만난 인간관계는 정말 그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더라고. 선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예의를 차린다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냥 불편함이 있어도 조금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런데 하지만 그 불편함이 쌓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친밀해지진 않는 거 같거든. 근데 **숲이랑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계속 얘기했던 원칙이 이제 ‘불편한게 있으면 그때그때 꺼내서 얘기하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자라고 했었던거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되게 다들 애를 썼어. 그래서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불편함을 꺼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가까워지게끔 했던… 울기도 엄청 울고….

한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불편함”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행위에서 발생된다. 내밀한 감정의 노출은 “예의”를 차려도 되지 않을 정도의 매우 사적인 관계 속에

서만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근대 자본제 가족의 탄생이 사적 영역을 분화시킴으로써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내밀한 색채를 띄게 되었다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주경철 1999; 오세근 2015; Giddens 2001)에 비추어 볼 때, 갈등 드러내기 규칙을 통해 '불편함을 표면'에 올리는 행위는 '핵가족의 사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분리/보호받고 있었던 숲이랑 가족들의 개별 사적 영역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30] 장경섭(2009)의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장경섭은 한국사회에 전후(戰後) 자본주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정이 척박한 도시생활과 경쟁적인 일터에서 돌아온 개인에게 '독립된 서정적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특히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성의 감정노동을 동력으로 하는 "순수한 애정적 결합(emotional union)으로서의 가족"이 이상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숲이랑놀자의 '갈등 드러내기'는 이러한 이상화를 해체시켰다는 점에서 핵가족의 내밀한 영역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내밀함과 애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공동육아의 일상은 숲이랑놀자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가족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가족 내 갈등 상황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감추어져 왔었던 일상의 희로애락이 '터전'의 공간에서는 모두에게 공유된다. 아래는 「꽃마리의 숲이랑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맥스에게 짜증내는 꽃마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엄마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나아가 엄마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형성시켰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

30) 일터이자 생식을 위한 사회 조직으로 존재했던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붕괴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써의 근대 시민가족이 등장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내밀한 색채를 띄어갔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분명해졌고 가족 내부의 문제는 공동체 생활 혹은 공적 생활과 상관없는,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또한 과거의 혼인이 신분과 공동체 질서 내 친족과 친족 간의 결합이었다면 16세기 이후의 가족은 사랑과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에서 출발한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소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가 되고, '애정'은 가정을 지탱하는 주요한 감성적 요소가 되었다(오세근 2015).

‘애 앞에서 짜증 좀 내지마라.’

루피(아리엘의 엄마)의 말 한마디가 정곡을 찌른 걸까, 나는 그만 울음을 걷잡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다. 최근 들어 나는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했다. 맥스의 아토피는 밤마다 정체를 드러내는데 잠들만하면 깨서 긁고, 또 그러다 잠들었다가 깨서 긁고를 반복한다.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제 살을 피 범벅이 될 정도로 벅벅 긁어댄다. 아침이면 옷과 이불에 묻은 피와 딱지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원인을 찾지 못해 부모로서 딱히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과 자책감을 느꼈다.

이렇게 밤마다 찾아오는 아토피 증상으로 우리 가족은 근 일 년 동안 푹 자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다. 잠이 부족하니 종종 예민해졌고 쉽게 짜증이 났고 끝내 나는 밤마다 울고 괴로워하는 아이에게 같이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며 그만 좀 긁으라고 너 때문에 엄마가 잠을 못 자겠다고 방문까지 열어주며 나가서 긁으라고 화를 내는 괴물 같은 마녀가 되어있었다.

하루하루 나의 바닥을 마주하며 그날도 역시 전날 밤의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으리라.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터전에 갔는데 맥스의 어떤 행동이 계속 눈에 걸려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짜증이 섞인 말투로 아이를 대하고 있었다. 루피는 그런 나를 지켜보다 마음이 쓰였던지 나를 툭 치며 짜증 내지 말라고 일깨워주었는데 내 눈은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콸콸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또 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루피가 다가와 우리를 위로해주려 본인의 아픔을 드러낸다. 어느새 오로가가 내 옆에 엉덩이를 철퍼덕 깔고 앉더니 루피의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그렁그렁 거리다가 자신의 얘기를 하다가 또 울고 있다. 저 멀리 한나가 통통이를 안고서 살며시 다가온다. 볼트가 가지고 있는 ‘모야모야’ 질병에 관한 얘기를 담담하게 들려주며 당장 할 수 없는 것에 매여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돌리자고, 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 하고 있는거라 다독여주었다.

나아가 종달새 역시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부터 엄마들끼리 “진짜 가족처럼 친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종달새는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이 숲이랑놀자 밖에서는 “싸우자”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숲이랑놀자에서는 “서로 이제 좋게 좋게 계속 가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갈등 드러내기’가 규칙을 넘어 숲이랑 가족들 간 하나의 행동양식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숲이랑 초반에는 사람들끼리 적응하는게 힘들었구나.

종달새: 응, 친해져가는 과정이라서 두세달은 이제 서로 이제 특히 꽃마리같은 경우는 그런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워낙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얘길했었고. 나랑 루피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말을 안하는 스타일이었거든. 힘들어도 좀 약간 삭히는 스타일이야. 루피도 말을 안하고 하는데… 꽃마리가 팡팡 터트리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이게 그렇게 얘길하니 터놓고 얘길하니까 이제 점점 진짜 가족처럼 친해진거거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불편한거 얘기하고. **왜냐면 이게 싸우자 이게 아니고 서로 이제 좋게 좋게 계속 가자 이거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근데 나같은 경우는 그게 안됐지만 그렇게라도 얘길해주니까 이게 뭔가 더 편해지고 이제 그런 건 있었지.

종합컨대 1년의 시간동안(2019.3~2020.2) 엄마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숲이랑놀자의 가족들 모두 공동육아의 실천을 통해 각자의 ‘인격적 개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정성훈 2011). 여기에는 공동육아적 실천을 위해 만들었던 규칙들이 숲이랑놀자 특유의 공간문법으로 자리잡게 되고, 나아가 수평적 관계를 생산하는 ‘사회적 공간(Lefebvre 2011)’의 공유가 가족들 사이의 동질감 및 유대관계를 높여주게 된 영향이 크다. 면담에서 엄마들은 자신들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결코 느껴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관계/경험을 갖게 된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희한한 관계”(한나),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알던 친구”(루피),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써니)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를 정의하고자 했다.

한 나: 아까 토스[연구자]가 얘기했듯이 뭔가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게 나누다보니까 어느 순간 막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우리가 서로 되게 깊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엄마들끼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는 했는데 집에 가서는 엄청 후회하고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막 그렇게 후회하고, 또 되게 부끄러웠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런 얘기하면서 또 엄청 울기도 울고 막 쏟아내고…. 그랬는데 이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거면 나는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서 진짜 그게 그순간 부끄럽고 집에 가서 되게 불편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만나면 또 어느 순간 서로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니까 나중에는 되게 희한한 관계가 되더라고.**

연구자: 희한한 관계?

한 나: 응…. 뭐라고 해야되지?… 친군가 가족인거 같기도하고 그냥… 되게 신기한 다들 체험을 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

'내밀함과 애정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가져오자면, 가족 밖의 사람들과 내밀함과 애정성을 나눈 경험이 이들에게 매우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애정의 공유는 가족과 같은 사적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를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같은 "희한한 관계"라고 말하며 2020년 3월에 개원할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 새롭게 합류할 신입조합원들과도 그러한 "희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제4장 아이가행복한유치원과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공동육아의 과정을 통해 친밀공동체를 이룬 숲이랑 7가족은 2020년 3월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조합에서 북극성은 전과 같은 이사장으로, 깊은산은 교육이사를 맡았고 한나와 꽃마리, 오로라는 유치원 직원으로 뽑혀 행정과 차량운행을 맡았다. 숲이랑놀자에서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공동체적 실천에 단련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조합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다. 신규조합원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 '부모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70가족의 서로 다른 이상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나아가야할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선택은 결국 7가족을 분열시켰다.

1.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의 준비과정

1) 조합유치원의 설립목적 - 사립유치원과의 차별화

본 장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1년 전 비리유치원 사태로 돌아가서 비대위 대표였던 북극성이 처음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을 기획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과 아이가행복한유치원 모두 북극성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대위 활동의 막바지에 이르러 한유총과의 싸움이 지지부진해지고 유치원3법 개정도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상황을 보이자 북극성은 기존 공/사교육의 이분법적 체계 안에서는 '유아교육 정상화'를 이룩할 만한 방안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너무 적어 사립유치원의 대안이 되지 못했고 유치원3법을 비롯해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먹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도 모르는" 곳에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다고 북극성은 말했는데,

특히 비대위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립유치원 운영의 실상과 익명의 내부고발자들로부터 받은 갖가지 제보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의 불신을 더욱 강화시켰다.

북극성은 동탄 내 위치한 20여개 유치원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장 월급부터 시작해서 교구교재, 현장학습, 각종 행사 등과 같은 곳에서 새어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계자료에는 1년동안 현장학습을 8번 간 것처럼 기록하고 체험비를 받아놓고는 실제로는 4번 밖에 가지 않았다던가, 페이백(payback)이라고 칭하는 거래업체 간 리베이트 방식을 통해 현금성 할인을 받아놓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횡령이 빈번히 일어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극성은 사립유치원들이 초임 교사를 담임으로 하고 연차가 높은 교사를 보조교사로 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정부가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명목의 수당을 착복해 왔다는 증언들을 제보받는 등 사립유치원이 여러 가지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교사가 항의하려고 해도 업계에 소문이 나면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 밖에 없고, 결국 사립유치원의 착복 행위는 관례처럼 굳어지게 되었다고 북극성은 설명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그는 사립유치원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비리유치원 사태를 촉발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 교육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유치원을 세웠는데 “자기네들 돈 투자한만큼 남겨먹어야”되니 점차 교육보다 ‘사업’에 치중하게 되었고 결국 “다 쪼개고 다 빼돌려서 자기네거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북극성: 맨처음에 사립유치원 비리 터지고 나서 그 이 회계에 대한 돈이 이 유치원에 남아있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게,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굴려볼려고 했던 그 설립자와 원장들의 생각이 짙었던거 같아. 눈에 돈이 보이니까.

자연스레 ‘돈이 남지 않는 구조의 유치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북

극성은 여러 사례들을 찾던 중 사회적협동조합과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협동조합유치원을 기획하게 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 수 없고 또한 이익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북극성의 기획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따라서 자본이 우선하여 결합된 회사와 달리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하며(한정미 2013),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이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하 조합유치원)은 유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조합원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출자금 납입) 이용의무를 부담하면(소위원회 활동 등)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북극성은 유치원회계와 조합회계를 완전히 분리시켜 학부모들이 내는 금액 중 원비는 유치원회계로 시설사용료는 조합회계로 산입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31] 원비 외에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누리과정지원금('21년 기준 원아당 26만원)을 지급받지만 지원금과 원비를 합쳐도 유치원회계는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다. 소모성 경비 등 유치원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조합의 예산으로 책정하여 처음부터 "마이너스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극성은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 "조합에서 유치원에 회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유치원 운영 전입금 등)을 설계

31) 2020년 기준 조합원 유치원 비용(출처: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네이버 카페)

항목	납부	금액	납부기준
출자금	가구당	400만원	가입시 1회
가입비	가구당	100(5세)/70(6세)/30(7세)만원	가입시 1회
시설사용료	원아당	14만원	월별
조합비	가구당	3만원	월별
아침저녁돌봄/차량이용료	원아당	신청시	월별
원비	원아당	10만원	월별

했는데 이러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엄마아빠들이 볼 수 밖에 없는 감시”의 체제가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왜냐면 유치원 자금운용의 최고결정권자는 원장이며 조합의 최고결정권자는 학부모인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모들이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적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극성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으며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방법이었다.[32)]

‘돈이 남지 않는 구조의 유치원’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반값 원비’의 실현을 통해 ‘공공성’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이것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항적 실천 중 하나였다. “남겨먹는게 기준”이 되어버린, 즉 ‘이윤의 극대화’가 사립유치원의 주요 사업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매해 원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는 가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북극성은 “남겨먹는” 돈을 제하고 오로지 “애들하고 선생들하고 잘 먹고 잘 키울 수 있는” 돈만 받는 구조의 조합유치원이야말로 학부모들이 고대하던 ‘반값 원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저렴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데 있다는 김종해(2004)의 연구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교육과정(누리과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조합유치원의 공공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시간을 연장하여 맞벌이 부부도 편하게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점도 공공성의 한 측면을 담당한다. 조합유치원은 방과 외 돌봄교실을 운영, 일정 금액을 내면 아침 7:30부터 저녁 7:30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데,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서는 제공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타 다른 사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고 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된다. 북극성은 한달 기준 총 9만원의 합리적인 비용만으로[33)] 유치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하는 맞벌이 가족의 아이들이 유치원 공간을 가정처럼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32)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또다른 방법은 유치원 회계를 1년 단위마다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었다.

33) 2020년 기준. 아침돌봄은 3만원, 저녁돌봄은 6만원을 내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식사 등 여러 돌봄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립유치원들과 차별화되는 조합유치원만의 돌봄서비스 제공은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김종해 2004)'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육아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유해미·김문정 2013).

나아가 돌봄의 확대는 비용 및 접근성의 측면에서 공공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돌봄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육아적 실천과도 맞닿아있다. 조합유치원은 공동육아 교육철학에 기초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놀이중심, 생태교육, 통합교육'과 같은 교과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유아-부모-교사의 3주체에 기반하는 공동육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궁극적 목표가 있다. 즉, 아이들에게 제도권과 차별화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부모와 교사 '모두의 인권이 실현되는 가운데' 상호돌봄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조합유치원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또하나의 방법적 도구가 된다. 초기 조합원의 일원으로 대외이사 및 교육이사를 역임하며 조합유치원의 공동육아 교육 및 조직체계의 설계를 담당한 깊은산은 "나에게 친절한 상담사이자 나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도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받을 때 "시장질서의 가치"를 넘는 '공동육아의 가치'가 실제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 깊은산: 근데 특히 동탄의 엄마아빠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게 이제 이 교사들에 대한 생각이 '교사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에게 친절한 상담사이자 나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가 뭐 말을 친절하지 않게 한다 나한테? 그건 나쁜 교사…. 그래서 물론 교사는 친절하게 얘기해줄 필요는 있는데 그 교사는 아이들의 선생님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동육아라는 지점이 우리가 일반 사립에서 시장질서에서 아이를 맡기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냐면 내가 고객이니까 내가 고객이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가치, 그니까 비리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분노의

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게 난 내 돈 냈는데 불량서비스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거에요. 왜 내 돈 가치를 하지못하느냐. 근데 이제 뭐 저나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열 받은게 어떻게 아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이한테 그럴 수 있고, 시장질서에서 보육이라는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겠구나라는 관점….

'상호돌봄의 관계망' 속에서 '실제적, 정서적,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발달적 욕구와 생활리듬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동인권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교사 인권의 실현은 교사회의 운영, 학급당 학생수의 제한, 교육과 기타 행정업무와의 분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북극성은 주장했다. 특히 북극성은 교사들의 임금과 복지 차원에서 다른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이는 앞서 북극성이 증언한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이 교사들에게 행한 갖가지 착복행위들, 그러나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서 함부로 문제제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FM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자: 아까 선생님들 월급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다고 했지?

북극성: 정담임은 이제 경력별로 딱 정해져있고, 그 담임교사들은.

연구자: 그럼 호봉표가 있나보네?

북극성: 호봉표가 있지. 호봉표가 이제 공무원보수호봉표 기준에 있어 교원호봉표. 그니까 교사와 원장과 그 조리사 해가지고 호봉표가 딱 정해진게 있어. 거기에 따라서 줘야해.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을 했다 전문대 졸업을 했다에 따라서 시작한 호봉이 다르고 이 사람이 유치원에서 몇 년 일했다 그거에 따라서 호봉이 일년씩 올라가는거지.

"사립유치원에 맞서" 진일보한 방식의(교사의 임금이나 아이들 먹거리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FM대로") 유치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던 북극성과 마찬가지로, 깊은산 역시 조합유치원이 대외적으로 "사립에 못

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깊은산이 주장한 “사립에 못지 않은” 모습이란 유치원의 조직 및 구조를 조합적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 모두가 공동육아철학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육아적 실천’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때 쓰는 방식처럼 “내가 고객이다보니까 내가 받아야할 가치”를 따지기보다 조합원끼리의 “믿음체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했다. 깊은산은 초기 조합원 중 공동육아를 경험해 본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첫째 아이가 다녔던 A시에 위치한 B어린이집처럼 이른바 ‘완성된 공동육아 터전’들은 결국 구성원들 간에 그러한 “믿음체계”나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성과 안정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들이 많았지만 그곳에는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온 “믿음체계”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떤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어떤 나고 빠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완성된 조직이자 집단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자: 그럼 깊은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철학을 꾸준히 가져가고 싶은거에요?

깊은산: 그렇죠, 쭉 가는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육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B[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놓고 공동육아였고. 약간 이미 그에 합의된 사람만 들어온다던지 아니면 이미 제도적으로 다 그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에 대한 저항감이 적은데 여기는 만들어야되니까.

북극성과 깊은산 모두 이 “믿음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조합유치원의 주요 과제임을 강조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협동조합방식의 조직 및 구조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에 알맞게 ‘적응’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공동육아적 실천과 동일시되었다. 다시 말해 조합이라는 제도적 방식이 조합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담지하는 틀이라면 공동육아이론은 “믿음체계”라는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준거가 된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에서는 이 둘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본적 운영원리로 삼으며 나아가 이 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나열된 가치와 성과들을 중심으로 조합유치원에서 이들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북극성과 깊은산의 설계가 부모들 사이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의 운영방식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합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과 공동육아라는 이원적 체계의 상호보완을 통해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 아래 그림은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기구를 개괄한 것으로 사협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공유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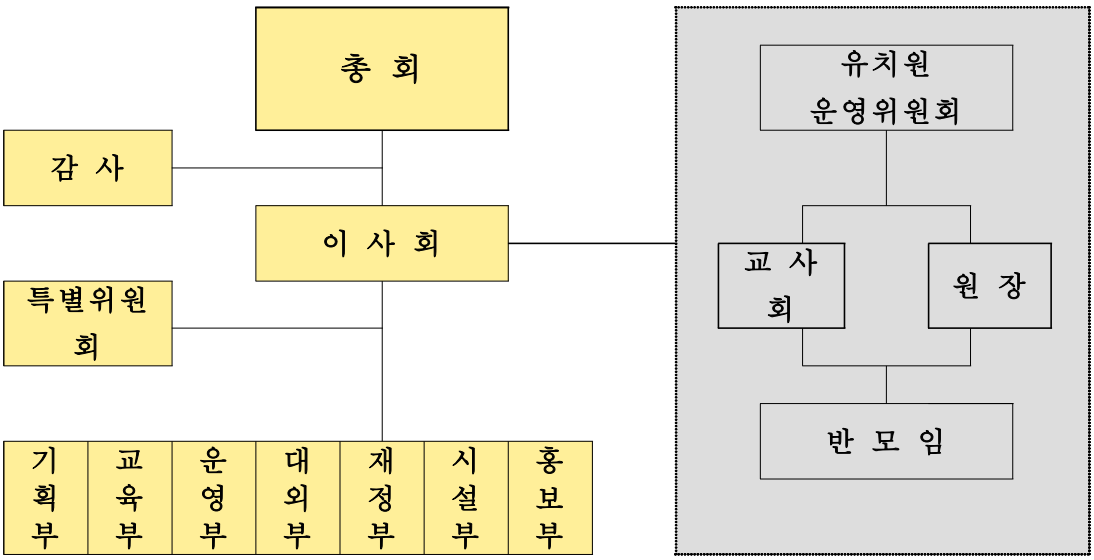

표1.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운영체계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길라잡이)

사협과 사협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각각 분리되어 운영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인데, 유치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건의할 사항이 생기면 반모임이나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반모임은 교사와 학부모가 월 1회 정도 모여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부모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소그룹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반모임의 대표격인 반장은 교사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같은 반의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사회로 전달한다.

사협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회 아래 이사회, 감사 및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실행하고 또한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 사항을 논의·결정하는데, 이를 위해 이사회 산하 총 7개의 부서를 두고 부서의 소위원회에서는 조합과 유치원에 필요한 제반 업무들을 담당한다. 소위원회 역시 조합원들로 구성되며 모든 조합원은 1개 이상의 소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모임 및 조합행사 주관(운영소위원회), 조합원교육 및 조합원상담(교육소위원회), 공모사업 및 연대사업 관리(대외소위원회), 유치원 내외 각종 시설관리(시설소위원회), 조합의 수입·지출·세무·보험 관리 및 총회 준비(재정소위원회), 홍보물 작성과 관리 및 유치원 조합활동 기록·편집(홍보소위원회) 등을 모두 부모들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운영소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겸하여 유치원과 조합을 이어주는 “교집합 단계이자 의사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는데 운영이사는 다른 부서의 논의사항들을 종합하여 유치원으로 전달하고 유치원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다시 각 부서로 배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북극성은 설명했다.

대개의 공동육아어린이집들은 초창기부터 이러한 협동조합의 방식을 취했으나 법적으로는 임의단체로 존재했었다.[34]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

34) 협동조합형 공동육아나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2004년부터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한 형태로 인정받아 보육료지원 등 재정지원을 받았다(조미라 2020).

이 제정되고 난 후 많은 공동육아어린이집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변화에 대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육아공동체가 법인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예컨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1) 운영형태의 일원화를 통해 '여기저기서 기워 만든 불편한 옷을 벗고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조미라 2020)'이며 2) 임의단체였을 때 존재했던 재정적 위험부담을 덜어 조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높이고 3) 민주적 합의 과정 및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합의 방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공동육아적 가치를 '제도화'했다는 것이다(장수정·류선정 2018). 특히 공동육아터전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갈등 중 하나가 구성원 간 참여와 업무 분담의 문제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참여와 활동을 강제하는 조합의 운영방식은 '공동육아적 실천'과 맞물려 빈틈없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고 북극성 강조했다.

연구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엄마아빠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

북극성: 지금은 코로나라서 활동적이진 않은데 이제 시설팀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방역하는 날 오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2주에 한번 1주에 한번 청소한다고 그러면 와가지고 애들 교구장 들어가서 직접 하나하나 다 닦고 이런 거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팀같은 경우에는 조합원교육하고 교사교육같은거 일정표 짜가지고 그 외주업체, 외부업체 공공교[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나 아니면 뭐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랑 만나가지고 교육일정잡고 뭐 금액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재정이사 같은 경우에는 재정쪽은 돈 관련된 거 원비 납부해주세요 엄마아빠들이 직접 얘기하니까 서로 부담도 좀 덜 되고, 돈 내야되는 입장에서는 '아 내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좋아서. 재정이사에서는 돈 관리하고 '돈 내세요, 원비 안냈으니까 좀 주세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집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런거 해주고 홍보이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아모집한다고 계속 엄마들이 여기저기 카페에 올리고 엄마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대외이사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주말에는 대관, 대관 신청을 해야하니까 대관공문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토요일날 문 안열어주는데 우리 때문에 문 열어달

라고 하면 대관 공문을 보내서 집에서 공문처리하고, 내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니까 문열어주세요 해서 그런거 공문보내는 사람 따로 있고. 지원금 사업같은 거 HBM[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창업팀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화성시 뭐 기금이나 이런 것들 사업같은거 막 갖고 와서 검토하고 자기네들끼리 오케이 사인나가지고 지원서류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거. 대외팀에서 서로 맡아서 하고. 하는 일들은 다 그렇게 다 배정은 되있어.

북극성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 및 유치원 운영 전반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일은 부모들이 담당하게 된다. 또한 조합원으로서의 업무 외에도 공동육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모 참여활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교육, 조합행사, 학습 소모임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및 반모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유치원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모들은 부모로서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유치원 일에 참여할 것이 기대되는바 두 주체는 분리되지 않으며 혼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들은 유치원과 조합 양쪽에서 모두 활동하며 동시에 이 둘을 잇는 다리 역할(운영위원회)도 맡아야 되는 것이다. 유치원과 조합이 이원적 체계로 운영된다면 부모조합원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중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중첩적 역할의 수행이 곧 공동육아공동체의 "믿음체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확신은 아래 깊은산의 면담에서 잘 드러나 있다.

깊은산: 제가 이제 저같은 경우에 우리 조합을 만들 때 공동육아를 경험을 하고 들어온 사람 중에 유일했어요. 그래서 북극성도 공동육아를 경험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유치원을 이제 조합은 북극성이 설계했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설계가 제가 한거라고 보면 되는데. 교육관이나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을 깨는 작업들이 되게, 깨는 작업들…. 부모의 참여를 해야 된다는게 일차적이고 이차적으로 부모가 참여한다는게 '내가 사장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거죠, 아직도 우리 신입조합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가 않아요. '아 엄마아빠들이 모여서 선생님을

고용하나보다' 그러면 저 원장들의 그 비리 저지른거 그런 짓은 못하겠지 하면서 그런게 아니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이 만들어간다는게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말 쉬운 같이가 아니고 정말 같이 하는거고.

그러나 깊은산이 "신입조합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중첩적 역할의 수행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매우 미진한 태도를 보였다. 숲이랑놀자에서 함께 공동육아를 했고 현재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의 행적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로라(40대, 女)는 이러한 부모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유치원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로라의 이야기는 앞서 (오로라의 배우자이기도 한) 북극성이 자신있는 태도로 '부모들의 힘으로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 말과는 차이를 보인다.

오로라: 쉽지가 않다. 코로나라도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만남이라도, 교육이라도 들어가면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못해. 만날수가 있어야지 뭘 하지. 그래서 총회도 서면으로 하고. 뭐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과정이 좀 복잡하거든. 인감증명서 내야되고 그 서면결의서에 인감도 찍어야되고,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가봐. 그래서 반도 안냈어. 총회를 하려면은 그 동의를 해주셔야되는 분이 정족수를 넘어야되는데. 제출하는게 있다보니까 엄마들 반도 안낸거야. 그래서 진행이 안돼. 이거를 공증을 받아야 총회는 효력이 있거든 그럼 전에 있던 이사들하고 꽃마리나 한나같은 애들이 이제 물갈이, 바뀌려면은 서류상으로 올라가야되거든, 공증을 받아야돼.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제 안녕하고 진짜 가는건데, 인감증명서를 안 주는거야. 요청을 정말 많이 했어. 근데도 일주일까지 시간도 줬고. [중략] 근데 어떤 엄마는 내가 대놓고 부탁을 했어. 그 엄마는 맞벌이였거든. 내가 인감증명서 갖고 오셨냐고 하니까 '본인이 떼는거에요?'하고 인상을 팍 쓰는거야. 이게 아니면은 공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 이해가… 공증이 뭔가부터 해가지고….

오로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은 조합원으로서 수행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마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깊은산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대해 아직은 '소비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소위활동이나 부모교육과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면 조합원으로서 역할 수행의 중요성이 서서히 각인되어 부모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조합원 모두가 깊은산과 같은 생각은 아니었다. 조합유치원이 개원하고 일련의 사건들(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 벌어진 후인 6월 중순 경에 연구자는 교육이사로 새롭게 부임한 도도와 북극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학부모들은 공동육아보다 바른 먹거리, 저렴한 원비 등 다양한 이유로 이 유치원을 찾아온 것이며 이들은 공동육아보다 그들이 원래 기대했던 부분들이 달성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도도 역시 공동육아보다는 놀이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놀이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모습을 몹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도도는 부모들이 '도대체 이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놀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치원의 질적 수준에 비해 이 원비가 과연 합리적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극성과 도도는 학부모들이 처음 유치원을 찾아왔을 때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나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식사, 반값 원비 등 조합유치원의 '일면적인' 부분에만 주안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극성은 사람들이 '공동육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며 유치원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보다 '조합'의 방식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육아와 사협의 상호보완적 체계를 기대했던 초기 북극성의 설계와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다. 특히 그들은 우아미(주임교사)와 깊은산이 조합보다 공동육아를 더 우선시하는 반면 자신들은 공동육아보다 조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깊은산이 자신의 공동육아철학을 유치원에 철저히 적용시키려고 고집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깊은산이 적용시키려하는 공동육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도도와 북극성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처럼 모호하고 추상적인, 즉 '비효율적'인 공동육아이론보다는 조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부모들이 유치원에 원하는 가치들을 개별적으로 충족시키기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개원 후 단 몇 개월 사이에 달라진 이러한 조합유치원의 분위기는 연구자를 몹시 당황시켰다. 조합-공동육아를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무엇이 더 유치원에 적합하냐'를 저울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극성과 도도의 말에 따르면 조합유치원에서 공동육아의 개념은 유치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있었고 전체 구성원의 활동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교육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합과 공동육아가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독자성을 띄는 개념'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공동육아어린이집들이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는 자율과 협력, 경제적 참여라는 공동육아의 원리를 수월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역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재정적 안정화를 꾀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도도와 북극성을 포함한 일부 학부모들은 조합을 '단일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함이 아닌 '효율적인 참여를 강제하는 도구'로 이해하고 있었다. '효율적인 참여를 강제하는 도구'가 필요한 이유는 개별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유치원의 모습, 즉 유기농 먹거리나 저렴한 원비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러한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숲이랑놀자 엄마들이 꿈꾸던 친밀공동체 형성의 목표는 점차 희미해져갔다. 7가족의 엄마들은 자신들이 바라왔던 친밀공동체의 이상과 조합유치원의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개원 이후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보인 일부 학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이 숲이랑놀자와 같은 소규모 집단에서와는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음을 7가족은 깨닫게 되었다.

결국 북극성네와 종달새네를 제외한 5가족이 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조합원 탈퇴가 아니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5가족의 탈퇴 사건은 조합유치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고하도

록 만든 일종의 분기령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북극성은 '친밀공동체'의 이상을 품었던 5가족의 엄마들과 생각을 달리했다. 그는 숲이랑놀자에서 하듯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방식의 일처리가 조합을 운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숲이랑놀자에서 하던 공동육아적 방식과는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숲이랑놀자에서처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길" 원하는 직원조합원(한나,꽃마리,진주 등)들이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요구하는 신규조합원과 갈등을 일으킨 몇몇 사건들은 이러한 북극성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5가족이 탈퇴하면서 북극성의 이런 생각은 더욱 공고해졌고, 결국 조합과 공동육아를 분리해서 이해해야한다는 주장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친밀성 감소의 위기

1) 개원과 함께 닥친 위기 - 예산부족 문제와 코로나19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개원하고 7가족들, 특히 엄마들은 처음 계획대로 조합과 유치원에 각각 배치되었다. 이들은 '공동육아를 경험한 사람들'로써 조합유치원이 자리잡을 때까지 신입조합원들 사이사이에 위치하여 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었고, 또한 숲이랑놀자에서부터 함께 조합유치원의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며 개원에 필요한 실무들을 맡아온 결과 어느 누구보다 새로운 유치원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조합의 정관상 북극성은 이사장, 꽃마리와 한나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사회에서 써니는 운영팀장, 한나는 교육팀장을 맡고 있었다. 또한 조합과는 별개로 유치원 교사회에 한나와 꽃마리, 진주, 오로라가 직원조합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꽃마리와 진주는 차량보조에 회계담당을 맡고 한나와 오로라는 차량운행을 맡게 되었다. 이처럼 엄마들이 1인 다역을 자처하게 된 이유는 조합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반값 원비'를 목표로 한 북극성의 조합 예산서에는 교통시설원이 1명만 등재되어 있는 등 교사를 제외한 다른 인건비가 매우 타이트하

게 잡혀 있었고, 무엇보다 이 예산서는 학생 정원 90명을 목표로(만 3세 2반/4세 2반/5세 1반) 설계된 것으로 현재 정원 70명 기준에서 들어오는 수입과는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예산서대로 재정이 운영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조합과 유치원은 개원 당시부터 힘들게 허리띠를 졸라 매야했다.

유치원 회계를 맡고 있었던 진주(40대, 女)는 기존 가족들보다 숲이랑놀자에 다소 늦게 합류하여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일에 함께 하게 되었지만, 개원 준비로 이미 많이 지쳐있던 다른 가족들을 대신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일했던 사람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개원 당시 유치원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생필품 살 돈'조차 없었다고 한다.

> 진 주: 맞아, 정말, 그게 그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야. 근데 본인[북극성]은 그걸 몰라.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자기가 예산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우리가 북극성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어. 응,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뭐 빈공간이 없는거라. 이게 뭔가 빵꾸가 나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는게 맞잖아. 통상적으로. 그러다가 차라리 원비를 줄이든가 원비를 처음부터 적게 잡아서 늘리는거는 진짜 힘들잖아. 이게 반발이 있잖아 사람들한테. 차라리 내 생각에는 차라리 넉넉하게 원비를 잡고 운영을 해보고 줄이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건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

북극성의 초기 설계와 달리 유치원 정원이 90명에서 70명으로 20% 이상 감축된 것은 유치원 내부 인테리어가 변경되면서 교실 한 개를 완전히 없애야 했고 그에 따라 원계획상 4세 두 반 중 한 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교실이 있었어야 할 자리는 '마당'이라는 이름의 넓은 실내놀이공간이 되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다소 복잡한 사정이 자리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학생 인원수와 규모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이다. 원래는 조합유치원이 자리한 목동이음터 바로 옆의 목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유의 실외놀이터를 함께 사용하려고 계획했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에서

는 조합유치원과 놀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목동초등학교 및 인근 아파트 학부모들과 조합유치원 사이에 목동이음터 사용 문제를 두고 큰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리유치원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즈음인 2019년 1월 경 교육청은 목동이음터 1층을 유치원 자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문제는 이곳이 원래 어린이도서관이 지어질 자리였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사용허가를 내준 결과 원래 1, 2층 전부를 사용할 계획이었던 도서관의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인근 지역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목동에는 이미 여러 유치원들이 있는데 굳이 도서관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새로운 유치원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했는지, 또 이러한 결정에 왜 인근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원래 목동이음터 준공이 2019년 5월에서 연말로 늦어진 것도 갑자기 유치원이 들어오면서 용도변경을 하며 공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단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시작되었고, 1월 23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참석한 '동탄2권역 지역회의'에는 입주민 200여명이 모여 '목동이음터 원안대로'를 외치며 집회가 진행되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유치원을 위해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동절기 기간이라 중단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서관의 면적이 축소된다는 소문은 왜곡된 것이며 요리교실과 전시할 수 있는 복도 부분을 줄여서 오히려 도서관과 유아열람실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상황이 몇몇 언론을 통해 지역에 알려졌고 '정부 주도 특혜유치원에 혈세 지자체건물 통째 뺏겼다'는 기사제목처럼 그 내용은 조합유치원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35] 기사에는 '협동조합유치원도 엄연한 사립유치원이며

35) 스카이데일리, 2019. 3. 20., "정부 주도 특혜유치원에 혈세 지자체건물 통째 뺏겼다"
NSP통신, 2019.1.24.,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동탄2권역 지역회의"

목동이음터 공간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것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인터뷰가 실려있었다. 또한 조합유치원이 들어옴으로써 이음터 완공이 늦어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사장의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치원이 개원하고 나면 건물 주변 도로에 주정차 문제와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조합유치원이 이음터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상 조합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북극성은 아파트 입대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는 다르며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에 맞서 유치원3법을 준수하는 유치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과 비아냥뿐이었다. 연구자는 당시 조합과 아파트 입대위와의 회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으나, 회의 자리에서 심한 충격을 받은 북극성이 이후 공황장애와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극성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이룩하겠다는, 자신의 원대한 목표가 담긴 조합유치원이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한다', '조합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또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등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했다.

조합에서는 입대위에게 유치원 차량 운행을 통해 건물 주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정기 무료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등 목동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합유치원을 바라보는 목동 주민들의 눈빛은 곱지 않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근 아파트 어린이들이 다니는 목동초병설유치원의 놀이터를 조합유치원이 사용하기란 말그대로 언감생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조합유치원의 복도 끝 창문에서 바라보면 병설유치원 놀이터가 1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철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터를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둘러가야하며, 그것도 유치원 일과시간에는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조합유치원 아이들이 병설유치원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원 후에 따로 개별적으로 놀러가는 것만이 가능하다.

결국 실외놀이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조합유치원은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1개 반의 교실이 사라지게 되어 사실상 북극성의 초기 예산안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했다. 진주의 말처럼 원비를 올리거나 출자금을 올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맞서" 반값 원비로 공공성을 실현하겠다는 북극성의 의지가 대외적으로 꾸준히 공표되어 온 이상 이를 쉬이 포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반값 원비'는 조합유치원의 공공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였으며 동탄의 부모들을 다른 유치원이 아닌 조합유치원으로 오게 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북극성은 원비 1만원을 올리는 것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숲이랑 가족들이 원비를 인상하자고 끊임없이 제안을 해도 다른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로 설득하려고 했다.

문제는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여기에는 조합원들의 적잖은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우선,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숲이랑놀자 엄마들은 1인 다역을 자처하며 인건비부터 아끼려고 했다. 한나나 오로라는 처음엔 차량운행만 맡으려고 했으나 행정인력이 부족해지자 꽃마리와 진주의 업무에 긴급하게 투입되었다. 꽃마리와 진주가 맡은 회계업무는 회계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아무런 사전교육 없이 맡기엔 다소 버거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전문인력을 뽑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주의 말처럼 "일단 부딪혀서" 해보는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회계업무만도 감당하기 벅찬 진주와 꽃마리에게 교육청은 각종 공문들을 내려보내며 회신을 재촉하였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20년간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이곳 유치원에 주임교사로 부임한 우아미가 공문접수를 대신해 주려고 했지만,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은 주무부처가 각기 달라 공문 서식도 다르고 공문의 양도 많아 우아미도 혀를 내둘렀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며 긴급보육 외 전국 보육시설 폐쇄명령이 떨어지자 입학을 취소하거나 원비를 돌려받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늘어났고 유치원은 예상치 못한 재정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학부모들은 처음 북극성이 설계한 대로 아이 1명 당 매월 원비 10만원과 시설사용료 14만원을 합친 24만원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유치원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니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조합을 탈퇴할테니 당장 출자금을 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다. 조합의 정관에 탈퇴시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 3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본인 서명이 담긴 설명서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오로라는 말했다.

오로라: 근데 코로나가 빨리 끝이라도 나야지 이게 중간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그냥 가정보육으로 들어가는거야. 특히 7세, 애매하잖아. 한 학기가 벌써 다 끝났어. 근데 여기는 시설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쉴 때도 내야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원비있잖아. **원비 10만원 부분에 대한 지원만 좀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사용료 부분은 자기 생판 안 나가도 돈을 내야되니까. 초반에 이것 때문에 엄청 마찰이 좀 있었어. 계속 전화오고 막. '아빠가 인정 못한대요 다시 설명해주세요' 해서 전화로 설명하고 북극성도 동영상까지 찍어서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부분이 없으면 힘들다, 선생님도 나와있고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되고 토지이용료도 내야되니까. 조합원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야되고 만약에 여기서 적자가 나면 조합원들이 엔분의 일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이거를 아직 인지를 못 하는거야.**

유치원 전체 행정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개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행정 경험이 있는 직원도 없는데다 코로나19라는 전래없는 재난을 맞닥뜨린 유치원의 상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원래대로라면 긴급휴원령을 내린 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 원비 환불 기준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교육청 역시 코로나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 지

침이 빨리 내려오지 않았고, 유치원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기준이 없어서 우왕좌왕했다.

북극성: 교육청에서도 빨리 기준은 잡아줘야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기준이 없는 대신에 원비를 환불해주는 조건에 대해서 '없다, 명확하게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안해줘도 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처럼 예산부족과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사회, 교사, 직원조합원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유치원 분위기도 훨씬 좋아질거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는데, 이 '위기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은 조합원마다 달랐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방법도 모두 달랐다.

우선 깊은산은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을 위해 "십시일반 고통분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며 부모교육이나 총회 등의 만남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를 교육하면서 이른바 '소비자적 마인드'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야지 비로소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이 만들어가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 즉 부모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돈 가치"에 연연하며 유치원에 "불량서비스"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적어 이사회 단체메시지창에 공유했다. 그러나 이를 본 어떤 조합원이 '이사회는 이런 식으로 부모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크게 화를 내며 자신이 반장으로 있는 반의 단체메시지창에 깊은산의 글을 캡쳐해서 올려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오로라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오로라: 단톡방에서 홍보 그 이 사안에서 그 아직 회의록에 대한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원하는대로 하려는 그 분에 대해서 그 홍보이사로써 깊은산을 이사회방에 얘기를 좀 해서 **이런 부모도 있더라 아직 교육이 안되다보니까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재정이사가 발끈**

하는거야. 아니 부모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재정이사가 발끈하면서 깊은산이 그 홍보방에 약간 이런 사람이 있다한 부분을 캡쳐해서 올리면서 왜 이런식으로…. 단톡방에 깊은산이 이런 엄마도 있다하면서 이사회방에서 올렸어, 올리고 그 재정이사 안보고 있다가 한참 후에 그 부분을 캡쳐해가지고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부모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북극성 역시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십시일반 고통분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었지만 깊은산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다. 그는 ‘조합’이라는 체계 자체가 사실상 조합유치원을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했으며 조합유치원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즉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각 조합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 지금은 업무분장이 정리된거야?

북극성: 그렇지. 이제 정리가 된 거지. 정리되는 거 중에 가장 큰 산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거 같아.

연구자: 이 업무를 해야되는지 받아들여야되는지?

북극성: 그렇지. ‘내가 이걸 왜 해야되나 내가 아무리 소위에 있지만’…. 이런 게 가장 큰 넘어야될 가장 큰 산인거 같아. 그게 힘들면 이제 계속 부딪히고 트러블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따라서 북극성은 ‘조합’의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하며, 하물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조합원이라면 더욱 더 자신의 일을 감내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난을 감수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극성은 조합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 무지개네 사건 -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산 부족과 코로나19의 위기는 조합을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빠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였다. 오히려 “십시일반 고통분담”의 경험을 통해 조합을 하나의 공동체로 단결시키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본 장과 다음 장에서 다룰 일부 사건들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추구하는 공동체적 이상(理想)에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앞의 위기와는 다른 차원의 해결방법을 필요로 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부모조합원 중 한 사람이었던 무지개가 유치원에서 자신의 자녀인 민호(가명)가 여러 차례 상해를 입은 사실을 근거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었다. 본 사건의 전후상황에 관해서는 북극성과 오로라, 깊은산과 같이 현재 유치원에 남아있는 조합원을 통해서만들을 수 있었고,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무지개네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던 관계로 여기에서는 현 조합원들과의 면담내용 중 최대한 사실관계만을 추려 사건의 발단과 쟁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무지개는 민호의 아빠이자 앞서 조합이 목동 아파트 입대위와 이음터 사용문제로 갈등을 빚을 당시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북극성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던 2019년 입대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조합원 자격으로 함께 참석을 했는데, 알고보니 무지개는 입대위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 입대위를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로 일했기 때문이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우연치 않게 두 조직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줄,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북극성이 입대위로부터 심하게 비난받는 모습을 목격한 무지개는 결국 ‘부담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조합을 탈퇴하게 된다. 그 후 개원 직전에 무슨 이유에선지 유치원을 다시 찾아와 연신 사과를 거듭하며 조합에 등록하였고 민호를 조합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개원 이후에 발생했다. 민호가 일과시간 중 혼자 놀다가 다치거나 다른 아이에게 물려오는 등의 상해 사고가 연달아 3번이나 발생한 것이었다.

오로라: 들어왔어. 근데 애[민호]가 그 자기 애가 놀다가 다치는거야. 제자리 뛰기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턱을 딱 찧었어. 여기가 찢어졌어. 그래서 봉합하고 '우리 애를 좀 잘봐주세요 우리 애 좀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또 여기가 어디가 또 멍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 또 죄송합니다'. 나도 '죄송합니다', 북극성도 전화 걸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우아미도 죄송하고 다 했어. 근데 또 이따보니까 애가 또 지 혼자 책을 바닥에 대고 밀다가 쿵 찧어서 코피가 났어.

연구자: 유난히 자주 다쳤구나.

오로라: 그니까, 와 나도 이제 막 닭살까지 돋는거야 또 걔냐고. 왜 그렇게 자주 다치지. 그래서 또 코피사건까지는 엄마가 '나는 아빠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알리지 않겠다, 제발 좀 잘봐달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직원들도 걔만 보면 걸어다니라고. 애가 계속 뛰어다니는거야. '걸어다녀라 너만은 다시 다치면 안된다' 했는데 애가 여기 물려온 자국이라면서 엄마가 노발대발하면서 온거야. '여기서 애가 물렸어요' 하면서 이빨자국이 좀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니 이것은 또 무슨 소리야….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해는 아이가 혼자 놀다가 다친 것이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일단락되었지만, 세 번째 상해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다쳐온 자국인지 몰라 유치원 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했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호의 "물려온 자국"은 자유놀이 시간인 12시에서 13시 사이에 '벌집놀이터'라고 불리는 실내놀이터 한쪽의 동굴 모양으로 생긴 미끄럼틀 안에서 아이들끼리 "어흥놀이를 하면서 칵 깨물"어 생긴 상처였다. 그곳은 CCTV가 잡히지 않는 곳이었다.

화가 난 무지개 부부가 유치원에 찾아와 요구한 사항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전체 CCTV 녹화내용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민호의 엄마에게 아이가 다친 부분과 관련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요구한 것은 사건 당일 전체가 담겨있는 CCTV 녹화분이었다. 그러나 온종일 CCTV 녹화분에서는 다친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

생들의 얼굴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 보호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화면 속 아이들의 얼굴에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했다.

유치원이 각 조합원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받는 동안 그들이 요구한 두 번째 사항은 조합 탈퇴와 출자금 환불이었다. 앞서 말했듯 출자금은 정관상 탈퇴 다음 회계연도에 전액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지개는 그가 낸 출자금과 가입비, 시설사용료를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도 회의를 열어 무지개가 원하는대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것은 더 이상 조합과 조합원(무지개네) 사이에 "감정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사실 민호가 세 차례나 연달아 상해를 입은 건 우연치곤 너무나 잦은 '사고'였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고 이 이상 민호를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민호가 절대 '다치지 않도록' 뛰지 않고 놀지 못하도록 아이의 행동을 원천봉쇄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무지개가 주장하는 "학대의 정황"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는 민호의 상해가 "제대로 보육을 잘 못한" 결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합과 유치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사실 이런 류의 공방은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교사가 여러 주의를 기울이고 규칙을 가르쳐줘도 집단생활을 하는 이상 아이가 다쳐오는 일은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부모마다 다른데,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넘어가는 부모가 있는 반면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이곳 '조합유치원'에서만큼은 그러한 일들이 없을거라고 내심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지개네 사건은 꽤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사립유치원에 맞서 부모들이 직접 만드는 유치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 유치원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들이 만드는 유치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리는 없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온 부모들은 여느 유치원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종류의 사건이 조합유치원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것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같은 부모조합원이자 교직원으로 사태 중재에 직접적으로 나서야만 했던 오로라는 사건을 겪으며 그가 원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유치원의 상황에 크게 회의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숲이랑놀자에서의 생활과 조합유치원의 모습을 비교하며 숲이랑놀자에서 경험했던 "인간적인 관계"나 "친근함"을 조합유치원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나 교직원 모두 동등한 하나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합의 원리는 실제로 오로라가 직원의 위치에서 경험한 것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오로라는 조합유치원을 구성하는 내부적 관계가, 다른 사립유치원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유치원]는 판매하는 사람, 그 사람[부모]은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로라: 나는 스튜디오[사진관]를, 대구에서 스튜디오를 하면서 애들 엄마를 만났잖아. 그때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맞추기도 힘들고 이랬는데, 유치원은 더 심해. 그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치면, **우리가 조합원으로 만났는데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 그니까 우리는 판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소비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면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 오로라가 일을 할 때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뜻이야?

오로라: 그니까, 음,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기는 애를 보내고 돈을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가 필요하잖아, 청소같은 거에. 우리도 청소를 그 뭐지, 인력이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자기가 아이를 보내는 곳을 알아보라고 원래 다른 유치원들은 다 닫혀있잖아. 현관에서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야 일부러 차단을 시켜. 들어가서 자세히 보지 말라고. 이유야 뭐 알겠지만, 우리는 일부러 오픈해 놓거든. 애들이 어떤 장난감을 쓰고 어떤 걸 하고 여기서 무슨 생활을 하는지 애들 가방은 어디에 넣는지 이런거 자세히 보라고. 근데 참여율도, 물론 코로나, 코로나가 쫌 그렇지…. 그것

때문에 반모임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친근함이 아직 안 이뤄져서 그런지.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단톡방이 있긴 한데 그냥 공지하고 받는 식으로 원래 공동육아는 그게 아니거든. 서로 교류를 하고. 감정적으로도 교류하고. 만남을 가지고 애기들끼리도 이제 친근함을 가지는게 문젠데. 약간 그게 힘든거 같더라고. 좀 달라, 그리고 규모도 조금 대규모다 보니까…. 그런 친밀한 교류가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생소한 느낌이고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런게 조금 느껴진다고나 할까.**

하지만 오로라는 조합유치원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며 놀이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말하며 기존 사립유치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모들과 관계 맺으려 노력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북극성이 회계 투명성을 장점으로 내세웠듯, 유치원은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투명성과 개방성을 추구했다. 공동육아 터전에서는 언제든 부모들이 찾아오는 것을 환영하며 등하원 시간에 터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교사들과 다른 부모들,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교사-가족이 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친근함”을 형성토록 하기 위함인데, 오로라가 유독 이를 강조한 것은 “친근함”이 곧 조합유치원-부모 사이의 ‘신뢰’를 형성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사립유치원이 ‘계약이행의 의무’ 위에서 유치원-부모 사이의 신뢰관계를 대응시키는 방식과는 다르다. 오로라는 유치원-부모 사이의 “친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부모가 유치원의 입장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소비자적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유치원에 자신이 원하는 걸 요구하기 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육아적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지개네 사건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오로라는 주장했다.

그러나 1) 개원 직후 교류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고 2) 코로나19로 인해 만남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3) 인원이 대규모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빌어 조합 차원에서 “친근함”을 형성시키려는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했다. 깊은산도 무지개네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합이 무지개에게 “어떤 신뢰와 믿음을 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무지개네 사건과 같은 일들이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다만 이것은 초기 조합원들 간에 “믿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깊은산: 안타깝죠, 근데 그런게 이제 그 문제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조합을 만들고 할 때 초기 조합원만의 어떤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다음 믿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있어서 일종의 좀 미끄러진거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던간에 조합이 어떤 신뢰와 믿음을 줬으면 이렇게까지 안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장에서 논의하였다시피 깊은산은 조합과 공동육아교육철학의 이원적 체계와 그에 따른 부모들의 중첩적 역할의 수행이 “믿음체계”를 형성시킨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즉, 조합-부모 사이를 규정하는 것은 아직은 정관이나 규약, 본인 서명이 적힌 가입신청서 같은 문서들뿐이었고 그런 것들이 둘 사이의 신뢰나 “믿음체계”, “친근함”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지개네 사건과 같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조합-부모가 의존한 것은 결국 CCTV와 “법적 책임” 같이 “믿음체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하물며 깊은산도 무지개네 사건은 소송으로 간다해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오히려 “법원에서 법적책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라고 믿었다.

깊은산: 저는 이제 이사회에서도 이야기를 한게 소송가는게 민사소송, 형사처벌도 아니고 민사소송은 되게 두려워할게 없고 뭐냐면 **무지개랑 감정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법적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해달라. 우리의 법적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될지 우리도 모르고 조합원들도 자세히 모르니까 법적 책임을 법원에서 맡겨서 법원에서 법적책임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는게 얼마가 맞다고 하면 돈을 주는거고, 그 부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거 같**

다고 얘기를 하는거고.

오로라의 말에 따르면 처음 유치원을 설계할 때 CCTV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람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예컨대 써니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에 기반하여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실에 CCTV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우아미는 공동육아어린이집에는 CCTV가 없어야하며 공동육아는 '믿음'을 기초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거듭된 회의 끝에 우아미가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보았고 결과 결국 '추세'에 따라 CCTV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오로라는 무지개네 사건을 겪은 후 되돌아보니 CCTV를 설치한 게 옳은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오로라: 우아미가 다른 공동육아랑 얘기를 해보다가 거기도 무슨, 애가 다친 사건이 일어나서 부모들이 씨씨티비를 달라고 막, 달아 달라고 막 했대. [공동육아]어린이집에. 약간 추세가 약간 그런가봐. 이렇게 얘길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도 CCTV 있긴 있어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어차피 뭐 문제가 생기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라도 있긴 있어야 되니까.**

이희은(2014)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높아진 "안전과 규율에 대한 열망"은 사람들을 "자발적 감시체계"에 순응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감시체계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CCTV와 같은 여러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감시되더라도 그것이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면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며, 나아가 개인적 선택에 따른 '자발적 감시'라는 이유로 여기에 부착된 억압적 통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나 학교와 같은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공적인 담론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단순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탓"으로 돌려지고 마는데, 무지개네 사건에서도 CCTV의

존재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뿐 실제로 다툼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생긴다”는 오로라의 말처럼 CCTV가 민호의 사고 자체를 예방해준 것도 아니었다.

이처럼 CCTV가 사고의 예방이나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라는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시체계가 집단의 안전과 규율을 보장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파편화된 개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것은 조합유치원이 원래 설계한 방식의 “믿음체계”와도 같지 않은데, 왜냐면 “믿음체계”는 부모-아동-교사 각각이 개별 주체들로 인정받을 때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되고 있는 바, 감시의 테크놀로지 하에서 행위자들은 매순간 감시의 객체가 되고 자기규율에 힘쓰지 않으면 집단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주체적 실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CCTV의 존재가 교직원들의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에 일말의 기여를 할 수는 있다. 그렇다해도 결국 CCTV의 존재는 ‘아무도 너의 행동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함으로써 믿음의 균열을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무지개네 사건으로 인해 CCTV는 유치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급부상하였다.

3. 사회적협동조합과 친밀공동체의 분열

1) 친밀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

숲이랑놀자에서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 연구자의 눈에 비친 엄마들은 언제나 바쁘고 다소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터전에서 공동육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업무도 병행해야했기 때문이다. 원래 숲이랑놀자는 품앗이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며 엄마들도 공동육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조합/유치원과 관련한 일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에 따라 이사나 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엄마들은 숲이랑놀자에서도 맡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유일하게 조합원이 아니었던 삐삐네 가족이 9월 즈음 터전을 떠나자 숲이랑놀자는 더 이상 품앗이 공동육아를 하는 곳이 아니라 '조합유치원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엄마들은 조합일로 인해 숲이랑놀자가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지만, 그만큼 조합/유치원을 준비하는데 많은 품과 시간이 걸렸기에 결국 '조합이 공동육아를 잠식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참고할만한 선례나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시간동안 공동체 내부를 할퀸 심각한 갈등들이었다.

> 깊은산: 진짜 힘들었어요. 만드는데 행정적인 부분들, 일단 전래가 없었고 행정관청에서도 우리 어떻게 도와줄지 몰랐고 제도도 없고. 우리는 만들어도 된다는 것만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법은 아무 법이 없어요. '만들어도 된다'라는 법 외에는 우리를 지칭하는 아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아,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게 '우리가 너희한테 관심이 많아'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모으고 중간에 뭐 지역민과의 마찰이 있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내 최초의 유치원. 이 유치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의 연속이었다. 최초라는 타이틀만큼이나, 깊은산의 표현대로 "우리를 지칭하는 아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숲이랑놀자 7가족들을 포함한 초기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가야할 직접 길을 개척해야 했다. 조합이라는 체계 자체에 문외한이었고 유치원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되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은 조합유치원을 준비하며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북극성이 처음 학부모형 협동조합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었을 때 서철모 화성시장이 장소를 마련해보겠다고 먼저 제안은 했지만, 이음터 자리를 임대해준 것 외에 유치원이 개원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은 조합

스스로가 구해야 했다. 숲이랑놀자에서 공동육아를 하며 개원까지 남은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우선 조합 인가를 받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법인에 속하는 일반협동조합보다 설립절차가 훨씬 까다롭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확인증을 받고 설립등기를 하면 설립이 완료된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신고'가 아닌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36] 물론 이러한 절차를 맡아서 해주는 공인행정사들이 있지만 예산 부족에 허덕이던 조합이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은 없었다. 결국 조합원들이 개인 시간과 휴가를 내어 인가 준비에 매달려야 했다.

6월 5일에 조합인가증이 나오고 비로소 유치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유치원 설립 역시 조합만큼이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준비를 필요로 했다. 처음에는 부금성과 한나, 오로라, 꽃마리 등 몇몇 조합원이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했는데 조합 인가 후 개원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게 되자 모든 조합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일에 뛰어들어야 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들에겐 경험도, 선례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들을 감당해야 했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기

---

36) 인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지역사업형/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혹은 고용형/위탁사업형/기타 공익증진형 중에서 주사업유형을 선택한 후 주사업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 역시 조합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부 사업내용이 비영리활동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조합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정된 위탁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무실 실사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시 주무관청으로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그 사이에 관련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인가서류를 다시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또 임시총회를 열어 수정보완을 해야하는 등 행정적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작하면서 북극성과 나머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조합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개인의 책임이라고 특정 지우기 어렵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원인들이 중첩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문제가 재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은 매우 예민해졌다. 조합이 가진 예산이 너무 빠듯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처음 내부 인테리어를 구상할 때 만장일치로 최고급 소재만을 쓰자고 결정했었다. 교재·교구와 가구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뜻에서였다. 실내놀이터를 만들 때도 다른 유치원들은 쓰지 않는 최상급 원목만을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놀이터로 인해 예산이 크게 초과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유치원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환경 인증검사업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비용이 든다. 그러나 초기 예산에는 이러한 비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다른 유치원들은 처음부터 '놀이터 인증을 받은 업체'에 공사와 검사를 동시에 맡겨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데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돈과 시간 모두를 허투루 쓰게 되어버린 조합원들은 놀이터가 누구의 담당이었고 누구의 책임이었는지를 따져가며 언쟁을 벌였다. 아이들을 위해 '최고급 소재'를 쓰자고 입을 모았던 과거의 회의 자료는 이러한 책임공방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통학 차량도 '예산 초과'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북극성의 말에 따르면 통학차량을 현금을 주고 사버리는 바람에 "최후보루였던 돈마저 날아가" 조합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업체에 미리 주문 제작해서 1월 경에 출고를 했으면 갑작스레 큰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북극성은 엄마들에게 통학차량을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거듭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미뤄지다가 사단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북극성의

독단적인 태도였다. 비대위때부터 고군분투해왔던 북극성은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조합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원했는데, 또 자신만큼이나 조합/유치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모든 일에 관여하려고 했다. 물론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일반 조합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만든 것도 있었고, 비리유치원과 한유총에 맞서 상징적 인물이 된 이상 북극성 감당했어야 할 부담이 목표달성을 향한 추진력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엄마들 역시 '북극성이 모든 부분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의 능력과 수고를 인정한 반면 리더로써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드러냈다. 깊은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합원 모두의 합의 하에 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북극성과 깊은산의 모습에 엄마들은 큰 회의를 느꼈고 점차 조합과 공동체를 '분리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때의 '분리'는 북극성/깊은산이 원하는 것처럼 행동양식 혹은 업무방식에 대한 '분리'라기 보다는 북극성/깊은산은 조합을, 엄마들은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집단적 경계 짓기'에 가까웠다.

엄마들이 조합유치원이 개원한 후에야 비로소 조합과 공동체를 분리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북극성과 깊은산은 처음부터 조합이란 '공적인 것'으로써 공동체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북극성/깊은산은 엄마들이 '기다려 달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동육아'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조합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생각이 달랐던 이유는 엄마들은 숲이랑놀자에서 공동육아를 했고 북극성/깊은산은 공동육아를 경험하지 않은 차이에 있다. 물론 북극성은 배우자인 오로라와 자녀들이 숲이랑놀자에 있었기 때문에 7가족과 '같은 육아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숲이랑놀자가 조합유치원을 개원하기 전에 머무는 임시적인 공간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일종의 과정이라고 여겼다. 그에겐 엄마들이 숲이랑놀자에서 공동육아를 하는 것도 '조합유치원을 위한' 것이었다. 북극성의 목표는, 비대위 시절부터 일관되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희망'이 되는 것

이었다. 숲이랑놀자는 이 목표를 향한 최초의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숲이랑놀자 엄마들은 처음엔 조합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단지 공동육아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숲이랑놀자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그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종달새는 숲이랑놀자 당시 자신과 써니, 루피네까지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삐삐네만이 남게 되었을 때 온가족 데이에서 북극성이 계속 조합일을 이야기하자 매우 불편했었다고 이야기했다. 삐삐는 당시 조합에 등록도 하지 않았고 조합유치원에도 가입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극성은 이에 대한 배려없이 마치 숲이랑놀자에 '조합원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 종달새: 우리가 중간에 공동육아할 때 한 중간쯤에 이제 캠핑을 근처에 갔어. 삐삐는 그때 조합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가면 북극성은 사실 이게 무슨 얘길하면 북극성은 유치원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그거 밖에 없는거야, 유치원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는거야. 그러면 가면 물론 나는 가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삐삐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계속 그 유치원 얘길하고 있는거야. 공동육아를 어쨌든, 우리가 공동육아에서 캠핑을 간건데 계속 유치원 얘길하는거야.

숲이랑놀자에서 함께 하지 않았고 대외 업무만 맡아온 깊은산 역시 엄마들과 숲이랑놀자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았다. 그와 숲이랑놀자 7가족은 조합을 위한 도구적 관계에 기초해 있었다. 조합유치원이 개원하고 몇몇 엄마들이 차량보조 및 행정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북극성과 깊은산은 이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이상'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북극성과 깊은산은 그들이 받는 돈이 정부지원금과 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이념이 '평등'의 가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별 조합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할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라고 북극성과 깊은산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극성: 만약에 그냥 돈을 받지 않고 일반 이사진들이었으면 이해하고 내가 했어도 되는 일이겠는데. 뭔가 에듀파인이든 ERP든 전문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계정을 설정하고 뭔가 돈의 흐름을 알아야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거를 조합일까지 연장선에 그 철학을 끌어들여서 '천천히 이해해줘, 양해해줘, 너희들도 도와줘야돼' 이렇게 얘길하니까 거기에서 대립이 좀 심해가 됐었어.**

깊은산: 철저한 규율은 아니지만 너와 나의 약속이 있어야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이…. 전체적인 일이 이게 그 뭐냐 **유치원이란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행정 업무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품앗이 때는 그냥 미뤄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안 채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사립의 어떤 대안적인 모습을 할려면 기존 사립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하지만 기존 사립에 못지 않은 모습도 보여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애들은 자유롭긴한데 그냥 개판이야' 되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못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냥 '우리는 하나야' 뭐 이렇게만 가서는 되게 힘든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되었을 때는 힘들어하는거죠. '공동육아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고 해야되는데 왜 너는 기다려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처음에 당연히 '아 미안해 내가 좀 마음이 급했나봐' 이렇게 되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안 갖춰졌을 때 그럼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컨대 북극성과 깊은산은 조합을 이른바 '공적인 임무를 맡은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합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다. 조합은 자신의 존재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원했고, 마포 성미산마을과 같이 지역을 아우르는 마을공동체로 발전하고 싶어했다.[37] 정규호(2012)는 2000년대 후반부터 달라진 도시공동체의

37) 성미산 마을은 이곳 조합유치원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꿈꾸는

조직양상을 ‘협력적 대안모델형’으로 정의하며 ‘행정(지방)+민간단체+전문가+지역주민’의 다주체간 협력과 소통이 도시공동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주장하였다. ‘협력적 대안모델형’이 과거의 도시공동체운동들과 다른 점은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관주도의 사업방식을 벗어나 참여 주체간 협력을 높여 ‘미시적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오는데 있다. 특히 정규호는 위 주체들 ‘사이’에 존재하며 이들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공공영역이 가진 자원을 민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역할이다. 최근 서울시를 필두로 각 지자체들은 지역주민 간 공동체성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너나할 것 없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조합유치원에게 이음터 자리를 제안한 것도 애초에 조합이 위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의도와 의지’가 숲이랑 7가족의 공동체를 와해시켰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북극성과 깊은산, 그리고 엄마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 예산이 부족해서 2) 북극성의 독단적 태도로 인해 3) 조합과 공동육아의 이념이 혼동되면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고 판단했지만, 사실 갈등 뒤에 은폐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자기규율의 논리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선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숲이랑 7가족의 친밀공동체가 분열되어 버린 상황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 박주형(2013)은

공동육아 터전들에게 일종의 ‘귀감’으로 소개되고 있다. 성미산 마을의 시초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하고 있었던 두 개의 작은 공동육아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모임은 ‘마포두레생협’을 만들어 공동체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성미산 일대가 위기를 맞게 되자 주민연대와 결합하여 개발사업을 저지함으로써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지역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도시마을’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는데, 특히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시 차원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종의 ‘모범적 사례’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위성남 2013). 숲이랑놀자 가족들은 마포 성미산마을을 방문하여 실천사례를 배워오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국가는 “물러나는 것(rolling-back)”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통치의 기술을 시민사회 전면에 드리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마을공동체는 “통치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하나의 결절(node)”로써 작동하며 통치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주형은 김영미(2009)의 연구를 빌어 마을공동체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육화’하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하지만 권력의 지배방식은 지배대상인 마을공동체를 일방적으로 억누르고, 제압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한 방식의 규율적 통제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최악의 경우에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주민사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의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이른다.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행동방식이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해관계와 잘 부합되도록 통솔되는 범위 안에서 주민의 자율성과 자치가 보장되는 것이었다.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통치 전략’이 배치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며 집단이다. 조합은 결성 당시부터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공표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며 그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의 에너지”를 헌납하기로 약속했다. 이음터를 빌려준 것 외에(물론 임대료도 받는다) 교육부나 화성시에서 이들에게 특별히 도움을 준 것은 없었다. 조합은 ‘화성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의 방식으로 1000만원에서 25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이것 역시 조합원들이 발로 뛰어 얻어낸 것일 뿐 시혜적 차원의 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들어간 물질적 자원들은, 북극성의 말처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써야 했다. 나아가 부모들의 돈,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돈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면 더욱 더 강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에 따라 임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요컨대 이곳 조합에 편입된 이상 개인은 ‘공적인 임무’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특수한 주체성이 주조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실패 역시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협동심, 봉사정신, 희생정신으로 극복(박주형 2013)’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으로써 결과의 모든 책임은 조합원 개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결국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유치원을 얻게 되었다. 교육부나 화성시는 조합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나서진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왔는데, 그들 입장에서 조합유치원은 만드는데 수백억이 넘게 필요한 국·공립유치원 대신 5억 남짓한 돈(이 돈 역시 조합원들의 출자금 및 시중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으로 조성한 것이다)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선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지 않은 주체는 없었다. 북극성도 깊은산도, 엄마들도, 심지어 화성시나 교육부의 관계자들도 유아교육의 대안적 모델을 만들겠다는 조합의 이상적 목표에 부응했을 따름이다. ‘사립유치원에 맞서 부모들이 직접 만드는 유치원’이라는 공리적 이상에서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 두는(Foucault 2016)’ 방식의 국가적 통치 전략이 놓여있다는 사실은 눈치채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은 그저 돈을 아끼면, 열심히 일하면. 선한 의지를 가지면 ‘훌륭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조합의 원리와 완벽히 맞물려 이미 자유롭게 결성되었던 공동체를 ‘봉사하도록 강요받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변모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웠던 개인은 조합의 일률적 매커니즘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 조합원이 되었고 친밀공동체는 점차 도구적 공동체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어질 마지막 장에서는 결국 이러한 조합의 모습이 ‘자신들이 원했던 공동체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집단 탈퇴를 결정한 5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2) 5가족의 탈퇴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개원한지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4월 초, 한나와 진주, 꽃마리, 루피, 써니네 가족이 조합을 탈퇴하고 아이들도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1년 동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겠다고 결정내린 것이다. 뜻밖의 소식에 연구자 역시 당황스러웠지만, 연락을 받은 직후 만나본 엄마들의 얼굴은 오히려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다. 조합유치원을 경험한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동안에 탈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엄마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첫 번째, 신규조합원으로 들어온 부모들과 조합유치원에 기대한 가치가 달랐다는 점이다. 엄마들은 한나의 표현대로 조합유치원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같은 희한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했다. 숲이랑놀자가 7가족의 작은 공동체였다면 조합유치원은 규모만 확대될 뿐 숲이랑과 똑같이 친밀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규조합원들은 조합유치원을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써니는 신규조합원 중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을 경험해봤던 일부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치원에 대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였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람들과 앞으로 공동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즐거울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자: 써니는 유치원에 언제까지 다녔었지?

써 니: 3월말.

연구자: 엄마들 그만두면서 같이 그만둔거야?

써 니: 응. 그만두면…. 사실 나도 유치원 너무 좋은데, 근데 혼자 거기서 일을 하

고 싶진 않았거든. 이게 이, 여기 일에 막 새벽까지 일을 하고 막 진상들 있어도 버틸 수 있었던건 여기 엄마들도 있고 이 사람들, 우리 처음에 운영했던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냥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버텨나갔던 그 힘인데. 내가 남아가지고 혼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이 즐거울거 같진 않았어. 그리고 이제 운영이사, 이제 일이 개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어려운 점은 특히 학부모들 카톡에서 막 학부모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 때. 조합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니까 권리만 있고 이제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권리만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 그런 사람들 대하기도 어렵긴한데 같이 있으면 막 이렇다니까 하는데 나만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감정싸움을 하면서 나만 버티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사실 내 목표는 유치원이 아니었고 그냥 같이 일하는게 즐거워서 여기까지 온거였는데….**

배우자인 북극성과 함께 조합유치원에 남아 지금도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로라 역시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을 전달하려고만 하는 일부 이사진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 조합유치원이 설계한 '공동육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오로라: 뭐 계속 자기 원하는 부분만 애길하고 분명히 우리가 선을 딱 그어놓고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근간을 약간 흔들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나오고. 이사들 중에서도 왜 공동육아라는 느낌이 생소하다. 이건 우리가 지금 만들기 전부터 담고 가는건데 이 근간부터 뭔가 흔들린 것 같은…. 계속 답답하지. [중략] 여르미같은 경우에는 재정이사가 없고 워낙에 그전에 말이 많았으니까 일부러 참여시킨 부분이 있고. 그 도도는 본인이 스스로 이사회 참여하고 싶다해서 들어온거거든. 슬슬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거지.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알겠어. 이게 어린이집이랑은 달라 유치원은. 그리고 동탄이 달라. 동탄에 이 부모들이 좀 달라.

연구자: 어떻게?

오로라: 자기가 뭔가 시간을 내거나 품을 내려고는 하지 않는데 단합은 부족하고

> 원하는거는 많고. 귀찮아하고. 그랬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지금 슈퍼포[교육행정 담당직원]나 우아미가 겪어왔던 그 어린이집 상황, 콰지[공동육아어린이집 원장]도 그렇고. 콰지도 어린이집을 공동육아어린이집에 대한 연차가 있으면서 그런 얘기하는거 들어봤을때는 부모들이 엄청 품을 내더라고 그때는. 그걸 각오하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각오하고 들어오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지 참여율도 높고 재정이사부터 해가지고 다 책임감을 갖고 하다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

공동육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품”을 내지 않으면서 사립유치원처럼 “내 돈 가치”만을 주장하는 신규조합원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숲이랑놀자 엄마들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의 토대 없이 갑자기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개원한지 단 몇 개월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조합원들 간 ‘공동체성’을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에 다다를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실은 공동육아 교육철학은 이러한 각기 다른 부모들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자체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공동육아 실천’을 익히다보면 부모들 사이의 공동체성 역시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교육이나 반모임, 마실 등 대면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시간이 지나 만남이 쌓이다보면 ‘서로 도우며 아이를 함께 키우자’는 공동육아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단일한 공동체로의 성장이 조합유치원의 궁극적 목표라면 조합 자체가 가진 ‘규모’의 문제는 공동체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규모, 얼마만큼의 구성원이 단일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적당한지는 어떤 학자들도 단언하지 않았으나,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친밀성보다는 ‘이념’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성훈(2011)은 친밀공동체의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로 ‘제한성’을 들고

있는데, 개별적 개인들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 한해 개체성에 기초한 전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친밀관계가 없는 공동체로써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Anderson 2003)'와 구별한다. 물론 '상상된 공동체' 역시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써 개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성훈이 본래적 의미의 공동체에 가장 가까운 유형으로 친밀공동체를 지목한 이유는 친밀관계야 말로 개인주의적이고 도구적 관계에 사로잡힌 도시적 삶의 양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원했던 조합유치원의 모습도 이러한 친밀공동체에 가까웠는데, 여기에 5가족의 엄마들이 조합을 탈퇴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본론의 도입부에서 밝혔던 것처럼 숲이랑놀자를 찾아온 엄마들은 독박육아를 극복하고 "뭔가를 나눌 사람"을 얻고자 공동육아를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동안 숲이랑놀자 공간에서 부대끼고 갈등과 실패를 경험하며 "뭔가를 나눌 사람"들의 공동체, 즉 친밀공동체를 완성하였다.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은 적은 인원들이 모여 작은 공간에서 함께 공동육아를 했기 때문이며, 엄마들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70가족이 넘는 대규모의 조합유치원에서 과연 새로운 친밀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들이 경험했고 만들어낸 친밀공동체란 필연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감정적으로도 교류하고 만남을 가지고 아이들끼리도 친근함을 가지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70가족 모두가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합유치원을 기반으로한 확대된 친밀공동체 형성이 요원해진 이상 그들이 이곳에 남을 유익은 없었다.

물론 조합에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고, 엄마들이 조합일을 그만두어도 아이들은 계속 유치원에 다니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5가족은 조합을 탈퇴하면서 볼트, 맥스, 레오, 아리엘, 소피와 루비도 모두 유치원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북극성은 아이들만이라도 계속 조합유치원에서 공동육아로 키우면 좋았을텐데 어른들의 관계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북극성: 그니까 나는 '너네들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애들은 보내지, 보내라' 했거든. 근데 어른들 싸움에 애들까지 그렇게 볼모로 몰아야되나, 너네 혹시 계획있냐 하니까 계획도 없고. 공동육아한다고 하는데 아직 여력이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뭘하든지 하든 간에 어른들끼리 싸움에 굳이 애들한테까지 저렇게 막 해야되나 싶기도 한…. 그게 좀 안타깝더라. 그냥 보냈으면 했는데….

위 면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육아' 혹은 '공동육아공동체'에 대한 관념이 북극성과 나머지 탈퇴한 엄마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극성은 공동육아가 "여력"이나 "계획"을 통해 가능한, 예를 들어 조합유치원과 같이 '제도에 기반한 실체'라고 생각했다. 이와는 반대로 엄마들은 탈퇴한 5가족의 공동체가 곧 '공동육아'이자 '공동육아공동체'라고 생각했다. 5가족이 탈퇴한 후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위해 한나와 꽃마리, 써니가 사는 주택 단지(타운하우스)를 찾아갔었는데 그곳에서 엄마들과 아이들이 생활하는 양은 숲이랑놀자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루피와 진주는 다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거의 매일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나의 집에 찾아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엄마들은 집 근처에 아이들이 갈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자리가 나는 곳으로 보내려는 참이었다. 그들은 잠깐이나마 경험한 조합유치원의 공동육아교육이 너무 좋았고 식사도, 교실 분위기도, 선생님들도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탈퇴를 후회하진 않았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공동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가족이 부대끼며 '서로 도우며 아이를 함께 키우는' 실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다른 공동육아유치원이나 공동육아어린이집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북극성은 유치원을 넘어 조합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대안학교 등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면담 당시에는 화성시돌봄센터로부터 장소와 인건비를 지원받고 초등돌봄교실을 위탁하기 위해 협의 중이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환원이 곧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며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희망이 되겠다'는 본래의 목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독단적 태도와 일처리 방식이 결국엔 독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갈등을 일으킬 거란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성이 조합의 일에 손을 떼지 못하는 것도 본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자: 근데 그동안 북극성 공황장애도 오고 힘들었잖아.

북극성: 쓰러졌지. 그래서 회사에 휴직도 내고.

연구자: 북극성도 그렇지만 오로라도 걱정 되게 많이 했고.

북극성: 쓰러지기 전에는 이제 재단을 만드는 거였어. 사학재단. 사학재단 만들어서.

연구자: 전에 대안학교 말했던 것처럼?

북극성: 응, 대안학교까지 만드는게. 사학재단 중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아예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냥 하나의 교육체로 그냥 만들어 버릴려고 했거든. 근데 쓰러지고나서 좀 추진력을 많이 잃었지. 아 아직, 몸이 이제 안따라주는구나 싶기도 하고 이사회가 과연 이거를 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서포트가 될까 싶기도하고. 혼자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대안학교 정도면. 조금 주춤하고 있긴한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순서로 방과후. 방과후인데 방과후도 지금 길이 조금 보여서. 방과후하면 대안학교도 꿈꿔볼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하고. [중략] 나는 아예 학원처럼 만들어버릴거야. 미술, 음악하고 그리고 영어하고 싶은 사람 수학이면 수학, 음식만들고 싶은 사람은 음식해가지고 반 한 열다섯 개에서 서른 개 만들어서 거기에 개별 특성화로 해가지고 신청받아서 거기서 하는거지.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있으라는거야 그냥 하루종일 그냥 우리 재단에서 놀으라는거야 그냥. 어린이집부터 대안학교까지. 그냥 하루종일 여기서 있으면은 다 좋은, 좋고 행복하다 이 애기하고 싶은거야.

이상으로 탈퇴한 5가족과 조합유치원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

면 결국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경합의 대상이 되는 개념(황익주 2016)'이라는 앞선 논의로 되돌아 가게 된다. 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달랐고 실천양상도 달랐지만 둘 중 무엇이 더 옳거나 혹은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로운 도시 생활 속 독박육아에 시달리던 엄마들에겐 '숲이랑 5가족'이라는 친밀공동체를 이룬 것이 최고의 성공이었고, 북극성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조합유치원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길 원했던 많은 부모들에게 지역공동체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이, 아직은 체계 안정화 단계라고는 하나,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전형적인 '교환관계'를 보이는 데에 있다. 페르디난드 퇴니스(Ferdinand Tönnies 2017)는 실재적이며 자연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공동사회'로 설정하고, 공동사회에서는 관계 맺는 주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함과 동시에 오히려 그 불균형한 차이를 통해 호혜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호혜적 관계는 공동사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유익이다. 퇴니스는 가족 사이에는 이 유익이 일종의 '경외'로 나타나지만, 공동사회에서는 이타주의라는 '즐거움의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불균형이 점차 감소할 경우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버리고 마는 것도 공동사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유익이 사라질 경우 공동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급부와 반대급부가 철저한 교환관계를 이루는 '이익사회'로 나타난다. 이익사회의 관계는 계약에 기초한다. 계약 역시 서로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지만, 공동체는 계약 위에 존재하기 어렵다. 공동체의 성립은 지속성을 통해 담보되는데 철저한 교환관계가 깨어지는 경우, 즉 급부나 반대급부 중 하나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계약은 쉽게 파기되기 때문이다. 이를 조합유치원에 대입하자면, 조합원이 원하는 바를 조합에서 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조합원은 다른 유치원을 찾아가는 손쉬운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조합과 조합유치원의 관계는 다른 사립유치원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조합원들이 앞으로도 "내 돈 가치"에 따라서만 유치원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꿈꾸는 공동체는 실상 이룩하

기 어렵다는 뜻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숲이랑놀자’ 품앗이 육아공동체 및 동탄신도시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육아의 실천과 그 속에서 형성되는 도시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숲이랑놀자’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모두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이에 대한 대항적/대안적 실천으로 만들어진 ‘부모들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결과적으로 ‘조합’이라는 제도적 양식이 이들 집단의 성격을 다르게 형성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는 동탄의 신도시적 특성이 어떻게 ‘숲이랑 7가족’의 공동체 형성에 촉매 작용을 하였고 반대로제도적 양식이 어떻게 친밀공동체를 와해시켰는지를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동탄신도시의 특징과 자녀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리유치원 사태가 기존 사립유치원-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깨뜨리고 다시금 재정립시켰는지를 파악하였다. 동탄신도시는 ‘정주적 쾌적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문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엄마들에게는 독박육아의 짐이 지워진 ‘완벽한 외딴 섬’과 같았다. 독박육아의 짐을 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엄마들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를 맡긴다’는 행위에는 사립유치원이 ‘아이를 내 자식처럼 돌보고 가르쳐 줄 것이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다. ‘비리유치원 사태’는 이러한 믿음을 일시에 무너뜨려 사립유치원을 ‘적폐 세력’으로 만들었고, 전국 학부모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사회적 힘을 가진 사립유치원 집단이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유치원회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받게된 당시부터’ 학계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거 연혁에 대한 재고가 없는 채로 ‘유치원 3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소위가 시작되었고, ‘유치원 3법’

이 사태의 해결을 돕는 공식적 권위로서의 규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양 당사자는 '적대적인 맥락'을 보이며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봉합할 수 없이 보였던 사립유치원-학부모는 결국 대체 가능한 자원이 없었던 이유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합의(Gulliver 1973)'에 이르렀다. 비리유치원으로 지목당한 곳들에 다시 '아이를 맡기'는 것이다. 유치원 3법은 법을 더 촘촘히 만들어 이들의 관계를 규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이는 원래 존재하던 의무와 감시의 역학관계를 강화시킨 것일 뿐 동탄의 부모들에게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나에게 친절한 상담사이자 나에게 서비스 제공하는(깊은산)" 존재에 다름없다. 유치원 3법의 개정은 "내 돈 가치"에 더해 사립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유치원이 아이를 내 자식처럼 돌보고 가르쳐 주길 바라는 학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음을 2장을 통해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질성과 익명성 등 도시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Wirth 1938) '도시에서 아이 키우기'의 전형적인 양태를 벗어나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숲이랑놀자 7가족의 공동육아 실천을 탐색하였다. 우선 엄마들은 '숲이랑놀자'라는 터전을 동탄의 반대편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고 또 그에 따라 공간을 재현하고자 했다(Lefebvre 2011). 재현의 양상은 첫 번째, 동탄에서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피상적이고 도구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터전에서 엄마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갈등 드러내기'의 규칙이나 별명과 반말문화의 차용과 같은 실천을 통해 달성되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육을 수행하였다. 엄마들은 숲이랑놀자에서는 '특화된 형태의 안전과 위생'이 실천됨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아이들이 도시에서는 얻지 못할 다양한 유익들, 예를 들어 돌 던지기 놀이와 같은 '다소 위험하지만 신나는 놀이'나 서사와 공간에서 끝없는 연쇄와 변주가 일어나는 독특한 방식의 자유놀이를 행할 수 있었다. 다만 '특화된 형태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부 구성원들이 숲이랑놀자에서 이탈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도시의 반대편을 상징하는 두 번째 실천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한 어른들은 ‘갈등 드러내기’의 규칙을 통해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이나 서로에 대한 불만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었다. 숲이랑놀자의 작은 공간은 이러한 ‘갈등 드러내기’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엄마들은 ‘핵가족의 사생활’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내밀한 감정’들이 노출됨을 쑥스럽게 여겼지만, ‘갈등 드러내기’의 규칙을 통한 ‘내려놓기’의 실천은 결국 서로를 ‘비교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정성훈 2011)’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으로 연결되어 7가족을 ‘친밀공동체’로 완성시켰다. 7가족의 구성원들은 숲이랑놀자에서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각자 ‘개체성’을 지닌 존재로 관계 맺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엄마들은 스스로가 그리고 서로가 ‘완벽하지 않은 엄마/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위안 받았다. 엄마들은 “희한한 관계”, “사랑하는 사람”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숲이랑 7가족이 ‘친밀공동체’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낯선 이들의 세계인 도시에서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공동체의 의미 있는 존재로써 소속감과 정체성을 드러내주기도 한다(Lofland 1973).

제4장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항적/대안적 유치원’으로 기획된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의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획들이 ‘공동육아’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이탈의 양상들을 탐색하였다. 우선 북극성은 재정적 측면에서 “엄마, 아빠들이 볼 수 밖에 없는 감시”의 체제를 작동시키기 위해 유치원 예산을 “마이너스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돈이 남지 않는 구조의 유치원’은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였지만, 이는 개원 초기 조합유치원의 재정적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게다가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인 유치원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코로나19와 예산 부족의 위기 상황에서 북극성과 깊은산, 숲이랑 7가족은 나머지 조합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고통분담”하여 이겨내기를 원했지만, 특수한 공동체성이 형성되기 전 이들의 행동원리는 사립유치원을 대하는 학부모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다. 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소비자/고객으로서 “내가 받아야할 가치”를 따지고 있었고 유치원이 “내 돈 가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 북극성과 깊은산의 기획과도 어긋나는 것이었으며 공동육아를 통해 친밀공동체를 경험한 7가족의 엄마들이 본래 기대했던 것과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관점 및 해결하는 방식은 북극성과 깊은산, 엄마들에 따라 각각 달랐다. 북극성은 조합원마다 다른 ‘유치원에 기대하는 가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비효율적’인 공동육아이론보다 조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조합과 공동육아를 선택적/대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공동육아의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유치원이 운영되면 개별 학부모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없고 오히려 단일한 공동체 형성에 걸림돌로 작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깊은산은 공동육아공동체가 “믿음체계”의 뼈대 위에 존속한다고 생각했으며, 초기 공동육아를 실천하며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들의 혼란과 대립, 위기들은 이러한 “믿음체계”를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피할 수 없는 역경’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극성과 깊은산이 궁극적으로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70가족 공동체’의 형성과 존속을 목표로 하였다면, 엄마들은 이러한 북극성과 깊은산의 희망에 회의적이었고 따라서 조합에 계속 남아있을 유익도 없다고 생각했다. 무지개네 사건 등을 포함해 일련의 위기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보인 소비자/고객의 행동양식은 숲이랑놀자와 같은 ‘친밀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는 엄마들의 이상과 쉬이 융화될 수 없을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7가족 중 5가족은 조합을 탈퇴하여 초기 그들이 원했던 대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만족하며 공동육아를 실천하였다.

연구자는 이상과 같이 숲이랑놀자 7가족의 공동육아 실천을 통해 발견한 것을 아래의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적 양육의 한 형태이지만 기실 엄마들이 가장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양육형태인 독박육아는 법령 등 제도적 양식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아닌 엄마들의 적극

적인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7가족의 엄마들은 동탄에서 '아이 키우기'가 예컨대 훌륭한 시설을 갖춘 사립유치원 등을 포함한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물질적 자원'들로 달성되는 과정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유치원3법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기대하기에 '아이 키우기'에 필요하다고 느낀 자원과 규칙들을 '숲이랑놀자'를 통해 자유롭게 구현하였고, 이것은 곧 구성원 각자의 방식으로 공동육아를 내재하고 공동육아를 개념화하는 차원으로 연결되어 그들 스스로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해 숲이랑놀자에서 7가족은 공동육아의 복잡한 인증 절차나 물적·제도적 지원과 무관하게 '고유의' 공동육아를 실천함으로써 과제의 영역에 있었던 '독박육아'를 극복한 것이다. 이러한 7가족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공동육아가 '공동육아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제도적 양식 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활동이 아닌 공동체적 실천의 총체적 과정으로 달성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공동육아는 아이-어른이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만드는 '총체적 돌봄의 관계망'임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신체적·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비단 아이들 뿐만이 아니다. 도시의 비인격적·피상적 관계맺기에 희생되는, 그러나 일상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그 상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숲이랑놀자에서의 돌봄은 도시의 일시적 관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 - 내밀한 감정이나 반(反)모성적 행태를 가감없이 표출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긍정해줄 수 있는 관계망이 작동됨으로써 달성되었다. 엄마들의 이러한 독특한/경험해 본 적 없는 '돌봄 받는' 경험들은 숲이랑놀자 7가족을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고, 나아가 이 공동체가 자신의 보호막이 될 것이라는 믿음 및 이 안에서 계속 함께 하고 싶다는 '영속성에의 의지'를 키웠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는 '서로 도우며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육아의 이상이 신체적/물리적 호혜관계뿐 아니라 개별 구성원 모두가 개체성을 가진 존재로 '총체적 돌봄'을 받는 실천을 통해 완성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에 반해 구성원 간 친밀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여전히 제도적 양식에 의존하여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조합 내 갈등과 이탈의 문제에 공동체적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은 유치원 3법준수·반값 원비·긴 방과후돌봄시간·교사 대비 적은 원아수 등 기존 사립유치원과의 차별성을 토대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개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육아가 소규모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비교적 대규모의 유치원에도 적용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원의 성공은 공동육아공동체성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나열한 '사립유치원과의 차별성'을 내세운 결과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치원이 아닌 아이가행복한유치원을 '선택'한 이유로 조합원들은 '사립유치원과의 차별성'을 꼽고 있으며 이것이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아이가행복한유치원 고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공동체의 형성보다 자신들이 '선택'한 '가치'의 달성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에 따라 조합원들은 공동육아와 조합을 별개로 인식하여 공동육아는 아이들에게, 조합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위기의 상황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을 내포한다.

오늘날 공동육아는 도시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배경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적·물질적 자원이 실제 공동육아 터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본 연구는 앞으로 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육아공동체의 실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조합이라는 제도적 양식은 분명 조합원들이 가진 여러 자원들을 한 데 모으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으나 이것이 곧 '공동체성'을 담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별적 개인들을 무채색의 '조합원'으로 한정시킴으로써 개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공동체에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친밀공동체는 '침범당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으

려는' 도시의 일반적 행위양식을 깨고서야 비로소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조합'의 원리에만 집중하고 '조합원'으로서의 행동양식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도구적 관계'에 기초한 '조합'일뿐 '총체적 돌봄의 관계망'을 구성하는 '공동육아공동체'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성우

2015, “개항기 조선에서 근대적 위생문화의 수용”, 『한일관계사연구』, 52: 307-340.

김경희

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김미란

2016, “공동육아의 생태교육과 공동체적 관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1: 25-34.

김미영

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이론』, 27: 181-218.

김수정·황정미

2019, “사립유치원 "비리"와 돌봄 공공성: 회계투명성을 넘어”, 『페미니즘연구』 19.1: 209-245.

김영미

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김유나

2013, “돌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123-148.

김정호

2017,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규제연구』, 26.2: 97-119.

김종해

2004,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68:33-44.

김형선

2008, 『신도시 개발론』, 서울:부연사.
김홍중
2009,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 이론』, 14: 173-212.
류경희·김순옥
2001,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조합형 어린이집 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9.3: 107-133.
박병춘
2012,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4: 1-26.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43: 4-43.
세종대학교 박물관,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물』, 2005.
신동호
2013, “영미의 도시계획운동 - 전원도시운동과 도시미화운동, 신도시주의 운동에 대한 비교연구”, 『지역사회연구』, 21.2: 231-49.
심은희
2012, “제5공화국 시기 한국사립유치원의 변천과정”,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383-416.
양병이
2005, “신도시설계 과정에서의 MP(Master Planner)설계방식의 적용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43: 49-68.
오세근
2015, “가족 아이덴티티(Identity)의 새로운 경계로서 친밀성(Intimacy)의 사회사상: 최석만 선생의 “보편적 세계인식의 원리로서 가家”론의 심화 선상에서”, 『사회사상과 문화』, 18.4: 53-94.
오윤경·최현선·이은지·김재현
2013,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충청북도 괴산

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학회』, 23.2: 141-172.
오채선·이부미
2019, “공동육아 교육담론 형성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열린교육연구』, 27.2: 93-119.
오하나·배정환
2013, “공동육아보육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 서울 경기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7.2: 193-220.
위성남
2013, “도시 속에서 함께 살아남기”, 『황해문화』, 80: 61-78.
유해미·김문정
2013,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포럼』 37: 20-31.
윤자영
2018, “돌봄노동 시간 개념과 측정: 자녀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2: 171-200.
이부미
1999, “공동육아의 기록 ‘날적이’에 대한 교육적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3.1: 139-170.
2016,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서울:또 하나의 문화.
이상율·채승희
2011, “Le Corbusier와 E. Howard의 도시계획에 관한 비교연구”, 14.3: 19-29.
이승수·이규빈
2012, “‘고향’을 매개로 한 도시공동체 연구: 재경율곡면향우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8.2: 259-306.
이정욱
2017,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의 방향”, 『교육비평』, 39: 444-464.
이현옥·박주희
2019, “일상의 통제력을 담보한 돌봄 사회화 :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중심

으로”, 『한국여성학』, 35.3: 79-112.
이희은
2014, “관찰 혹은 자발적 감시: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감시 사회의 정경”, 『한국방송학보』, 28.2: 211-248.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창비.
장수정·류선정
2018,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공동육아어린이집 전환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0: 301-341.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2: 7-34.
2013, “도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네트워크의 역할”, 『한국학』, 36.4: 8-35.
정병호
2000, “문학과 사회 : 한국사회의 공동체 교육현장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 풀무학교와 공동육아 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9: 407-432.
정성훈
2011,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41.41: 347-377.
2013, “도시공동체의 친밀성과 공공성”, 『철학사상』, 49.49: 311-340.
정헌목
2017,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반비.
정형호
2011, “20세기 서울 지역 도시공동체의 특징과 변모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17: 285-320.
정혜선
2010,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품앗이육아공동체 참여경험에 관

한 질적 연구”, 『한국생화과학학회지』, 19.3: 429-441.
조미라
2020, “성찰적 공동체형 복지실천과 여건에 대한 질적연구: 인천 계산동의 공동육아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8 : 35-71.
주경철
1999,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문학과 지성사.
최경애
2016,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형성”, 『공공사회연구』, 6.4: 76-120.
최철규
2012, “공동육아과정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공동체학습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하봉운
2020,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1: 93-121.
한상진
1992, “서울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의 성격 - 광주 대단지와 분당 신도시의 비교연구”, 37:61-101.
한정미
2013, “협동조합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2: 25-43.
황승흠
2001, “분쟁에 대한 법인류학적 접근의 연구”, 『성신법학』, 1: 151-178.
Anderson, Benedict
2003,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Bauman, Zygmunt
2015,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한상석 역, 후마니타스.
Fischer, C.

1984, 『The Urban Experience(2nd ed.)』 New York:Harcourt Brace Jovanovich.

Foulcaut, Michel

2016,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오생근 역, 나남.

Giddens, Anthony

2001,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 변동』,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Jacobs, Jane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그린비.

Krupat, Edward

1985, “Definitions and Models of Urban Life”, 『People in Cities』, Cambridge:Cambridge Univ Press.

Lefebvre, Henri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Lofland, L.

1973,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Basic Books.

Mead, Magaret

2008, “사모아 청소년: 서구문명을 위한 원시사회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파주: 한길사.

Milgram, Stanely

1970, “The Urban Experience: A Psychological Analysis”, 『In UrbanLife: Readings in Urban Anthropology』, 4:83-92.

P. H. Gulliver

1973, “Negotiations as a Mode of Dispute Settlement: Towards a General Model”, 『Law & Society Review』, 7.4: 667-692

Richard Abel

1973, “A Comparative Theory of Dispute Institutions in Society”, 『Law & Society Review』, 8.2: 217-347.

Sally Engle Merry

2018(1988), “Urban Danger: Life in a Neighborhood of Strangers”, 『Urban Life: Readings in the Anthropology of the city』, Waveland Press. 109-121.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241985, “Definitions and Models of Urban Life”, 『People in Cities』, Cambridge.

보도자료

매일경제, 2018.10.25., “유치원 돈으로 단란주점... 병원비 860만원·조의금 450만원 ‘펑펑’”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67465/>
매일경제, 1995.4.19., “수도권 택지개발 이대로 좋은가 (5) 신도시 「서울 베드타운」 전락”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41900099134004&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5-04-19&officeId=00009&pageNo=34&printNo=9074&publishType=00010>
조선일보, 1996.3.6., “문화시설 갖춘 베드타운 조성”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30600239107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6-03-06&officeId=00023&pageNo=7&printNo=23304&publishType=00010>
한겨레, 2018.10.12., “‘현금으로 가져오라더니…’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에 학부모 부글부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555.html>
JTBC News, 2018.10.18. “‘7억 횡령’ 환희유치원 원장, ‘눈물’의 사과... “아이들에게 미안””
<https://www.youtube.com/watch?v=JiCiw0eBxAg>
매일경제, 2018.12.27., “‘유치원3법’ 합의 불발...패스트트랙 지정”

<https://mk.co.kr/news/politics/view/2018/12/807168/>
스카이데일리, 2019. 3. 20., “정부 주도 특혜유치원에 혈세 지자체건물 통째 뺏겼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2963>
NSP통신, 2019.1.24.,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동탄2권역 지역회의”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34505>

웹사이트

아이가행복한유치원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dongtanbidaewe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record/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http://www.gongdong.or.kr/

그림

그림1. 화성시 행정지도. 화성시 홈페이지 출처
그림2. 숲이랑놀자 전경. 아이가행복한유치원 네이버 카페 출처
그림3. 동탄1신도시 공구별 위치도. 동탄1신도시 홈페이지 출처
그림4. 숲이랑놀자 모래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그림5. 숲이랑놀자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림6. 숲이랑놀자 거실에서 바라본 바깥 전경
그림7. 숲이랑놀자 앞 길에서 노는 모습
그림8. 숲이랑놀자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표

표1.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운영체계.
표2. 심층면담 피면담자 목록

Abstract

Co-parenting and social cooperative kindergarten after the corruption scandal

:the case of Dongtan New Town

Dayee Park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searche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a child-rearing community in the city through the experiences of parents rais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considers their care practices in the context of an urban community. To do it, the researcher conducted an anthropological field study at '*Play with Forest*' and '*Happy Child Kindergarten*', a social cooperative kindergarten in Gyeonggi-do.

Co-parenting, which started in the late 1970s with the intention of contemplating and overcoming children's education on the basis of community solidarity, drew attention as a unique educational experiment that avoids modern and uniform institutional education. As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eir practices appear one after another,

their potential is now recognized as a basic unit of urban community formation. As co-parenting grows, the institutional and material resources that can support it have also increased, and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how these institutional and material devices operate in the voluntary community of co-parenting.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e practice of co-parenting at the '*the Play with Forest/the Happy Children Kindergarten*'. First, it examines the daily care patterns of mothers in Dongtan New City with young children, and explores the problem of urban parenting that was visualized through the illicit kindergarten incident. Second, the practice of co-parenting presents some alternative possibilities to the problem of urban parenting, and on the contrary, it sheds light on how institutional and material resources limit their practice.

Dongtan was known as a 'good city to raise children' based on the built environment designed as a so-called 'ideal planning city', but behind the scenes there was a daily life of single parenting. Urban parents, who had to obtain the various resources necessary to raise their children solely within the nuclear family, have depended on educational and childcare facilities such as private kindergartens on behalf of their relatives, neighbors, and village communities. The limits of care were clearly exposed. The revision of the 3rd Kindergarten Act was made to deal with the corrupt kindergarten situation, but this was only to solidify the capitalist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kindergartens and parents by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for private kindergartens, not to actually solve the problem of urban childcare. This is because private kindergartens cannot become a 'community' for both children and mothers, as they focus only on accurately performing their duties of education and childcare.

The practice of the 7 families who left Dongtan and created *'the Play with Forest'* is meaningful in this context. This is because it is meaningful as a realization of the desire to be meaningful to each other, beyond the typical mode of 'raising children in the city', which is determined by the urban environment such as heterogeneity and anonymity. *'the Play with Forest'* functioned as a third place for the 7 families to exist in the gap of the city. In their place, the family made it a rule to behave 'differently from the city', and they were constantly 'intruding and intruding' each other in the secret areas of the nuclear family. The emphasis on 'sanitary environment and orderly life' was also made with a 'loose attitude' than usual/in the city, which is a unique rule of this place and it provides distinction in practicing parenting in a different way from the city. In addition, by witnessing together that nurture, which was not noticed in the temporary and superficial relationship of the city, does not consist of 'perfect maternal practice', caused by allowing unrestrained expression of human instincts and sharing of those expressions. They were comforted by the way they eventually were similar, and this recognition of the sameness became the nourishment for the formation of the 7-family community, *'the Play with Forest.'*

On the other hand, *'the Happy Child Kindergarten'* is a cooperative kindergarten that parents directly planned and established under the aspiration to 'fight against private kindergartens and show a side that is comparable to private kindergartens'. They recruited ten times the number of new families compared to *'the Play with Forest'*. Contrary to the expectation of 7 families, who expected that more people would be able to secure mo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 expansion of the size made it difficult to ensure intimacy within the community. Each member insisted on different 'values expected from

kindergarten', and when these were not met, conflicts and departures between members were repeated, resulting in a community crisis. Institutional and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kindergartens were secured through 'voluntary efforts of union members' and systematized so that they could be used 'only for children', but it also ran into various difficulties. The spontaneity of the members depended on the 'duties of members' rather than the whole heart for community. Because parents consider the duties of members are not for making communal childcare community but for meeting the values to look forward to in kindergarten through the smooth operation. The situation that each of members is becoming the subject who are forced to serve is a big problem.

Through this, this study defines *'the Play with Forest'* and *'Happy Child Kindergarten'* as a common parenting community with different goals. Even though *'the Play with Forest'* is closed, 5 families among them are still raising children together in a way that they do their daily lives together. This shows that the communal childcare community can exist as a 'holistic care network' even if it is not an 'institution-based being'. For them, 'raising a child in the city' means that not only the child but also the mother herself is recognized as an each individual in the 'total care network', and joint parenting is like realizing this desire. Conversely, *'Happy Child Kindergarten'* is meaningful as an urban community in that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more people to come into contact with, experience, and practice the community. The reason parents desperately need a community is that there is not good enough space for caring to entrust their children. *'Happy Child Kindergarten'* provides this kind of 'space for caring' that is hard to find in the city. Of course, it is clear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collecting various resources voluntarily and

efficiently because the institutional form of a union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Since the values that 70 families expect are different, it takes a lot of energy to unite them.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is shows the fact paradoxically that 'urban community' is a place where various values of many people compete. This study confirmed the various aspects of urban communities by looking at urban residents who want to achieve 'intimate relationships' by overcoming anonymity and heterogeneity and at the same time, urban people who want to achieve their values and individuality freely without being bound by existing customs.

keywords : city, urban community, parenting, cooperative childcare, private kindergarten, intimacy, union
Student Number : 2018-28912